ScubaNet
magazine

2013 01

제이슨 테일러의 수중조각
공주와 함께 한 몰디브 다이빙
고래상어를 찾아 떠난 12월의 레이테
홍해 II
무장공자전-게에 대하여
2013년 새해맞이 양양 다이빙
스쿠버넷 매거진 앱 설명 : 안드로이드
카메라 하우징 관리하기
제9회 빛흐름 수중사진전
야간 다이빙의 수중촬영
외장 스트로브의 TTL 촬영과 매뉴얼 촬영
제1회 Underwater.Kr 국제수중촬영대회
임규동의 DSLR 갤러리

ScubaNet

표지사진 제이슨 테일러

ISSN 2287-4003

www.scubanet.kr

스쿠버넷 매거진은 인터넷(www.scubanet.kr)에서만 다운로드 받아 구독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 전문 전자잡지입니다. 아이패드 등의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Hollis®

NEW SIDE MOUNT SYSTEM

SMS 50

Hollis "SMS" sidemount systems have been designed not just with cave divers in mind, but any sidemount diver. The new SMS 50 is no exception. Built for sidemount only, this kit can be used in any environment from open water to overhead. Includes an adjustable, one size fits most harness based on a minimalist design; also ideal for traveling sidemounters. Ready to dive out of the box (RTD).

"이제부터 Dive Giant 에서 꿈을 펼치세요"

Go Beyond Your World

Dive Giant

AQUA LUNG®

aqualung.com

http://www.divegiant.com

거천시스템(주) 서울 은평구 녹번동 71-27 녹번프라자 2층 Tel 02-387-3503 Fax 02-374-8402

"이제부터 Dive Giant 에서 꿈을 펼치세요"

Go Beyond Your World

Dive Giant

AQUA LUNG®

aqualung.com

http://www.divegiant.com

거천시스템(주) 서울 은평구 녹번동 71-27 녹번프라자 2층 Tel 02-387-3503 Fax 02-374-8402

GORE-TEX II DRYSUIT

TYPHOON

고어텍스 II 드라이수트는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 재봉선을 싱글 니들록 스티치를 이용 내구성을 확보
- 고어텍스사에 방수테이프를 620° C 열테이핑
- 목 보온 칼라 장착
- 소변지퍼와 지퍼커버가 기본장착
- 케블라 팔꿈치 패드
- 케블라 무릎 패드
- 내구성과 투습율을 향상시킨 디센더 II 원단 사용
-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빕엔트리지퍼를 채택
-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 내부에는 신축성 있는 어깨끈이 장착
-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고어텍스 II 드라이수트(GORE-TEX II)

최고를 지향하는 다이버를위한 유일한 선택

고어텍스 II 드라이수트는 드라이수트를 입고 있는 동안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어텍스 본사에서는 최신 섬유기술을 적용하여 드라이수트에 가장 이상적인 고어 "DESCENDER II" 원단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최첨단 소재인 디센더 II 원단은 내구성 증가및, 투습률 증가로, 드라이수트에 최고의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고어텍스 II 드라이수트는 맞춤과 세미 맞춤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공급합니다.
www.mares.co.kr

mares just add water

PRO LIGHT DRYSUIT

TYPHOON

프로 라이트 드라이수트는 레저다이빙에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 클로텍스 원단은 가벼우면서도 최고의 내구성을 보장
- 2중 테이핑으로 내구성과 밀수성을 보장
- PU 코팅된 무릎패드
-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허리 탄성밴드 장착
- 내부에는 신축성있는 어깨끈이 장착
- 영국제의 부드러운 라텍스 목씰과 튼튼한 손목씰 채택
- 360° 회전식 급기 밸브 장착
- 자동 및 반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기밸브 장착
- 5mm 써믹 부츠나 라텍스 버선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프로 라이트 드라이수트(PRO LIGHT)

가볍고 부드러우며 심플한 레저 다이버용 드라이수트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L' 사이즈 무게:2.5kg)
재봉 선을 최소화하여 누수의 위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주 부드러워 착용감이 월등합니다.
프로 라이트 드라이수트는 세미 맞춤으로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공급합니다.
www.mares.co.kr

mares just add water

POSEIDON

POSEIDON DIVING SYSTEMS AB

포세이돈 디스커버리는 레포츠 다이버를 위한 세계 최초의 완전폐쇄 자동식 수중재호흡기입니다.

시스템은 전자 모듈이 채용된 호흡 루프(마우스피스, 호스, 카운터 렁, 백 팩)와 두 개의 독립된 가스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버가 소모함에 따라 보충되는 백 퍼센트 압축 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린더는 일반적으로 다이버가 깊이 들어갈수있도록 호흡루프에 공기나 혼합기체를 공급해줍니다.

Discovery MK VI(₩ 11,500,000)

POSEIDON TECH REBREATHER
2012년 12월 출시예정

chaxton 첵스톤코리아 : 서울시 성북구 장위 1동 230-188 2층 TEL : 02. 3789. 0906~7 | FAX : 02. 3789. 0190

POSEIDON
POSEIDON DIVING SYSTEMS AB

세계 최초 전자동 레크레이션 재호흡기

더 오래 !

잠수시간 3시간 다이빙 가능

더 안전하게 !

감압이 필요없는 다이빙

더 깊이 !

40m/48m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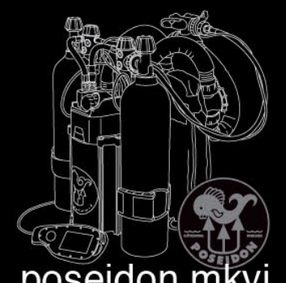
더 쉽게 !

전자동 칼리브레이션 시스템

교육센터 안내

SSI · PADI · BSAC Diving for divers · RAID REBREATHER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IVERS

MK VI 체험및 질문사항은 위의 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MK VI 체험등 교육일정은 www.scubanet.kr의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poseidon mkvi

The world's first fully automatic, recreational rebreather

- 무게 : 약18 kg (탱크,스크러버 포함)
- 배터리 : 리튬-이온 충전식 배터리
- 배터리 사용시간 : 30시간
- CO2 스크러버 : 카트리지식, Sofnodive 797
- 마우스피스 : 스위치변환방식- 폐쇄회로/개방회로
- 보관/관리 : 특수한 공구가 필요없는 손쉬운관리
- 펌-웨어 : 인터넷을 통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 알람기능 : 5가지의 안전 알람 시스템
- 부력조절기 : 전용 자켓타입과 백마운트 윙 중에서 택일

chaxton 첵스톤코리아 : 서울시 성북구 장위 1동 230-188 2층 TEL : 02. 3789. 0906~7 | FAX : 02. 3789. 0190

Poseidon *MK6* Rebreather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재호흡기
수영장 체험 수시 개최

첵스톤 코리아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0-188 2층 *Tel* 02·379·0906~7 *Fax* 02·3789·0190 *http://chaxton.com*

Poseidon *TEC* Rebreather

Poseidon Tec Rebreather
테크니컬 다이버를 위한
테크니컬 재호흡기
수심 100m 이상 사용가능한 제품
백업 재호흡기 탑재
MK6에서 모듈식 업그레이드 가능

첵스톤 코리아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0-188 2층 *Tel* 02·379·0906~7 *Fax* 02·3789·0190 *http://chaxton.com*

MERIDIAN

Intelligence at hand

MERIDIAN I COMPUTER
SCUBA I APNEA I GAUGE

- 최신 SCUBAPRO LogTRAK PC/MAC 소프트웨어
- 밝기 조절 가능한 반전 백라이트
- 예측 가능한 멀티-가스 알고리즘
- 산소 퍼센티지 21%~100%
- 메리디안 알고리즘 ZH-L8 ADT
- 미세기체 레벨 L0~L5
- 심박 모니터 통합
- 활동량 통합
- 프리다이빙(APNEA) 모드
- 시계 기능
- 내장 온도계
- 등산을 위한 고도계
- 게이지 모드
- 최대 수심 120m
- 여행을 위한 UTC 설정
- 기상 알람 설정
- 무음 모드
- 배터리 상태 표시
- 프리다이빙시 심박수 모니터
- 프리다이빙시 0.25초 간격 데이터 수집
- PDIS(다이빙 프로파일에 따라 중간 정지 제시)
-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한 매뉴얼 시작
- 한번 눌러 작동되는 스톱워치 기능
- USB 크래들을 통해 데이터 다운로드

Sports Strap

Backlight Mode

USB Cradle

MARINE BANK 경기도 광주시 삼동 213번지
Tel: 02-2297-5006 / 031-769-6306
Fax: 02-2297-5070 / 031-769-6319
www.scubapro.co.kr

SCUBAPRO

DEEP DOWN

YOU WANT THE BEST

MARINE BANK 경기도 광주시 삼동 213번지 Tel: 02-2297-5006 / 031-769-6306
Fax: 02-2297-5070 / 031-769-6319 www.scubapro.co.kr

CRESSI

SINCE 1946

SCUBA DIVING
Regulators

Titanium Balanced / MC9

티타늄발란스 / MC9

- 첨단 ART 테크놀로지의 MIX기술이 적용된
  크레씨 최고의 호흡성능을 자랑하는 최고급 레귤레이터
- 티타늄 재질의 2단계와 발란스 다이아프램 방식의 1단계
- 아이스 다이빙 (동계키트 장착시)-89/686/EEC 인증

Interocean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74-25번지 TEL:(051)622-5665 FAX:(051)625-173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65-2번지 TEL:(02)482-5664 FAX:(02)471-5666
www.interocean.co.kr

- 게이츠,아쿠아티카,노티캠 社의 정품 하우징은 (주)인터오션에서만 국내 독점공급하고 있습니다.
- 정품 하우징에 한하여 (주)인터오션에서 A/S가 가능합니다.

GATES UNDERWATER PRODUCTS

EPIC/SCARLET

PULSA/ATOM

DEEP RED

C500/C300

EX1R/EX1

XA10
CX760/CX700/CX560

HMR10/HCK10

HPX 3700

HVX 200A

씰체커

AQUATICA Digital

5D MK3/5D MK2

NEX-5N

7D

1DS MK3

550D

D800/D700

D 300S

D90

D3/D3S

CX700

nauticam innovation underwater

D800

NEX-7/NEX-5N

NIKON 1

E-M5/PL2/PL3

LX5/GH2/GF3

5D MK3

7D

60D/600D

D7000V

D4

Interocean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74-25번지 TEL:(051)622-5665 FAX:(051)625-173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65-2번지 TEL:(02)482-5664 FAX:(02)471-5666
www.interocean.co.kr

SHERWOOD SCUBA

REGULATORS

BRUT

SR1

고성능 컴팩트 호흡기

- 최적의 밸런스 피스톤방식
- 드라이챔버 장치로 동계 사용 가능
- 슈퍼플렉스 호스 장착
- 최적의 호흡효율 WOB 0.46 j/l 실현

뉴부르트

신뢰할 수 있는 보급형 호흡기

- 균형식 피스톤방식
- 동계 사용이 가능한 DAD 방식
- 균형식 2단계 시스템
- 나이트록스 40% 가능

TECKO Technology of Korea
(주)테코 TECKO.CO.,LT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202호
TEL : (031)776-2442 / FAX : (031)776-2444 http://www.tecko.co.kr
(주)테코가 공급하는 모든 상품은 건당 5억원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사 공급 제품 한정)
당사에서 공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DISCOVERING MOVES.™

Movescount.com
Your Sports Community

The pioneer with trimix: D9tx
The professional with 3D compass: D6i
The adventurer with wireless air: D4i
Where they get together online: Movescount.com

YOUR DIVE COMPANION JUST GOT SOME NEW SKILLS

Our wristop dive computers just got an upgrade. The D9tx now boasts trimix compatibility and a tilt-compensated 3D compass. The D6i packs the same 3D compass, as well as a new freedive mode and wireless air integration. The D4i is also now available with optional wireless air integration. All three are the great-looking, function-rich dive computers you know and count on—just better.

And when you join Movescount.com, Suunto's online sports community, you can easily synch your dive computer to share and compare your dives with other divers around the world.

Discover more Moves at www.movescount.com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suunto.com

SUUNTO
www.suunto.com

TECKO Technology of Korea
(주)테코 TECKO.CO.,LT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메가센터 201호, 202호
TEL : (031)776-2442 / FAX : (031)776-2444 http://www.tecko.co.kr
(주)테코가 공급하는 모든 상품은 건당 5억원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사 공급 제품 한정)
당사에서 공급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Santi Diving Equipment

SCUBATEC

ULTIMATE E.MOTION

탁월한 가벼움

L SIZE 기준 3.2kg

뛰어난 내구성

팔꿈치, 엉덩이등 손상 위험이 높은부위에는
Rip stop nylon 소재의 부틸원단 사용

새로운 T-ZIP 플라스틱지퍼

다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채택된
T-ZIP 플라스틱 지퍼는 꺽임에 강하고
지퍼 유지보수에 편리

SANTI만의 3년 무상 보증 서비스

씰링 부위, 목과 손목 씰은 6개월간
보증하며, 지퍼와 밸브는 1년간 보증

E.Motion

Feel the power of ultimate E·MOTION

서울 강동구 성내동 556-2 청일베르네빌딩 B03호 TEL : 02-6080-4901 FAX : 02-412-2770 FACEBOOK : facebook.com/Santidrysuit

RAZER II
Sidemount System

보가시안 사이드마운트 다이빙에 최적화
장비의 세팅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최경량으로 해외 다이빙 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수중에 유영 시 저항이 최소화
두 개의 공기탱크를 이용하여 여유있는 다이빙
트림 자세가 어렵지 않습니다.

RAZER II 를 위한 호흡기 셋팅 예시

Light Monkey Side Mount Specific 12W LED Primary Light

SCUBATEC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6-2 청일베르네빌딩 B03
TEL: 02-6080-4901 / FAX: 02-412-2770 / http://www.scubatec.co.kr

Contents

025 2013년 새해맞이 양양 다이빙 _ 강현주
031 스쿠버넷 매거진 앱 설명 : 안드로이드
039 제이슨 테일러의 수중조각
061 공주와 함께 한 몰디브 다이빙 _ 정상근
083 고래상어를 찾아 떠난 12월의 레이테 _ 김현덕
109 무장공자전 - 게에 대하여_권천중
121 박건욱의 메디컬 다이빙 스토리
- 치명적인 흉기 공기통(얼굴두부손상)
123 DAN Q&A 잠수의학-가시털갯지렁이에 쏘였을 때
127 고급수중사진교실 - 야간 다이빙의 수중촬영 _ 조진생
135 콤팩트 카메라 촬영교실
- 외장 스트로브의 TTL 촬영과 매뉴얼 촬영 _ 정상근
145 임규동의 DSLR 갤러리
161 다이빙 장비, 지피지기면 안따즐따 제2편
카메라 하우징 관리하기 _ 김현덕
173 제9회 빛흐름 수중사진전
189 제1회 Underwater.Kr 국제수중촬영대회 수상작
215 제1회 Underwater.Kr 국제수중촬영대회 참가기 _ 박정권
231 홍해 II _ 김산
249 거북들의 놀이터, 발리카삭 _ 주영필
257 2012년 스쿠버넷 매거진 송년회 _ 백소영
259 뉴스

광고색인

거문도리조트 120
다이버스몰 134
다이브어슈어 160
다이브자이언트 3, 4
대진리조트 144
마레스 5, 6
마린하우스 119
몬테칼로리조트 133
바다강 21, 23
스쿠버텍 17, 18
스쿠버프로 11, 12
씨월드리조트 81
아라다이브 107
영진아쿠아존 159
오션블루 125
우정사 1, 2
인터오션 13, 14
장비 전시회 127
첵스톤코리아 7, 8, 9, 10
태평양다이빙 108
테코 15, 15
투어보니또 37
파라다이스 리조트 82
파티마 29, 30
핀스리조트 38
해원리조트 126
행복한해적 143
헬시온 23, 24
BSAC 189, 190
DAN 124
G스쿠버 247
IANTD 59
PADI 171, 172
SDD 248
SPOEX 60
SSI 229
TDI/SDI/ERDI 213, 214

ScubaNet Magazine

편집/ 최성순, 정상근, 정한란, 김현덕 자문/ 조진생, 이용업, 김광회, 박정권, 김성훈, 조인호, 김동혁
필진/ 강현주, 김광복, 김영삼, 김주영, 이가영, 이원교, 박건욱, 백소영, 이지연, 조영철
문의: 02-554-2402, ask@scubanet.kr http://scubanet.kr

Hollis®

BioDry FX100

Bioflex improved with WearForce material

*Bioflex는 4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살아있는 직물' 입니다.
신축성이 20% 향상되어 저항을 일으키지 않으며 다이버의 변화하는 몸의 상태와 같이 유연하게 늘어납니다.

극한의 수온에서 세계의 다이버가 선택한

바다강 드라이슈트

북극에서 TEK-3000 드라이슈트를 입고
아이스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 러시아 북극 탐험가

TEK-1000

TEK-2000

TEK-3000

부틸 콤비

BADAGANG Co.

Tel 본사 080-621-6003
지사 02-477-2952
aquaz@aquaze.net
www.aquaze.net

HALCYON
DIR Dive Systems

수입원 : HALCYON KOREA www.halcyonkorea.net

02-929-0858

새로운 드라이슈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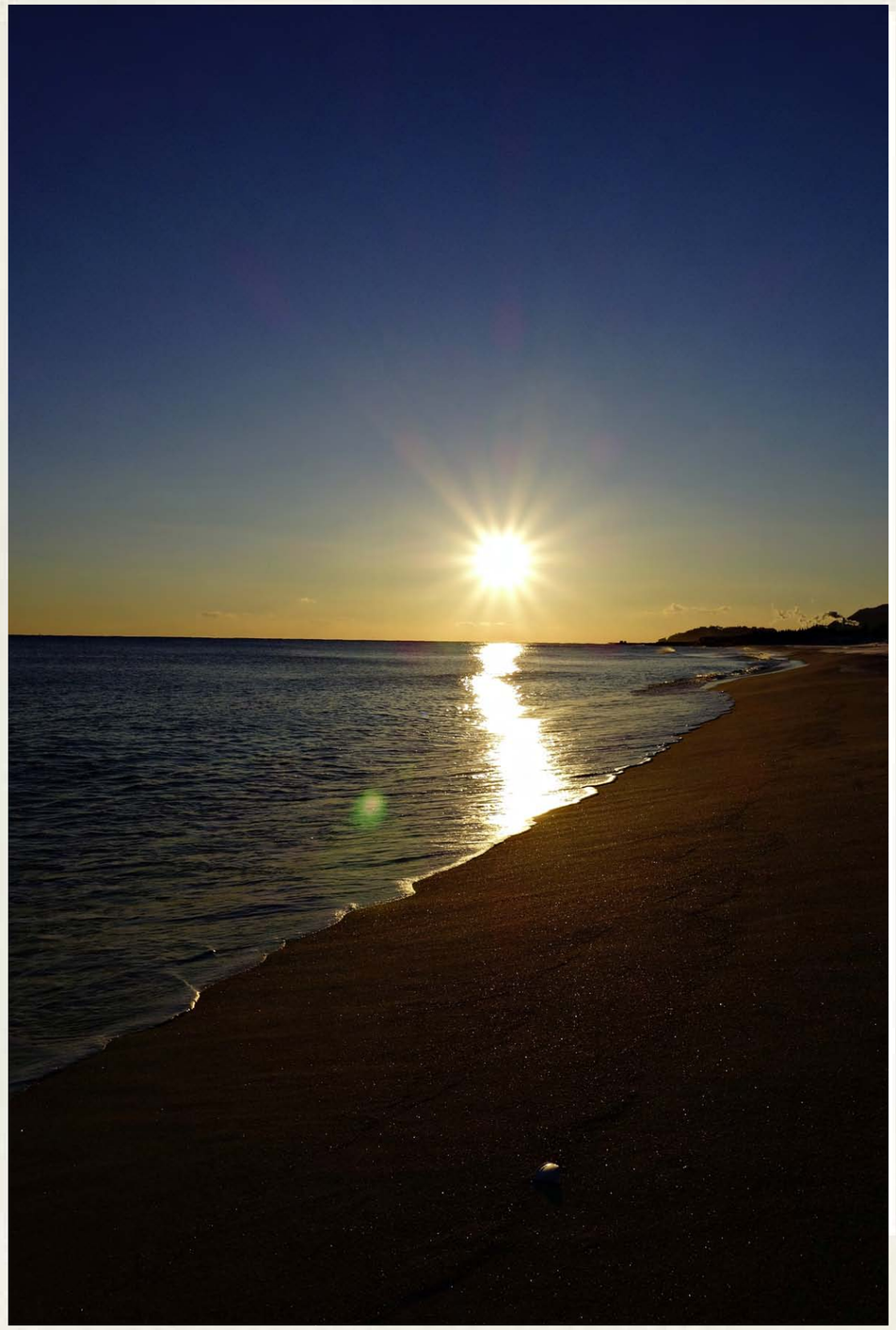
ES EAST SEA diving system

Never stop D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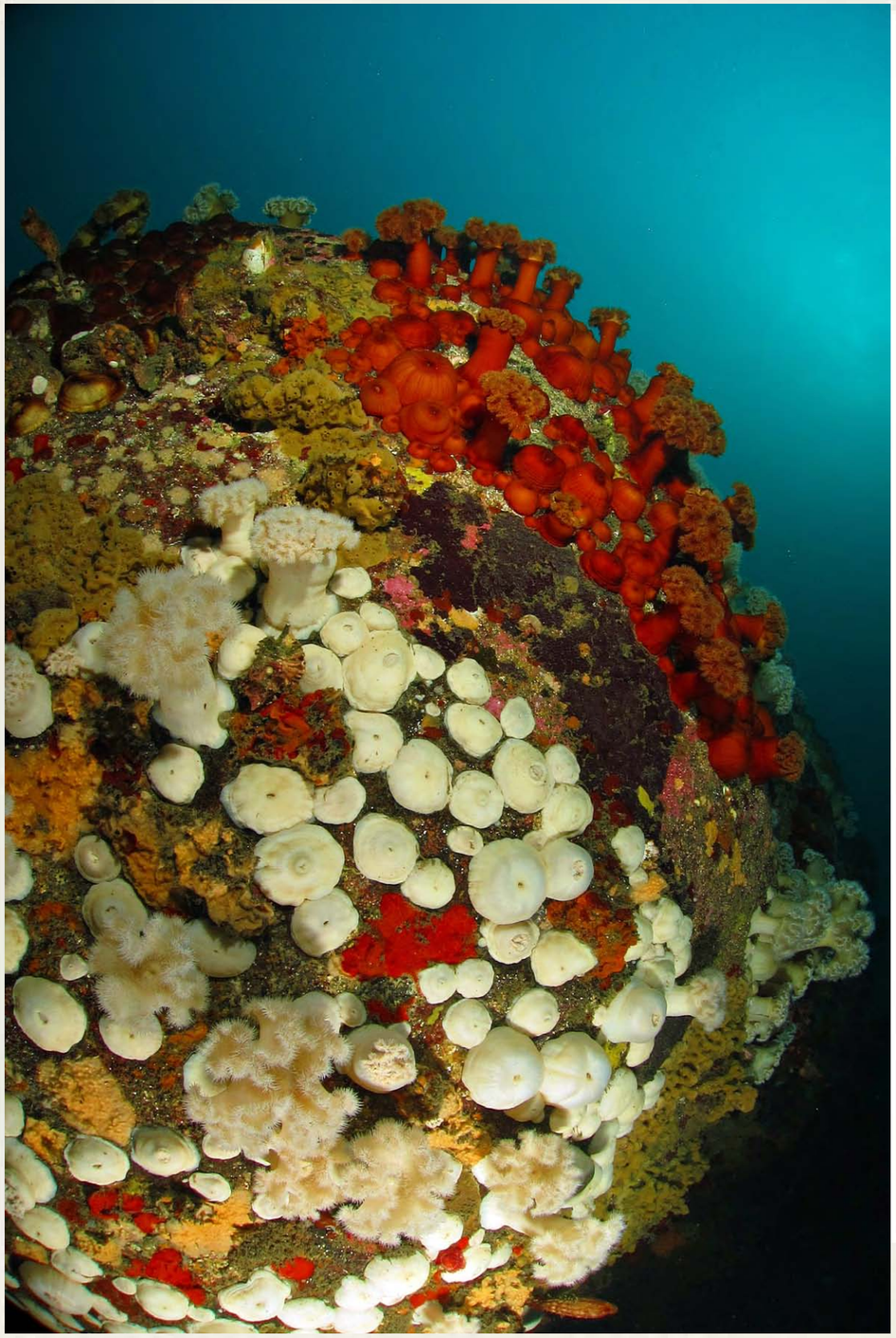
DZM KOREA **070-8223-5951** **www.tnbscuba.com**

2013년 새해맞이 양양 다이빙

몇 십 년 만의 한파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움츠리기보다는 밖으로 뛰쳐나가야 진정한 동해 다이버 아닐까요? 2012년 12월 31일 마지막 저녁 우리는 강원도 양양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해의 아쉬웠던 마지막 밤을 함께 마무리하고, 떠오르는 희망찬 새해를 같이 맞이하기 위해 우리 팀은 그동안 개해제 대신 신년 해맞이 다이빙을 해왔습니다. 새해 첫날에 다이빙을 한다는 것은 그 한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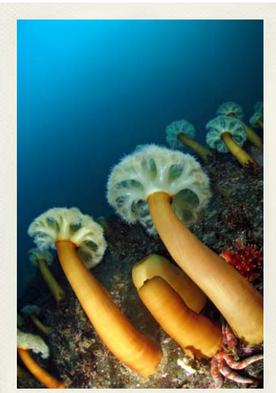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양양 팀스쿠버에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열혈 다이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나와 첫 해돋이를 보며 한해를 시작하는 다짐과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바다 위가 아니라 구름 위로 솟는 태양이었지만 그야말로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인양 감격적이었습니다.
해맞이 후에는 팀스쿠버에서 제공한 떡국도 함께 맛있게 먹고, 새해 첫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강추위에 웻슈트를 입고 입수하는 뜨거운 다이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드라이슈트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수온은 9℃였고, 시야는 10m 이상 맑아 청명한 동해바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섬유세닐 말미잘이 활짝 핀 겨울 동해 다이빙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다이빙이었습니다.
올해는 태풍 없이, 주말마다 항상 좋은 바다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현주
PADI 강사
태국, 홍해, 필리핀에서 활동
수중사진공모전 등에서 다수 입상
ScubaNet.kr 기자
http://divecrew.co.kr

patima
www.patima.net

수중사진도 스마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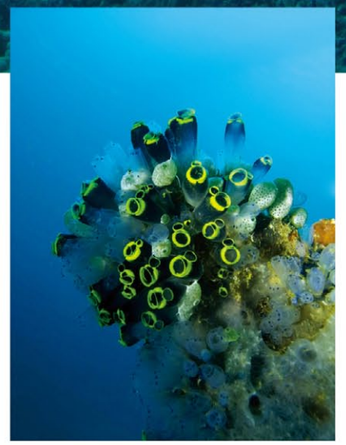
사진: 곽성환 / 모델: 박건욱

아이폰과 갤럭시로 다이빙의 추억을 기록하고, 현장에서 바로 공유합니다

전용 앱을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보다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i-Patima
아이폰 4, 4S 용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리스 스틸, 아세탈 등
최대수심 300m
크기: 185x70x40mm
무게: 육상 400g

S-Patima
갤럭시 SII 용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리스 스틸, 아세탈 등
최대수심 300m
크기: 170x95x60mm
무게: 육상 420g



Galluxy SII로 촬영한 유령멍게 군체
지속광을 이용하여 촬영, 사진: 최성순

i-Phone 4S로 촬영한 전갱이 무리
지속광을 이용하여 촬영, 사진: 박건욱

patima
www.patima.net

욕심많은 당신을 위하여...

사진: 강현주, SONY RX100, YS-D1, f8, 1/125s, ISO 100

더 생생한 사진을 찍고 싶은 당신!
SONY RX100과 함께 하세요

- 2020만 화소의 대형센서로 완성되는 선명함
- f1.8~11의 칼자이스 렌즈로 만들어지는 깊이
-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한 부분 디테일
- 조작이 용이한 작지만 편리한 조작성
- 튼튼하고 변형이 없는 안전한 알미늄 하우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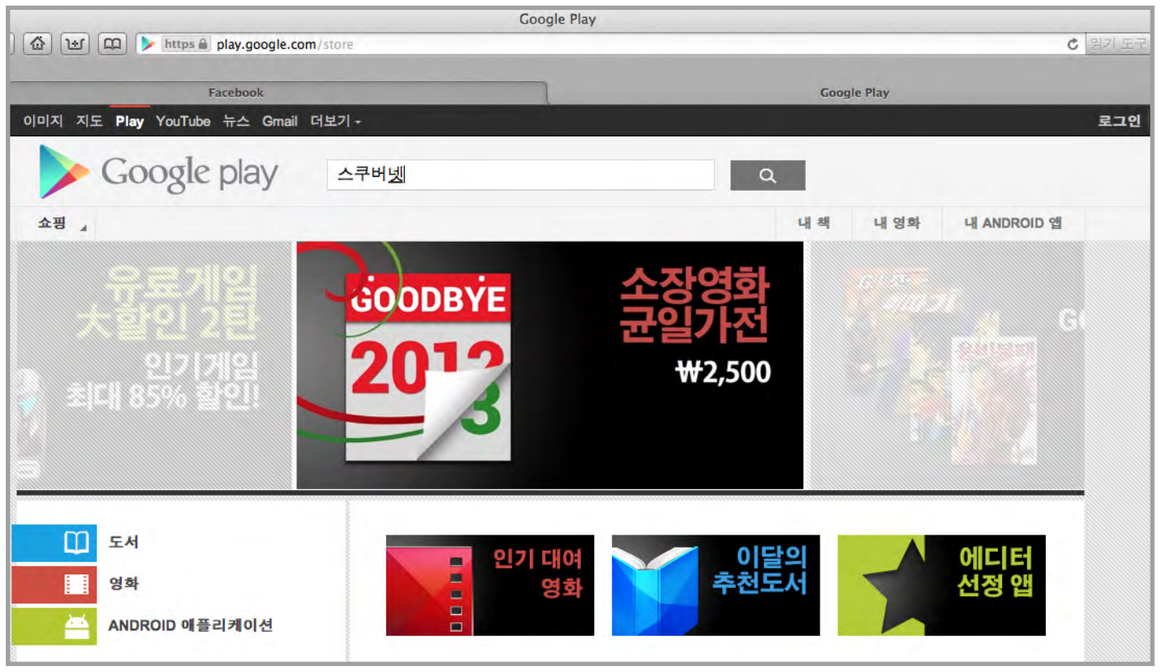
www.patima.net

부채뿔홍산호 위의 가시횟대
사진: 강현주, SONY RX100, YS-D1, f2.8, 1/320s, ISO 100

노무라입깃해파리와 샛돔
사진: 강현주, SONY RX100, YS-D1, f2.8, 1/320s, ISO 100

스쿠버넷 매거진 앱 : 안드로이드

1. 구글 플레이(https://play.google.com/store) 또는 Play 스토어 앱에서 "스쿠버넷"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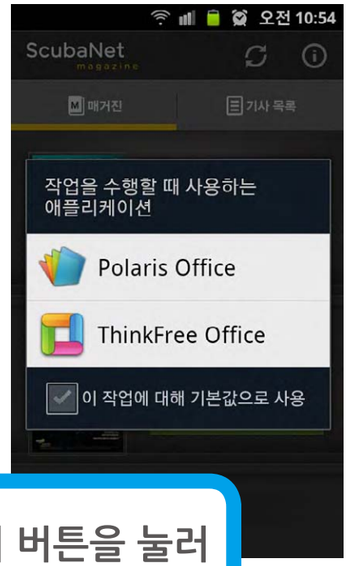


2. 스쿠버넷 매거진 앱 설치

3. 스쿠버넷 매거진 앱 실행

4. 스쿠버넷 매거진 편하게 보기
내가 자주 쓰는 뷰어앱으로 스쿠버넷 보기

커버사진을 누르면
멋진 커버사진이
화면에 꽉!
“이번 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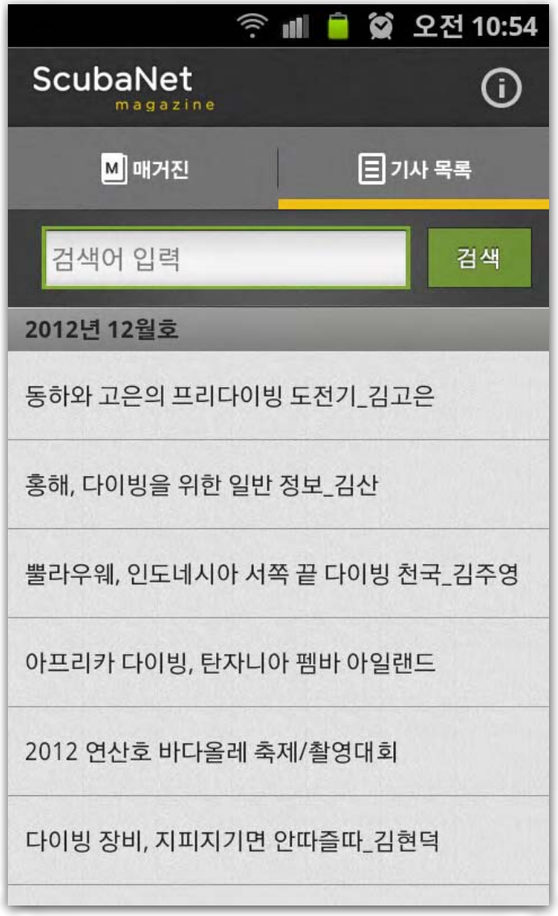


2 열기 버튼을 눌러
내가 좋아하는
뷰어 앱으로
스쿠버넷 매거진
편하게 보기

1 다운로드 버튼 한번이면
스쿠버넷 매거진이
내 핸드폰에 쏙!!

5. 기사 리스트 보기/검색하기
“지난 번에 본 그 기사.. 몇 월 호에 있더라?”

스쿠버넷
매거진의
전체 기사
목록 한 눈에
쏙쏙 보기



“나 다음 투어는
코모도에 가고 싶
어! 코모도 기사는
몇 호에 실렸지?”

내가 보고 싶은
기사 터치 하나로
골라 보기

6. 스쿠버넷 소개/친구들에게 스쿠버넷 매거진 알리기
“너무 좋은 스쿠버넷 매거진. 나만 볼 수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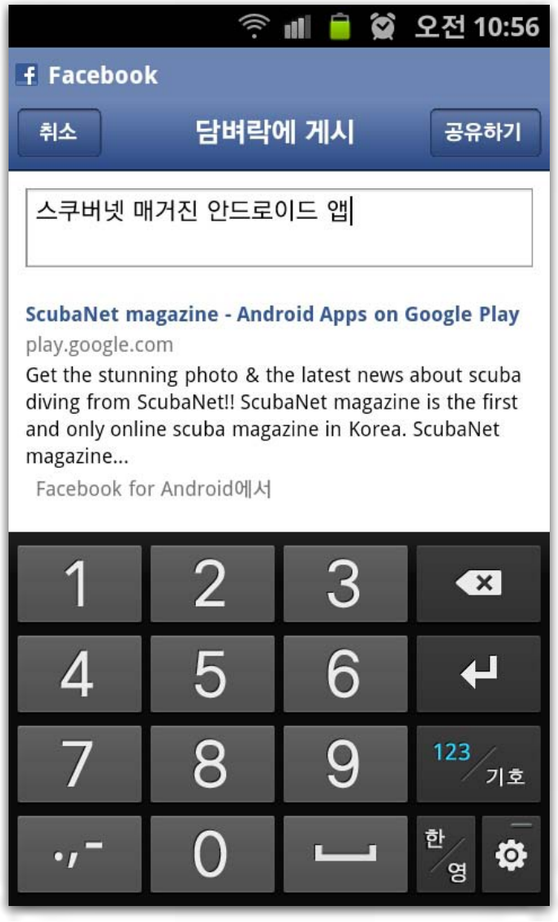
아니, 이렇게 알차고 재미 있는 공짜 다이빙 잡지를 나 혼자 볼 순 없잖아!

“버디들아, 같이 보자!” 스쿠버넷 매거진 공유하기

“스쿠버넷이랑 더 친하게 지낼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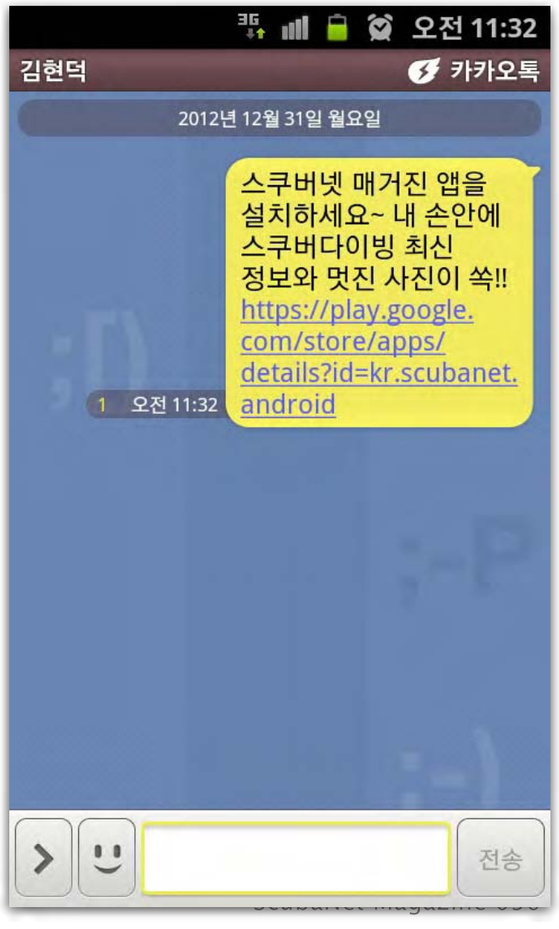
홈페이지랑 페이스북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 궁금한 내용은 이메일로 물어볼까?

아이폰 사용자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iOS 앱이 곧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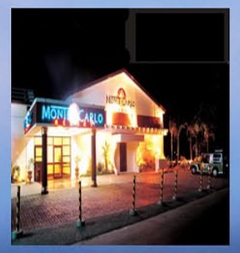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알리기



신개념 아웃도어투어의 아이콘
TOUR BONITO

팔라우 5박6일
1,390,000~



아닐라오 4박5일
59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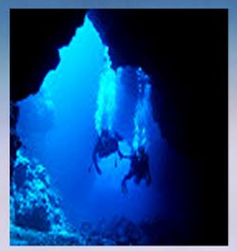
세부오션블루 4박5일
893,000~

발리 4박6일
1,725,000~

빌라보니또 4박5일
1,850,000~

오슬롭 4박5일
845,000~

사방파라다이스 4박5일
66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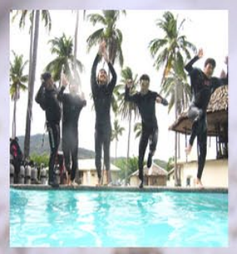


티니안 4박5일
1,419,000~

보니또리조트 4박6일
666,000~

푸켓 4박6일
988,000~

사방마부하이 4박5일
739,000~



오픈워터패키지 3박5일
785,000~

Tour Bonito

- 스쿠버다이빙 & 스포츠피싱전문 아웃도어 여행사
- 전세계 할인항공, 호텔예약, 비자대행
- 다이버를 위한 전세계 다이빙지역 맞춤투어
- 모두투어 대리점(www.mode-tourbonito.com)

www.tourbonito.com / Tel: 02.325.5132 , 070.4656.5132

핀스 다이브 리조트

남항진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다이브 리조트
여유로운 공간에서 편리하게 즐기는 다이빙
캠핑이 가능한 넓은 공터, 리조트 마당 앞에서 승하선
자연의 모습을 잘 담은 건강한 인공어초와
수중 사진가를 위한 다이빙 포인트 관리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59-6번지 / 대표 조대연
전화 033 · 652 · 3225
휴대전화 010 · 3366 · 2160

제이슨 테일러의 수중 조각

Underwater Sculpture by
Jason de

오직 자신의 작품만으로 멕시코 칸쿤 앞바다를 포브스(Forbes)가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지로 만들고, 서인도 제도의 그레나다(Grenada)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인정하는 세계 25대 불가사의로 만든 예술가가 있다. 그는 바로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자, 수중 자연과학자이고, 수중사진가이기도 한 수중조각가 제이슨 테일러(Jason deCaires Taylor)이다.

The Bankers(은행원)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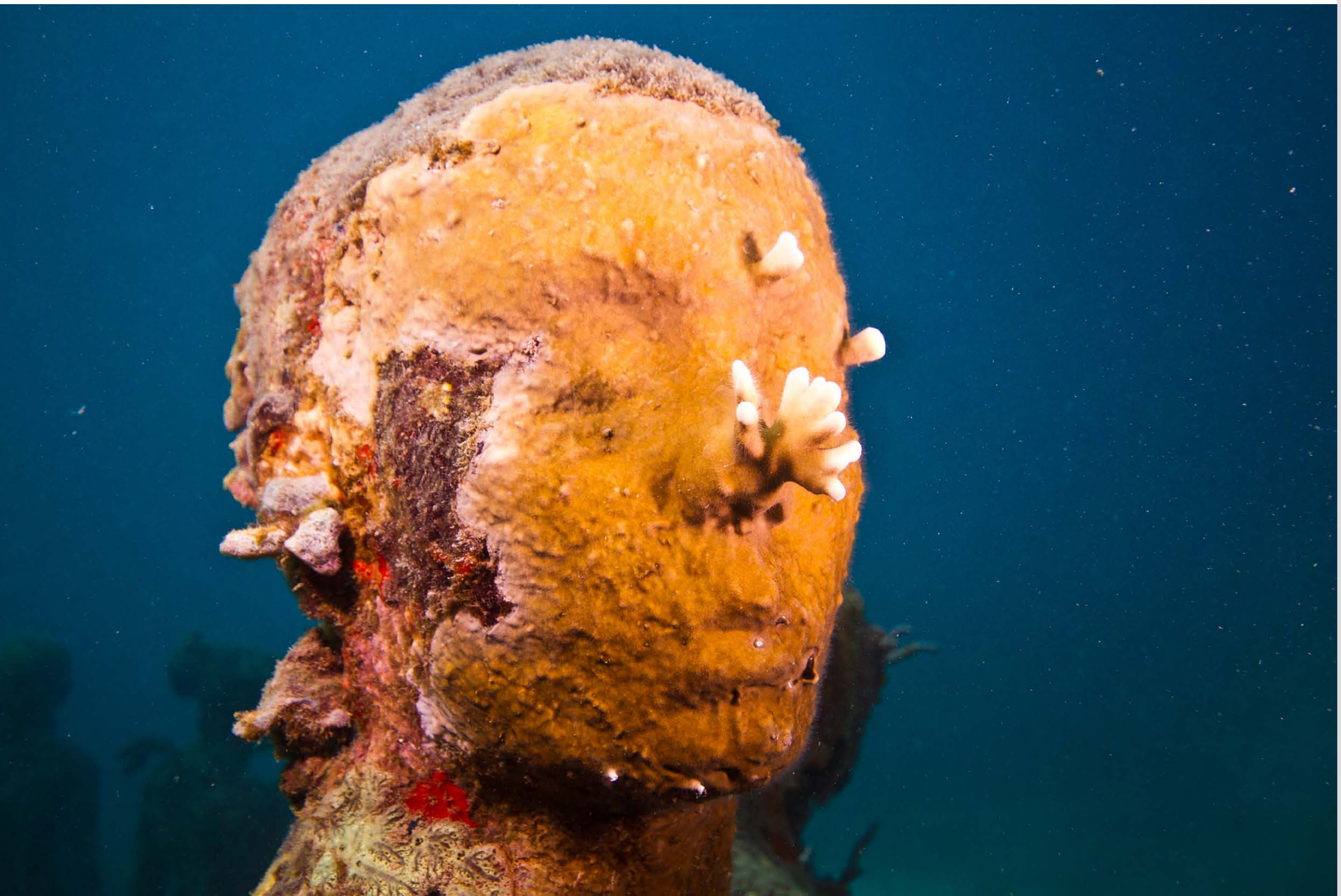
칸쿤의 MUSA 수심 4m에 설치되어 있는 뱅커라는 작품은 흩어져 있는 서류가방과 계산기에 둘러싸여 모래 속에 머리를 쳐 박고 있는 정장을 입은 일련의 남성 조각상이다. 이 설치의 상징은 다가오는 환경 위기를 부정하고, 저항하는 금융과 정부기관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상징이다.

기도하는 듯이 통일된 포즈는 금전적인 보수를 향한 가치의 전도와 잘못된 맹신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조각상들의 다리 사이 공간은 갑각류나 어린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제공되도록 디자인 되었다.

Underwater Sculpture by Jason deCaires Taylor

제이슨 테일러는 1974년 영국인 아버지와 중남미 가이아나(Guyana)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말레이시아의 산호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영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1998년 런던예술대학(London Institute of Arts)에서 조각 전공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 17년간 다이빙 강사와 수중 자연과학자로도 활동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호평 받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는 유명 수중조각가가 되었다.

제이슨 테일러는 2006년 세계 최초로 서인도제도의 그레나다 섬 연안에 수중 조각공원을 만들었다. 이는 지금도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계의 불가사의로 소개되고 있는 곳이다. 또한 2009년부터는 멕시코 칸쿤에 MUSA(Museo Subaquatico de Arte)라고 하는 수중 뮤지엄을 건축하여 지금도 꾸준히 작품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포브스(Forbes)는 이를 한번은 가봐야 할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여행지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제이슨 테일러의 조각 작품들은 인류와 자연의 끊을 수 없는 공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산호초의 파괴로 인한 상실과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인 중성 pH시멘트로 작품을 만들고, 여기에 폭풍 등의 자연 재해로 뿌리 채 뽑혀져 나간 산호조각들을 이식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 작품 자체가 인공어초 역할을 하여 해양생물들이 부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여기에 해면, 멍게, 히드라 등의 부착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하여 작품들을 채색하였다. 이렇게 부착생물들의 다양성과 생물량이 증가하면서 조각 작품들이 설치된 해양공원에는 보다 다양한 어류들이 찾아오는 등 생태계가 회복되었고, 그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되어 지역의 관광수익 증대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제이슨 테일러의 작품들은 수중의 살아있는 조각상들로 표현되는데 인간의 노력 위에 자연의 효과로 예술작품과 생명이 함께 진화하는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어 관람객들이 신비감을 느끼고 예술적인 각성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The Silent Evolution(조용한 진화)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8m

칸쿤과 무헤레스(Mujeres) 섬 사이의 맨초네스(Manchones) 리이프에 있는 Silent Evolution(조용한 진화) 설치에 새로운 50개의 조각상들이 추가되었다. 전체 작품들은 이제 450개가 넘었는데 암초 진화의 다양한 단계를 알리기 위해 작품의 설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조각상들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류의 공생과 독립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Urban Reef(도시 암초)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8m

Urban Reef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리즈 조각작품들이 MUSA 콜렉션에 추가되었다. 이들은 해양생물들의 서식처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것들이다. 지역의 해양생물학자들과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이들 작품들은 다양한 방과 공간, 은신처, 재질 등으로 여러 종류의 암초 서식동물들을 위해 맞춤제작된 것이다. 예를 들면 크고 평평한 테라스 지역은 랍스터와 게들을 위한 은신처, 그 물망을 가진 방들은 보호 공간을 찾는 어린 물고기들을 위한 것이며, 지붕의 재질은 산호와 멍게류들이 군체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집들은 앞으로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주택가와 거리로 조성될 것인데 바라쿠다나 라이온 피쉬 같은 암초의 포식자들로부터 은신하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Reclamation(갱생)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4m

고강도, 중성ph 시멘트로 만들어졌으며, 인장성이 좋은 스테인레스 스틸 앵커링 포인트 등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MUSA 콜렉션 최초의 움직이는 조각(kinetic sculpture)이다. 천사 같은 여성 조각상에 달린 날개는 살아있는 보라색의 고르고니언 부채산호(Gorgonia ventalina)가 이식된 것이다.

부채산호는 종종 강한 폭풍과 파도에 뿌리 채 뽑혀 제자리를 벗어나기도 하는데 인근 모래지역에서 발견된 조각들을 구해서 이식한 것이다. 이 조각은 강한 조류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천사의 날개는 파도의 자연스러운 주기에 맞춰 펄럭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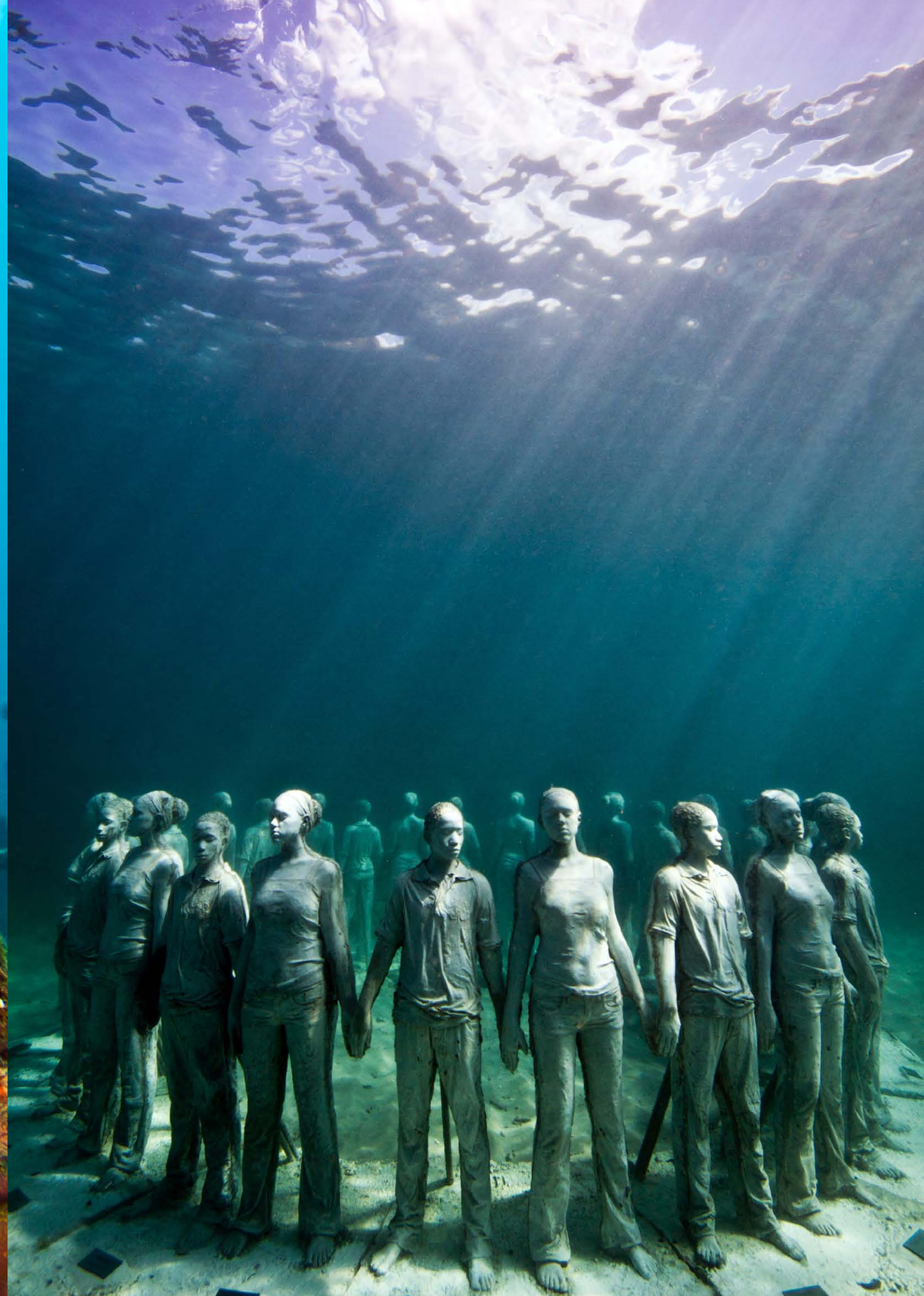
The Listener(듣는 사람)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4m

이 작품은 단독 작품으로 8~12세 칸쿤 지역 학생들의 귀를 본떠서 주조한 것들로 만든 조각상이다. 이 조각상에는 NOAA에서 디자인한 혁신적인 수중청음기가 설치되어 암초 환경에서 들리는 음향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내장된 방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된다.

해양 환경이 종종 침묵의 세계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갑각류의 딸깍거리는 소리, 물고기가 먹이를 먹는 소리, 수면으로 지나는 보트에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등 무수한 소음이 울린다. 소리는 수중에서는 공기 중에서보다 4배는 빨리 전달된다.

비침투성 수동적 음향 모니터링(PAM) 생물음향 연구 방법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음향 활동을 모니터하고, 음향 관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서 보존관리 과학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형태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수동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암초 보존활동에 지역 학생들을 연계시켜서 듣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Ms. Heather Spence(해양생물학자), Dr. Patricia Gray(North Carolina - Greensboro 대학 바이오뮤직 국제연구 담당자), Colegio Ecab 등과 함께 작업한 것으로 노스케롤라이나 그린스보로 대학, CONAMP의 스폰서와 파터너 관계로 제작되었다.



The Last Supper(마지막 저녁)

MUSA 콜렉션, 멕시코 칸쿤, 수심 4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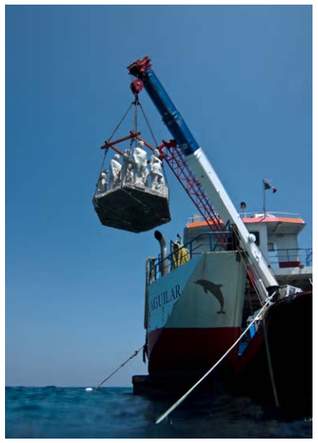
노출된 암석을 조각하여 만든 식탁으로 그 위에는 접시들과 나이프, 포크들이 놓여있고, 가운데 커다란 바구니에는 과일과 수류탄이 가득하다. 접시들에는 먹다 남은 생선들이 있다.

Time Bomb 시리즈와 함께 이 작품은 세계의 바다가 남획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묘사하고 있다. UN은 전세계 어업의 3/4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대로 두면 50년이면 어업이 붕괴하고 여러 종의 수산어종이 멸종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치명적이지만 종종 무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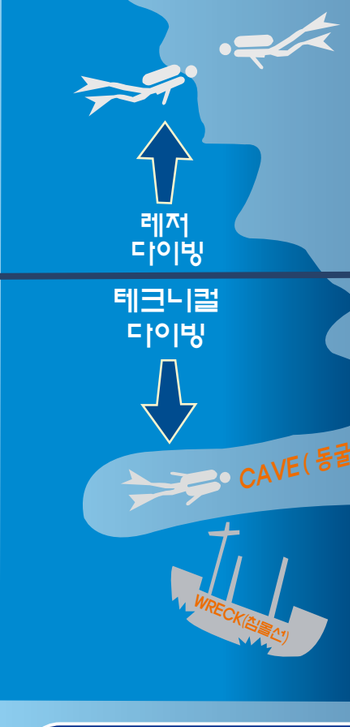
Inertia(무력감)
MUSA 콜렉션, 멕시코 푼타 수심 4m

지난 20년간 지구는 40% 이상의 산호초를 잃어버렸으며 과학자들은 2050년이면 80%의 산호초가 사멸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전체 해양 중에서 10%~15% 정도의 바닥만이 자연적으로 산호초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하다. 이들 지역에서 산호암초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튼튼하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민감한 인공어초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인공어초는 산호, 해면, 히드라 등의 부착생물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암초의 생물량을 증가시키고 물고기들이 모여들게 하여 전체 해양 생태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인공어초는 더 나아가 산호초에 가해지는 남획과 너무 잦은 방문 그리고 자연 재해로 인한 손상 등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다. 테일러는 인공어초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적인 산호초들이 회복하고 재생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광객들도 이를 인식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모든 작업장들은 다이버와 스노클러들은 물론 바닥이 유리로 된 관광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맑고, 얕은 바다에 위치해있다.

예술 작품들을 갤러리의 흰색 벽면에서 떼 내어 관람객들에게 발견의 느낌, 참여의 느낌을 제공하고, 육상 세계의 공간이라는 한계에서 상상력을 분리해냈다는 점에서 테일러의 시도는 각광받을 만한 것이다.



IANTD KOREA



나이트록스 다이버 EANx Diver	-18m
딥 다이버 Deep Diver	-30m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다이버 Advanced EANx Diver	-40m
테크니컬 다이버 Technical Diver	-50m
노목식 트라이믹스 다이버 Normoxic Trimix Diver	-60m
트라이믹스 다이버 Trimix Diver	-90m
익스피디션 트라이믹스 다이버 Expedition Trimix Diver	-120m

" The Leaders in Diver Education "

퍼실리티----------
IANTD KOREA(서울 02-486-2792)
NSDM 다이버스(속초 011-265-1381)
The Scuba(제주 010-4631-4448)
강촌스쿠버(강촌 010-2256-4434)
광명 잠수풀(광명 011-732-4942)
굿 다이버(제주 011-721-7277)
그린 스쿠버(여수 061-684-5656)
금능 게스트 하우스(제주 010-3008-4739)
기억해 스쿠버(후포 010-5439-3256)
노도 스쿠버(대구 053-621-0469)
리쿰 스쿠버(서울 011-542-5288)
블루아이 스킨스쿠버 아카데미
(경주 054-620-8253)
블루 홀 다이버스(안양 010-8633-0752)
성현 스쿠버(삼척 010-6375-3572)
씨 텍(부산 010-2860-8091)
알파 잠수(인천 010-8856-1088)
태평양수중(부산 051-414-9302)
테코(성남 031-776-2442)
팀 스쿠버 리조트(양양 010-8963-8582)
해양 캠프(삼척 011-9969-0880)
해원(강릉 033-644-6207)
해양 대국(욕지도 010-7758-7920)

베트남
베트남 스쿠버(베트남 010-3891-1391)

필리핀
MB 오션 블루(모알보알 070-7518-0180)
다이빙 팍(사방 070-8625-4870)
샤크 다이브 리조트(아닐라오 070-8248-7098)
파도 리조트(세부 070-7578-7202)
포비 다이버스(세부 070-8256-9111)

강사 트레이너 트레이너 강사
김광휘(Adv. ITT)
홍장화 (Trimix ITT)

강사 트레이너
강신영 (Technical IT)
강신영 (Adv. EANx IT)
고석태 (Technical IT)
권오윤 (Adv. EANx IT)
김정숙 (Trimix IT)
김창제 (Adv. EANx IT)
김창환 (Adv. EANx IT)
박근창 (Adv. EANx IT)
서일민 (Technical IT)
안승철 (Trimix IT)
오현식 (Adv. EANx IT)
이민호 (Adv. EANx IT)
이우영 (Adv. EANx IT)
이원교 (Adv. EANx IT)
이종인 (Adv. EANx IT)
이효진 (Adv. EANx IT)
정영호 (Adv. EANx IT)
정철희 (Adv. EANx IT)
최승혁 (Adv. EANx IT)
황영민 (Technical IT)
황영석 (Adv. EANx IT)

강길영 (EANx)
강광일 (EANx)
강제철 (Adv. EANx)
강덕권 (EANx)
강대채 (EANx)
강성인 (EANx)
강영철 (EANx)
강인한 (EANx)
고종연 (Adv. EANx)
고학준 (EANx)
권병환 (EANx)
권유진 (Adv. EANx)
김경하 (EANx)
김기억 (Adv. EANx)
김기종 (Adv EANx)
김대학 (Technical Cave)
김동원 (Adv. EANx)
김동배 (EANx)
김민석 (Adv EANx)
김민중 (EANx)
김병섭 (Adv. EANx)
김상길 (Adv. EANx)
김석중 (Adv. EANx)
김성목 (EANx)
김성욱 (EANx)
김성진 (Adv. EANx)
김신래 (EANx)
김영수 (Adv. EANx, MK6)
김영목 (EANx)
김영중 (Adv. EANx)
김용식 (Adv. EANx)
김용환 (EANx)
김윤석 (Adv. EANx)
김진성 (Adv. EANx)
김재만 (EAN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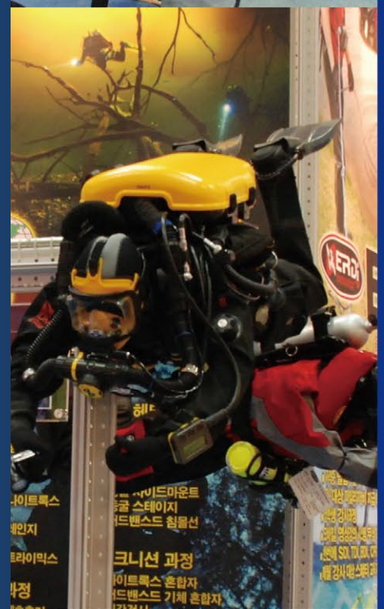
김정명 (EANx)
김정수 (EANx)
김종학 (Adv. EANx)
김주태 (EANx)
김태일 (Adv. EANx)
김태한 (Adv. EANx)
김해중 (Adv. EANx)
김희명 (EANx)
김희준 (EANx)
문대천 (Adv. EANx)
문석래 (EANx)
문성원 (EANx)
문홍주 (Adv. EANx)
박대원 (Adv. EANx)
박덕수 (EANx)
박명원 (EANx)
박상수 (EANx)
박성화 (EANx)
박상용 (Adv. EANx)
박용순 (EANx)
박우진 (Adv. EANx)
박인성 (Adv. EANx)
박재형 (Adv. EANx)
박진수 (Adv. EANx, MK6)
서기봉 (EANx)
서계원 (Technical)
서승훈 (Adv. EANx)
서윤석 (Adv. EANx)
서재환 (EANx)
손경훈 (Adv. EANx)
손현철 (EANx)
송우용 (EANx)
송태민 (EANx)
송한준 (Adv EANx)
신길용 (EANx)
신명철 (EANx)

양성호 (EANx)
양인모 (Adv EANx)
오명석 (Trimix)
오정석 (EANx)
오춘수 (Adv. EANx)
유근목 (Technical)
유기정 (Adv. EANx)
우대희 (Adv EANx)
윤성환 (EANx)
이기영 (Adv. EANx)
이남길 (Technical)
이동준 (EANx)
이상돈 (EANx)
이상욱 (EANx)
이상준 (Technical)
이수한 (Adv.EANx)
이승호 (EANx)
이영권 (EANx)
이우식 (EANx)
이장구 (Adv. EANx)
이주헌 (Adv. EANx)
이재민 (Adv. EANx)
이필규 (Adv. EANx)
이호석 (Adv. EANx)
이홍석 (EANx)
이행식 (Adv. EANx)
임성하 (EANx)
임용한 (Adv. EANx)
장세환 (EANx)
전우철 (Technical)
정경원 (Adv. EANx)
정국현 (EANx)
정석환 (EANx)
정승규 (EANx)
정승욱 (EANx)
정영환 (Technical)

정용옥 (EANx)
정용진 (EANx)
정재욱 (Adv. EANx)
정정원 (Adv. EANx)
조문신 (Adv. EANx)
조선구 (Adv. EANx)
조우선 (EANx)
조성호 (Adv. EANx)
조현수 (Adv. EANx)
지혜자 (Adv. EANx)
지 훈 (EANx)
천남식 (EANx)
천세민 (EANx)
천세은 (Technical)
추재욱 (Adv. EANx)
최경호 (Adv. EANx)
최규옥 (EANx)
최임호 (Adv. EANx)
최태현 (Adv. EANx)
최형곤 (EANx)
피성광 (EANx)
하우용 (Adv. EANx)
한길형 (Normoxic Trimix)
한영호(Adv. EANx)
한우연 (EANx)
한정우 (EANx)
허 현 (EANx)
현승준 (Adv. EANx)

신규 강사
강대채 (EANx)
강광일 (EANx)
김희준 (EANx)
박성화 (EANx)
우대희 (Adv EANx)
이재민 (Adv. EANx)
정용진 (EANx)
조현수 (Adv. EANx)

IANTD KOREA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34-17 201호, 02-486-2792
http://www.iantd.co.kr, E-mail : iantd@iantd.co.kr



SPOEX KUSPO Show

제21회 한국수중스포츠전시회
Korea Underwater Sports Show

2013. 2. 21(목) ~ 24(일) 4일간, COEX

주최: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주관: 국민생활체육 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수중세계, 해저여행, 풍등출판사
동시개최: 201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13)
품목: 스쿠버다이빙장비, 수중촬영장비, 콤프레서,
국내외 리조트 및 교육단체 참가, 기타해양스포츠 레저용품
참가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_ http://www.kua.or.kr 이메일_ kua@kua.or.kr
전화_ 02-420-4293 팩스_ 02-421-8898

사단법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 Korea Underwater Association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KITA 한국무역협회
KSDF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Korea Scuba Diving Federation Of Sports For All
수중세계 Underwater World Korea Magazine for scuba divers
해저여행
scuba diver

인도양의 한가운데 흩뿌려진 듯 보석 같은 몰디브의 섬들은 열대의 천국이라 할 만큼 아름답다. 눈부시게 하얀 모래톱에 자라난 야자수와 이를 둘러싼 터키색의 환초에 둘러싸인 바다는 지상의 낙원으로 몰디브를 꼽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게 만든다. 환초 주변에는 짙푸른 인도양의 맑은 바다가 품고 있는 수많은 다이빙 포인트가 있으며, 환초 안팎을 넘나드는 다이나믹한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 마르코 폴로가 "인도의 꽃"이라 불렀을 만큼 아름다운 섬들의 낙원 몰디브를 그만큼 아름다운 리브어보드 'Mv Maldives Princess'와 함께 7박 8일간의 다이빙 투어를 다녀왔다.

공주와 함께 한 몰디브 다이빙

Diving with Maldives Prin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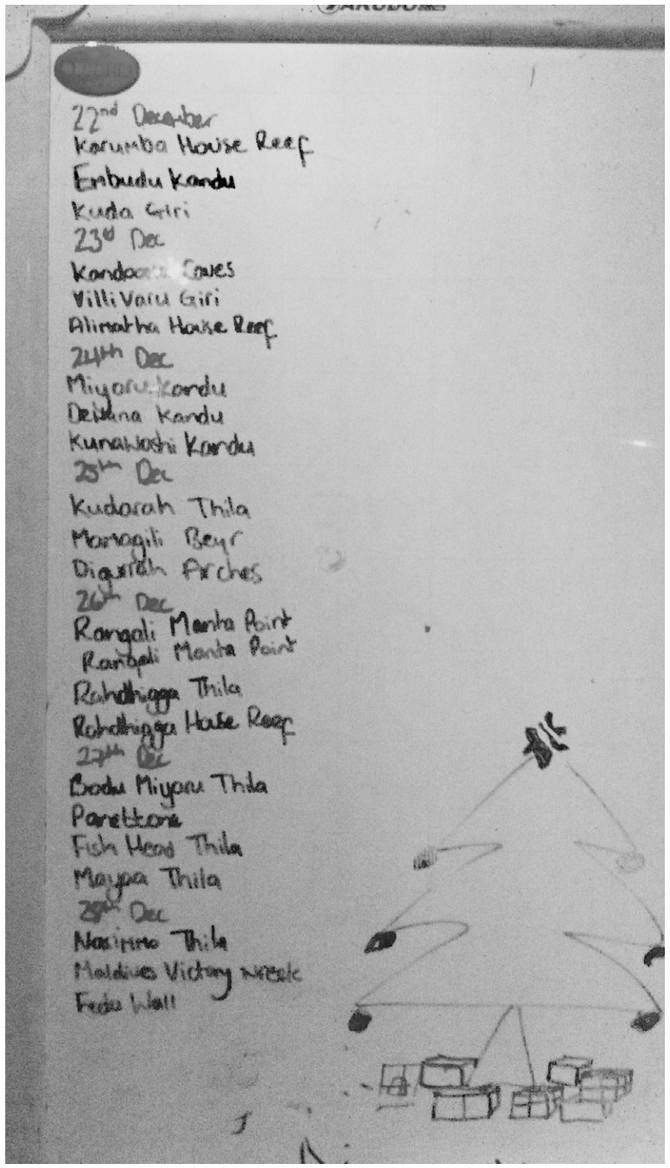
이번 투어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김은종 강사가 국내 다이버들과 몰디브 다이빙 투어를 계획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내 다이버들이 휴가를 내기 수월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몰디브의 럭셔리한 리브어보드인 'Mv Maldives Princess'를 차트하여 페이스북의 지인들을 모집하였다. 총 24명의 투어 인원은 국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의 한인 다이버로 그리 오래지 않아 채워졌으며, 오래전에 예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만 변경되어 몰디브 투어를 다녀왔다. 몰디브 다이빙에 대한 국내 다이버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는 1994년에 리조트를 이용하여 몰디브 다이빙을 경험하였지만, 그 넓은 몰디브 바다의 극히 일부분만 만족할 수 밖에 없었던 답답함을 이번 리브어보드 투어를 통하여 해소하고 싶었다. 한 지역의 다이빙이 끝나면 다음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리브어보드를 이용한 다이빙이 몰디브의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인천을 출발하여 쿠알라룸푸르나 싱가폴을 경유하여 몰디브의 말레공항에 도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2012년 말부터 저가항공인 메가몰디브항공이 직항을 운항을 재개하였지만 이미 항공권을 발권하였기에,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는 말레이항공편을 이용하였다. 말레이항공은 다이버에게는 수화물을 10kg을 더 허용하여 오버차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경유지 공항에서 인터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직항편 이용을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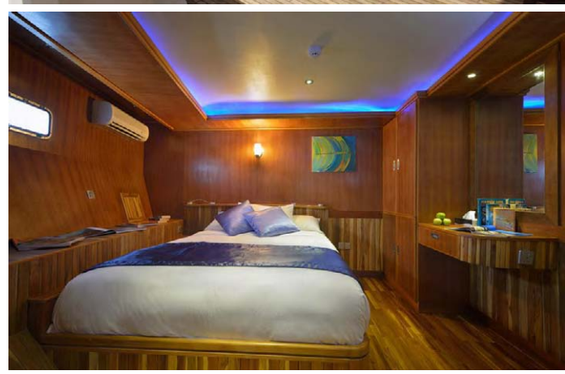
몰디브는 이슬람 국가이므로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 당연히 술을 가지고 입국할 수 없으며, 공항에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 중에 마약, 총포류 등과 함께 술, 돼지고기가 적혀있다. 세관검사에서 모든 가방은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여야 하며, 술은 무조건 압수된다. 출국할 때 찾아갈 수 있다지만 확인해보지 못했다.



Mv Maldives Princess

Mv Maldives Princess는 2012년에 취항한 길이 43m, 폭 11m의 리브어보드용 다이빙 요트로 2개의 특실과 7개의 일반실로 구성된 총 11개의 선실에 최대 24명의 게스트를 수용할 수 있으며, 모든 선실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널찍한 화장실과 LCD TV와 DVD, 세이프티 박스, 전화, 미니바와 다양한 수납공간이 있다. 선장과 매니저, 다이브마스터 등 13명의 스텝들이 편안한 다이빙과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데크는 4개 층으로, Lower Deck에는 객실이 있으며, Main Deck에는 안락한 쇼파와 대형 TV가 있는 로비와, 맥주, 와인, 샴페인 등을 마실 수 있는 바, 품격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과 주방이 있으며, Top Deck에는 킹사이즈 더블베드와 쇼파가 있는 특실과 시원한 전망의 조타실, 선원객실이 있으며, Sun Deck에는 자쿠지와 널찍한 선데크가 있다. 다이빙은 55ft의 도니(Dhoni)라 불리는 부속 선박에서 이루어지며, 픽업보트의 개념이 아니라 공기통을 비롯한 장비를 실고 모선과 같이 다니며 모든 다이빙을 진행한다. 픽업보트가 있지만 섬에 상륙하거나, 스텝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모선에 2대의 바우어 콤프레셔가 있으며, 9개의 뱅크가 있는 나이트록스 멤브레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확한 나이트록스 충전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모든 다이빙에 32% 나이트록스를 무료로 제공하니 나이트록스 C-card 지참은 필수!

말레공항에 도착하니 몰디브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를 반겨준다. 수도섬인 말레와 공항에는 차량이 많지만, 몰디브의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배다. 공항에서 나오면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수상택시를 이용한다. 택시 승강장과 같은 선착장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도니에 오르니 몰디브에 도착한 실감이 난다. 십여년 보다 많이 화려해진 공항섬과 말레 사이를 지나 십여분을 달려가니 Mv Maldives Princess의 우아한 자태가 어둠속에서 나타난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름다운 공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도니에서 내려 메인 로비로 가니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시원한 웰컴 드링크와 더운 수건으로 환영을 해준다. Mv Maldives Princess의 매니저이자 다이빙 강사 [illegible]리나의 간략한 안내를 마치고 방 배정을 받아 객실로 내려가니 리브어보드의 선실이라 믿을 수 없는 안락한 침대와 널찍한 화장실이 있다. 지급된 박스에 다이빙 장비를 담아 놓고 장비가방은 사무실과 창고에 보관을 해준다. 대충 짐정리를 하고, 더운 샤워를 하니 피곤한 몸이 나른해지며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우리나라와 4시간의 시차. 8시에 일어나 메인 갑판으로 올라가니 다들 나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한낮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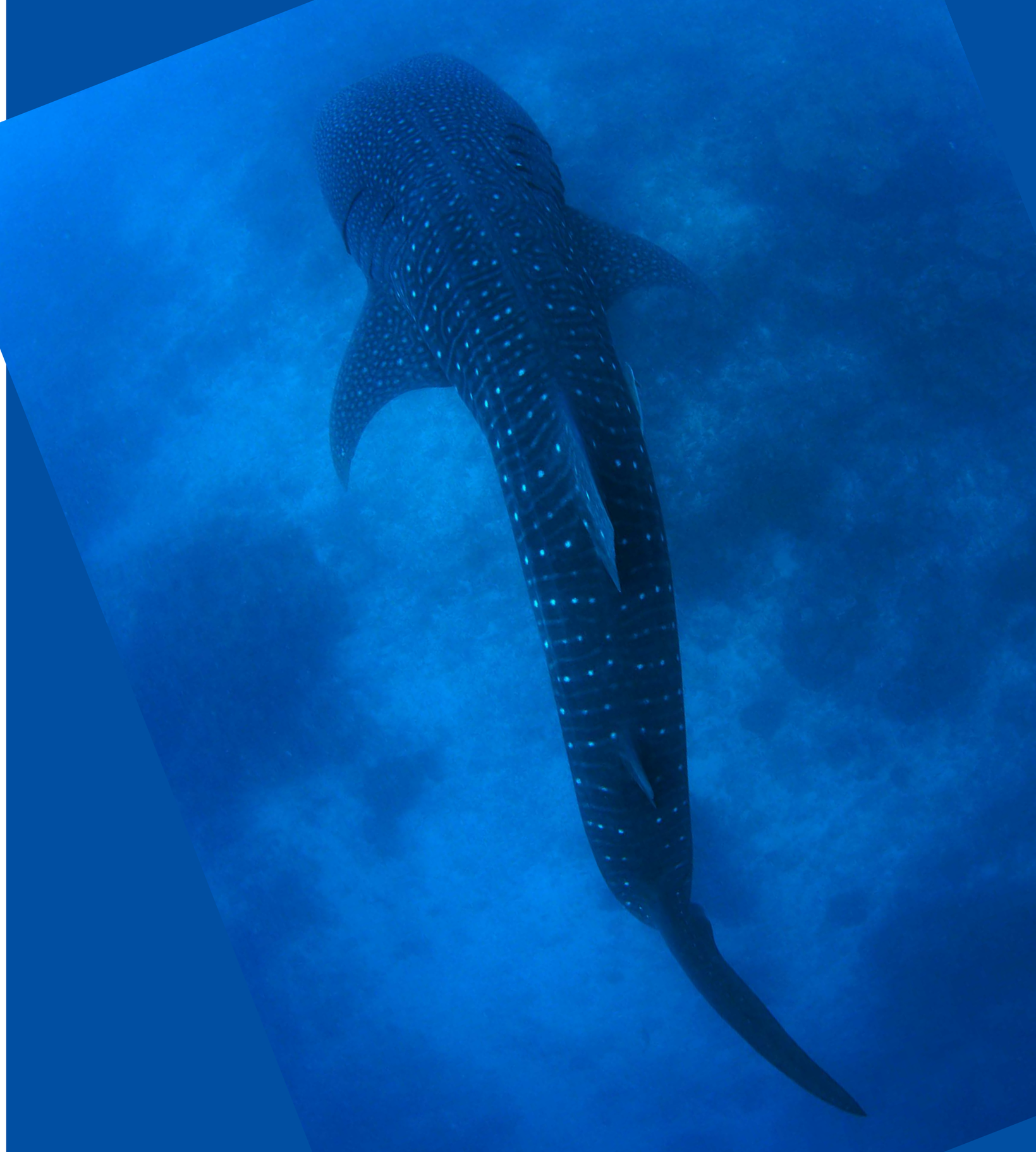
커피 한잔을 들고 뒤쪽 갑판으로 나가니 기둥에 몽키바나나가 송이채 달려있다. 송이의 위는 아직 파랗고 아래는 노랗게 익어있다. 담소를 나누는 사이 아침식사 시간이 되니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다닌다. 뭔가 낯설은 이 종소리에 우리 모두 조건반사를 보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식사는 뷔페식으로 제공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돼지고기가 없다는 것이다. 이슬람 문화의 전통으로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다. 아침은 비교적 간단하게 계란요리, 소고기 베이컨과 햄이나 소시지, 밀가루 쌈과 참치나 콩으로 만든 더운 스튜류, 요거트와 함께 프레이크, 쥬스 등과 함께 토스트가 제공된다. 물론 과일도 함께... 커피와 홍차는 24시간 준비되어 있다. 이 중 소고기 베이컨은 마치 육포를 먹는 듯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었으며, 꽤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다. 점심과 저녁은 좀 더 푸짐하게 제공된다. 닭고기, 소고기, 해산물 등의 메인요리와 함께 다양한 커리가 제공되며, 스파게티나 전통면류, 밥 등이 두 종류의 샐러드와 함께 나온다. 이곳의 쌀은 동남아시아의 쌀보다 훨씬 길고 독립심이 강해서 절대 뭉쳐지지 않는다. 밥이 한 톨 한 톨 돌아다니므로 한국에서 공수해 간 김으로 싸서 먹기가 쉽지 않다.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입맛에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특급호텔 뷔페 정도는 아니지만 만족스런 식사시간을 즐기기엔 충분하다.

드디어 다이빙이 시작되었다. 간단하지 않은 서류를 작성하고, Nitrox C-Card를 제시하고, 통과의례인 체크 다이빙을 위하여 도니에 탑승하였다. 제법 넓은 도니에 준비된 공기통의 산소농도를 체크하고 잔압과 함께 기록하고 사인을 한다. 장비를 세팅하고 수트를 입으니 몰디브의 바다 속이 궁금해진다. 엘리뇨와 쓰나미로 인하여 손상된 산호의 상태가 어떨지, 대물들은 얼마나 나타나 줄런지.... 다이버는 23명인데 카메라가 거의 스무대 정도가 된다. DSLR 카메라가 주를 이루고, 비디오 카메라,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고프로 등 다양한 카메라와 하우징이 도니에 실린다. 두 대의 카메라를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빈손으로 입수하는 다이버가 몇 명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다이버가 수중에서 촬영을 하였다. 준비를 마치고 도니는 십여 분을 달려 포인트에 도착하였다. Mv Maldives Princess가 정박한 곳에서 포인트까지는 제법 멀어, 도니로 일이십 분씩 소요되곤 하였다. 대부분의 리브어보드는 다이빙의 안전과 산호의 보호를 위하여 포인트에서 먼 곳에 정박을 한다.

다이빙은 3개조로 나누어 같은 포인트에서 같이 다이빙을 한다. 사진가가 많다 보니 정리된 그룹다이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공기소모량에 따라 일부는 먼저 상승하고, 나머지는 그룹을 이루어 상승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하루의 다이빙 일정은 3~4회. 대부분 야간다이빙까지 4회의 다이빙을 하지만, 거대한 환초인 Atoll 내에서는 야간 항해가 금지되어 있어, 낮에 이동을 하여야 하는 날은 3회의 다이빙이 이루어진다. Atoll과 Atoll 사이의 항해는 바다 상황이 나쁘지 않는 한, 주로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몰디브의 다이빙은 세가지 타입이 있다. 아톨의 외부 리프 다이빙과 채널 다이빙, 그리고 “Thila” 다이빙이다. 다이버는 아톨의 외부 리프의 직벽에서 조류다이빙을 즐기면서 상어, 돌고래, 참치 등 대형어류를 관찰할 수 있다. 외해의 바닷물이 아톨 안으로 들어오는 채널의 경계에서 다양한 대물의 군무를 즐기다 조류를 따라 채널 안으로 흐르는 채널 다이빙은 매우 다이나믹하다. “Thila”는 몰디브어로 얕은 곳의 의미인 “Shallow”를 뜻하며, 6~15m 수심의 산호초 아래의 급격한 슬로프나 직벽을 따라가면 멋진 오버행이 있는 아기자기한 지형과 함께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다이빙 형태다. 대부분의 포인트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있으며, 매우 강한 조류가 흐르는 포인트도 상당수가 있으니 다이브 컴퓨터와 조류걸이는 필수 아이템이다.



Mv Maldives Princess에서의 7박 8일, 7일간 총 24회의 다이빙을 하였다. 대부분의 다이빙에 조류는 강한 편이었으며, 조류를 거스르는 경로의 다이빙이 상당 부분이 되었다. 이중 가장 인상적인 다이빙은 2~3m의 Nurse shark과 Giant trevaly, Marble ray의 다이나믹한 율동을 볼 수 있었던 야간다이빙, White trip reef shark과 Marble ray의 사냥을 관람할 수 있었던 야간다이빙, 2~3마리씩 그룹을 이루어 수시로 출몰했던 Manta point, 아기자기한 지형과 아름다운 산호와 화려한 열대어를 관찰할 수 있었던 Thila diving이다. 스노클링으로 고래상어를 관찰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Ari atoll의 공항 바로 옆이었던 것도 재미있다.

다이빙과 다이빙 사이에는 두세 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다. 나이트록스를 이용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심이 깊은 몰디브의 다이빙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질소와 더불어 산소포화도를 낮출 수 있으니 더욱 요긴하다. Mv Maldives Princess에는 Deck 마다 태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맨 위의 Sun Deck에서는 태닝과 함께 자쿠지에서 피로한 몸을 달랠 수 있다. 이번 투어 기간에는 흐린 날이 많았지만, 태닝을 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여러 그룹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으며 휴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카약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번 투어 기간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었다. 이슬람 국가에서의 크리스마스라니 독특한 느낌이 들었다. 외국인을 위한 리브어보드와 리조트는 보세구역처럼 어느 정도의 음주가 허용이 되듯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깔끔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야간다이빙을 접고 무인도에 내려 아름다운 해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다. 짙푸른 바다 위에서 선상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환상적인 터키색의 해변을 자랑하는 몰디브의 섬에 상륙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었다. 게다가 해변에서의 촛불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순간이었다. 청새치가 조각된 해변에서 BBQ와 씨후드와 같은 맛난 음식과 시원한 맥주는 몰디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 속 깊이 새겨놓는 멋진 파티가 되었다. 해변파티를 마치고 돌아온 배에서는 이번 투어에서 기념할 일이 있는 분들을 위한 케익 파티가 로비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이어졌다. 투어 중 500회, 300회, 200회 다이빙을 기록한 분, 생일인 분, 결혼기념일인 분 등 일정의 언저리 기념일까지 모두 모아 축하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North Male atoll에서 출발한 Mv Maldives Princess는 South Male atoll, Felidhe atoll을 거쳐 Ari atoll을 돌아 다시 Male로 돌아왔다. 공항 근처의 Maldive Victory 난파선 다이빙과 편안한 월다이빙으로 마무리하였다. 장비를 정리하여 박스에 넣어두면 스텝들이 깨끗이 세척하여 배의 곳곳에 잘 널어준다. 몰디브의 시원한 바람은 장비를 제대로 말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음날 아침, 카메라와 장비를 챙긴 후 아침식사를 하였다. Mv Maldives Princess의 스탬프를 로그북에 찍어 기념을 하고, 가이드와 같이 한 강사들의 사인과 스탬프를 로그북에 나누며 서로의 정을 기억한다.

오전 11시. 공주와 이별을 할 시간이다. 7박 8일간 우리를 편안하게 안아준 Mv Maldives Princess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다음을 기약한다. 스텝과도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고, 짐을 미리 실어 놓은 도니에 올라 Mv Maldives Princess를 배경으로 마지막 단체사진을 촬영하면서 인간의 세계으로 돌아왔다. 다시 공주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Mv Maldives Princess

6th floor, CHP #4 Orchid Magu
Male, 20183, Maldives

Phone **960-332-5994**
Cell **960-777-6637**
Fax **960-331-7840**
E-mail **khathim@islandpearlholidays.com**

www.MalDiveSafari.com
www.Facebook.com/mvmaldivesprincess
www.twitter.com/maldivesafari

정상근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
BSAC Instructor Trainer

SEA WORLD DIVE CENTER BORACAY

인터넷전화 **070-8258-3033**

현 지 전 화 **63-36-288-3033**

홈 페 이 지 **www.seaworld-boracay.co.kr**

PADI 강사 양성 2개월 특별과정

- ✓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 소지자가 PADI 강사까지
- ✓ 비용 : 590만원
- ✓ 포함내역 : 2개월 숙식/다이빙 100회 보장
  어드밴스드부터 강사 교육 일체
- ✓ 영어 연수 가능

PADI 강사 양성 6개월 특별과정

- ✓ 완전 초보에서 PADI 강사까지
- ✓ 비용 : 640만원
- ✓ 포함내역 : 2개월 숙식/다이빙 200회 보장
  오픈워터부터 강사 교육 일체
- ✓ 영어 연수 가능

IDC 일자	IE 일자	IDC / IE 장소
2011.08.22~2011.08.31	2011.09.02~2011.09.03	보라카이
2011.10.20~2011.10.29	2011.10.31~2011.11.01	보라카이

New Open!

SEA WORLD DIVE CENTER CEBU

세부 막탄섬에 위치한 펀 다이빙, 교육 전문 다이빙 센터

- ✓ PADI 교육 과정 실시
- ✓ 세부 막탄섬 해변가의 숙식이 가능한 고급 리조트(팜 비치 리조트) 안에 위치
- ✓ 전문적인 펀 다이빙 서비스 제공(보홀, 발리카삭 등 다이빙 투어 진행)
- ✓ 저렴한 가격으로 1:1 영어 연수 가능
- ✓ 서울 사무소에서 다이빙 교육, 펀 다이빙 등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070-8600-2154**

현 지 전 화 **63-917-625-7003**

인터넷전화 **070-8223-3033**

홈 페 이 지 **www.cebuseaworld.com**

Open your Water Heaven,
Paradise Dive Center!
Paradise Dive in Sabang Beach!

최고의 시설에서 최선의 서비스로

파라다이스를 즐기세요!

필리핀 민도르섬 사방비치 최고의 시설

오픈워터에서부터 강사교육까지

38개 객실, 교육용 풀, 테크니컬 다이빙 지원

대표: 임희수, 현지전화: 63-43-287-3533/63-928-719-1730
인터넷전화: 070-7563-1730
이메일: diver_ricky@hotmail.com, 홈페이지: www.paradise-dive.net

세부, 보홀, 아닐라오, 사방, 모알보알 등 필리핀의 대표적인 다이빙 포인트를 모두 가보았다면.. 고래상어는 보고 싶은데 오슬롭의 피딩당하는 고래상어는 싫다면.. 함께 떠나보자, 12월의 레이테!! 높은 확률로 고래상어를 볼 수 있고 건강한 산호군락이 끝도 없이 펼쳐진 곳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비록 가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는 설렘과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고래 상어를 찾아 떠난 12월의 레이테

- 필리핀 어디까지 가봤니?

스폿터 보트(spotter boat)를 타고
고래상어를 따라 이동한다

방카 보트에 연결해 고래상어 출몰 지역으로
이동하는 스폿터 보트(Spotter boat)

고래상어 트립

남부 레이테 지역에서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시즌은 길게 잡으면 12월에서 5월까지지만 3~4월이 가장 높은 확률로 고래상어를 볼 수 있다. 고래상어 트립은 1회 다이빙과 고래상어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서 3시간 스노클링이 묶인 하루 일정의 트립이다. 리조트에서 방카를 타고 약 1시간을 달리면 순옥(Sunok) 지역에 도착한다. 순옥에서 감독관과 스폿터 보트(spotter boat)와 조인하여 함께 고래상어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배 위에 올라탄 감독관이 먼저 고래상어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고래상어에 다가갈 때는 안전을 위해, 또 고래상어가 놀라지 않도록 5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뒤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진 촬영 시 스트로브와 렌턴의 사용은 금지되며 절대 고래상어를 만져서는 안된다.

준비를 마치고 고래상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스폿터 보트는 고래상어를 찾는 역할을 하고 지친 스노클러들을 태워 이동시켜주는 2인용의 좁은 보트이다. 스폿터 보트 여러 대를 방카 보트에 줄줄이 연결한 채 고래상어가 자주 나타나는 핀투얀(Pintuyan) 지역으로 이동한다. 방카 보트 위의 감독관과 다이브 마스터들, 그리고 뿔뿔히 흩어진 스폿터 보트에서 고래상어를 찾는다. 스노클러들은 방카 보트의 양 사이드에 줄지어 앉아 있다가 고래상어가 나타나면 한 명 한 명 차례로 물 속에 뛰어든다. 이 때 물보라를 너무 많이 일으키지 않도록 핀이 수면에 수직으로 들어가게 한다. 입수 후, 스노클링과 스킨 다이빙으로 따라가 고래상어를 보는 것은 각자의 능력! 같은 지점에서 입수하지만 고래상어를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나뉘기 마련이다. 고래상어를 따라가다 힘들어지면 스폿터 보트를 불러 매달려 있거나 보트에 올라타면 된다.

고래상어님을 영접하다

GoPro를 부착한 DSLR 카메라를 양 손으로 꼭 쥐고 마스크와 핀을 착용한 채 방카 가장자리에 앉아 언제쯤 가이드의 신호가 떨어질지 초조하게 기다린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긴장감이 다소 떨어질 쯤, 스폿터 보트와 가이드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진다. 그러더니 이윽고 "Go!"하는 신호가 떨어진다. 꾸물거릴 여유도 없이 바로 방카 아래로 떨어진다. 정신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따라 부지런히 핀 킥을 한다. 무거운 카메라와 하우징이 바로 앞 사람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점점 느려지게 한다. 곧 사람들이 멈추어 바닥을 내려다 본다. 사람들의 시선을 쫓지만 어두운 바닥에 흰 점 무늬가 어른어른 할 뿐 정확한 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건 고래상어를 봤다고 하기엔 확신이 없고 못 봤다고 하기엔 무언가 억울하다. 고래상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너무 급하게 고래상어 옆으로 가까이 접근한 사람 때문에 놀라서 깊이 내려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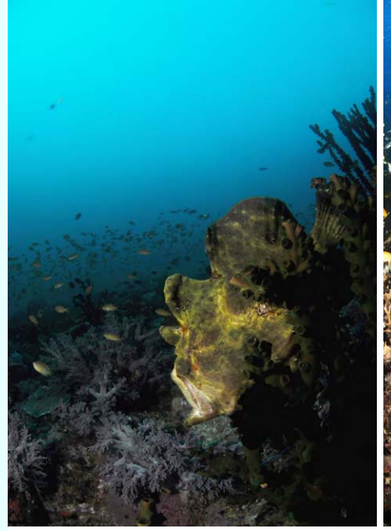
다시 방카로 올라와 다음 기회를 노린다. 다음 번에는 더 빨리, 그리고 열심히 킥을 하리라! 곧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이번엔 조금 더 죽을 힘을 다 한다. 다행히 고래상어가 깊이 내려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일단 인증샷 두 장을 찍고 잠영을 해서 몇 장을 더 시도하지만 이미 이동하고 있는 고래상어를 쫓는 중이니 노출이니 조리개니 조정할 시간이 없다. 뒤늦게 레코딩을 시작한 고프로에는 고래상어의 뒷모습만 담겼을 뿐이다. 그래도 봤다! 고래상어님을 영접했고 증거사진도 남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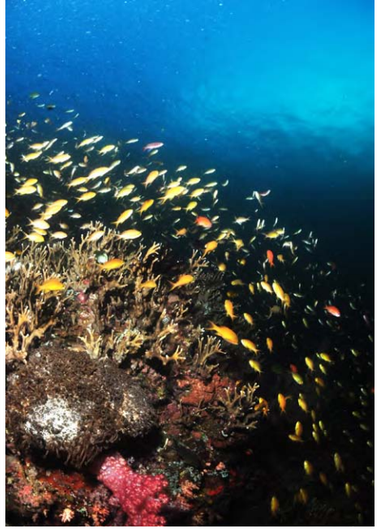
고래상어를 보러 레이테에 온 이상 고래상어를 보는 것이 목적일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총 5일의 일정 중에 이틀을 고래상어 트립에 할애했는데 첫 번째 트립에는 고래 상어 세 마리가 나타났지만 두 번째 트립에는 단 한 마리가 나타났을 뿐이었고, 그나마 일행 중 절반은 고래상어를 보지 못했다. Peter's Dive Resort에서는 고래상어 트립 중에 고래상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다이빙 1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준다. 멀리 레이테까지 와서 고래상어를 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100% 보장되는 일이 아니기에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고래상어와의 만남이 더 기쁘고 더 가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자연에서 건강히 살아가는 고래상어를 보고 싶다면 필리핀에서는 레이테에 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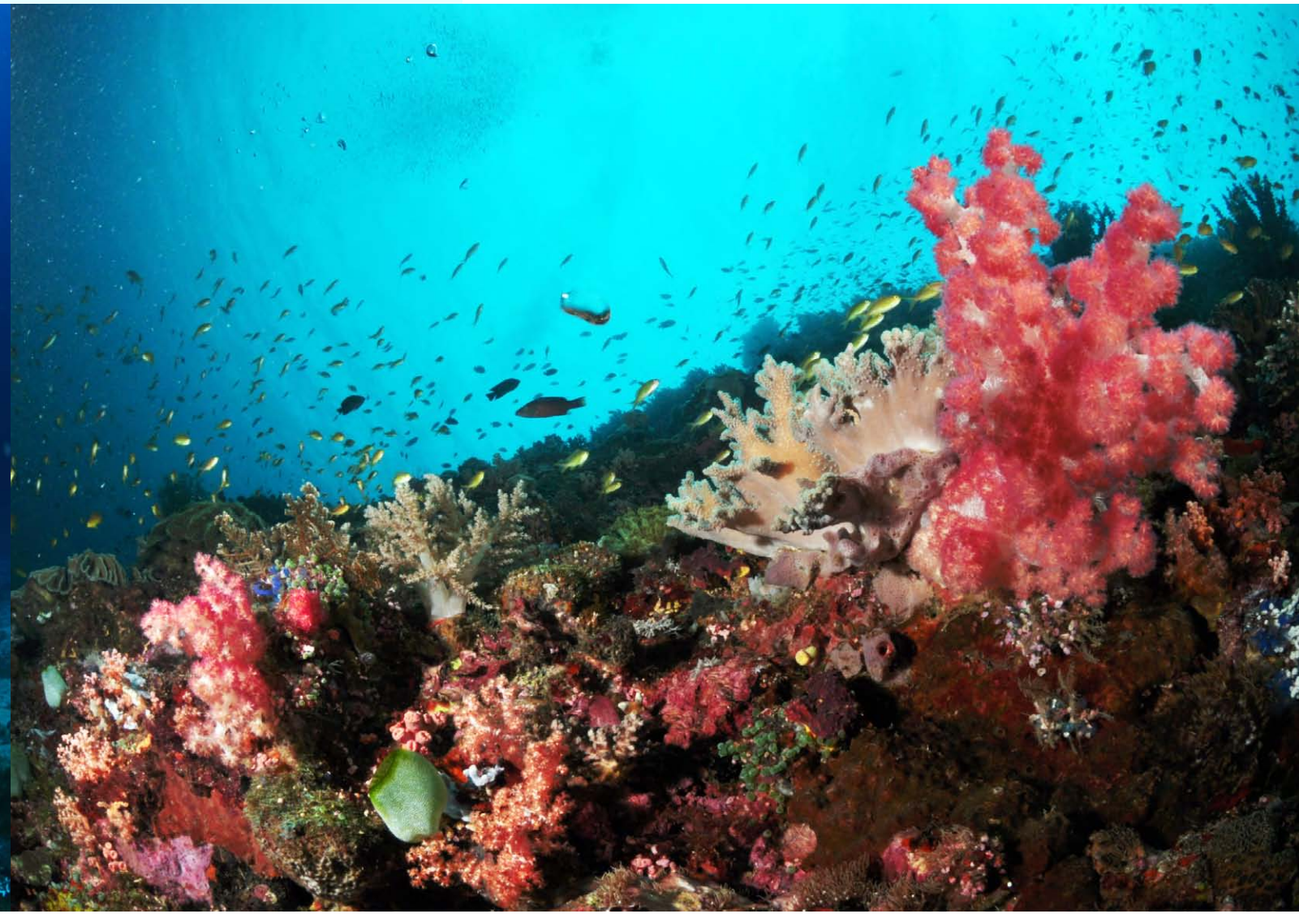
스킨 다이빙으로 고래상어를 만나다

레이테 다이빙

고래상어로 유명한 레이테이지만 다이빙 환경 또한 그에 못지 않다. 고래상어 시즌에는 플랑크톤으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지만 7월부터 9월까지는 시력만큼의 시야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끝없이 펼쳐진 다양한 종류의 산호와 무성한 해송들,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화려한 색상의 물고기들의 군무가 더 없이 아름답다. 훼손되지 않은 산호와 투명한 열대바다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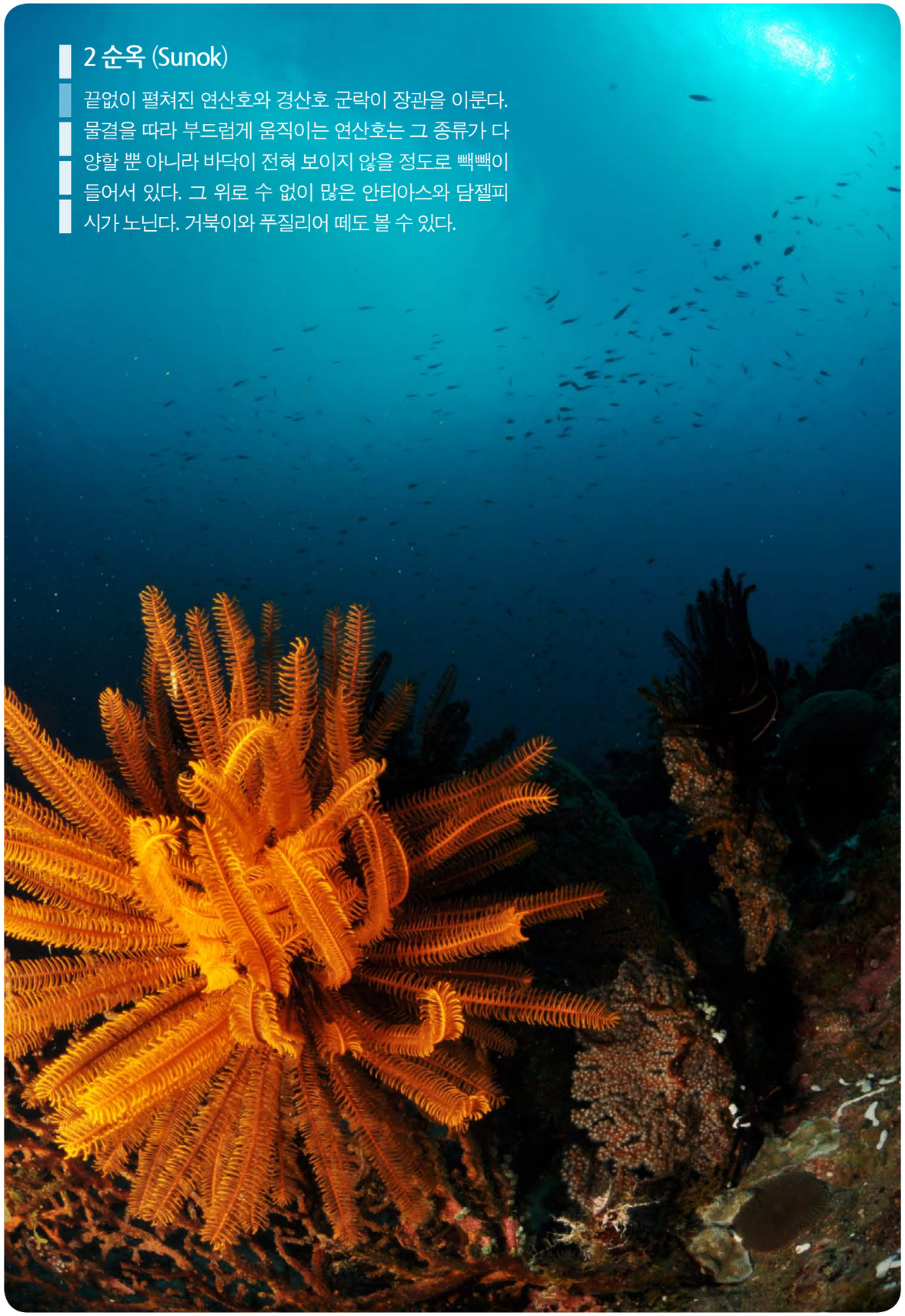


1 나판타오 (Napantau)

리조트에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수심 55m의 수직 절벽 포인트이다. 절벽에는 대형 씨팬과 해송의 군락이 펼쳐져 있고 다양한 색상의 해면과 연산호를 볼 수 있다. 연산호와 블랙코랄 사이에서 무리 지어 춤추는 물고기들은 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의 풍경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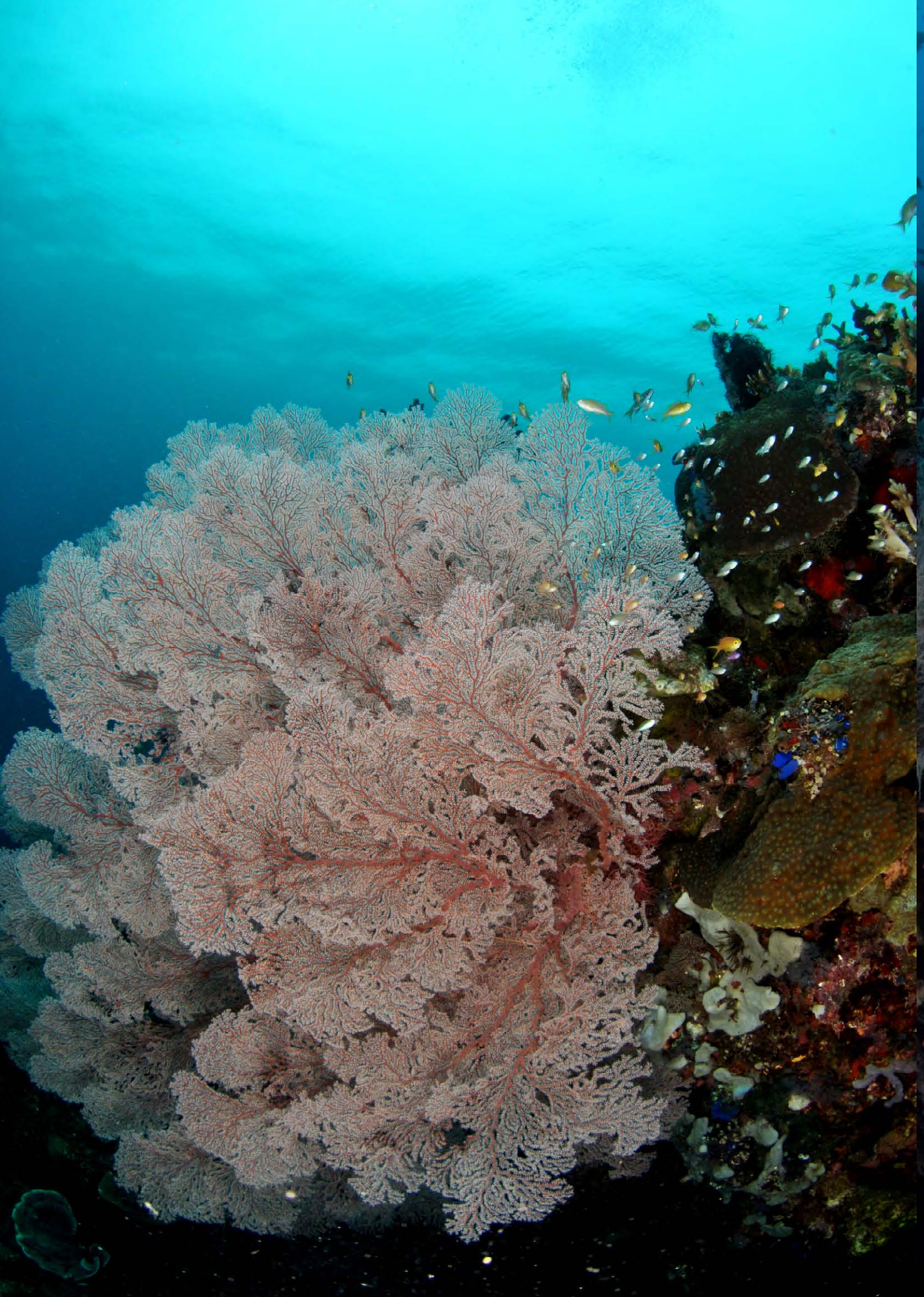
2 순옥 (Sun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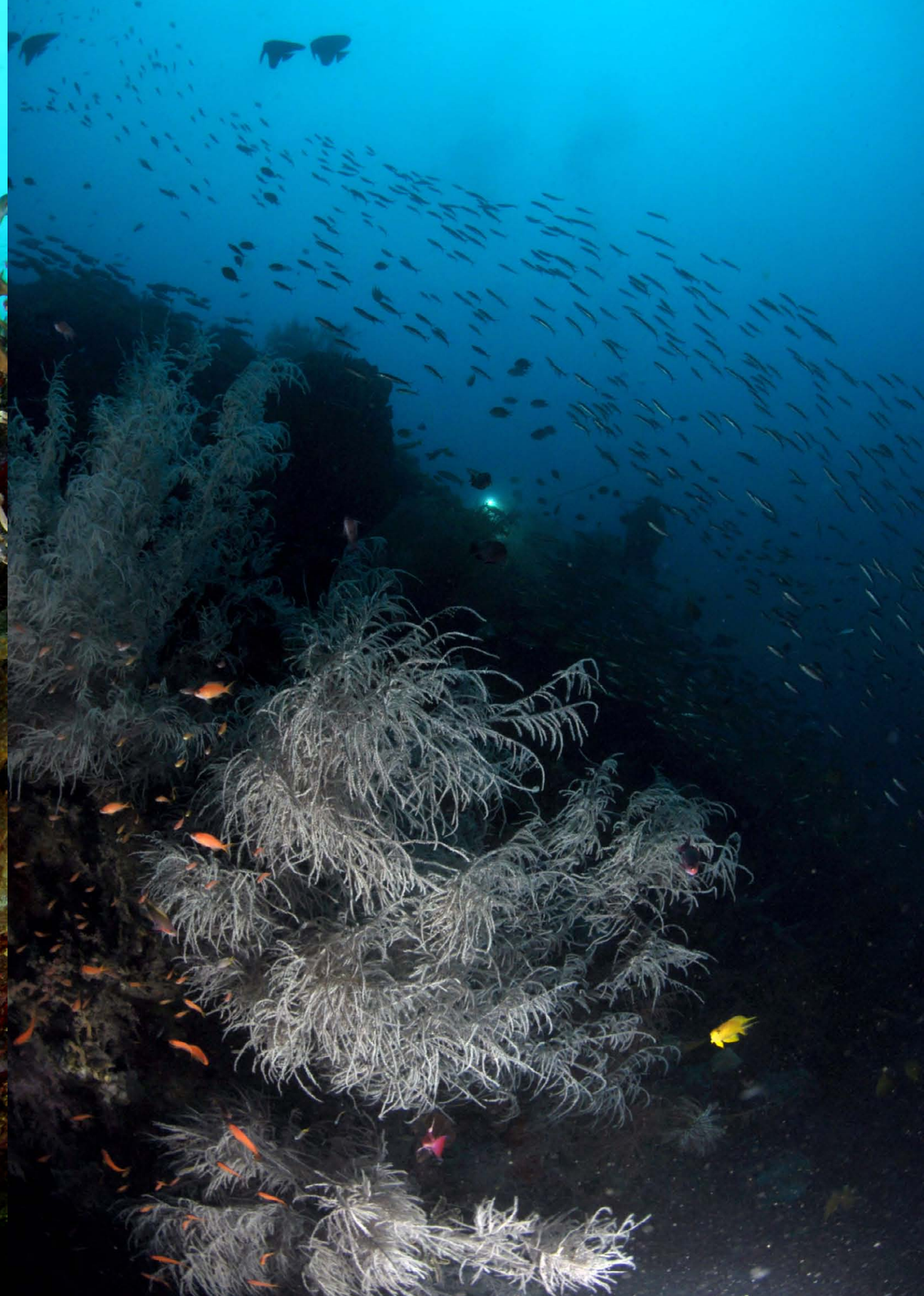
끝없이 펼쳐진 연산호와 경산호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 물결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산호는 그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이 들어서 있다. 그 위로 수 없이 많은 안티아스와 담젤피시가 노닌다. 거북이와 푸질리어 떼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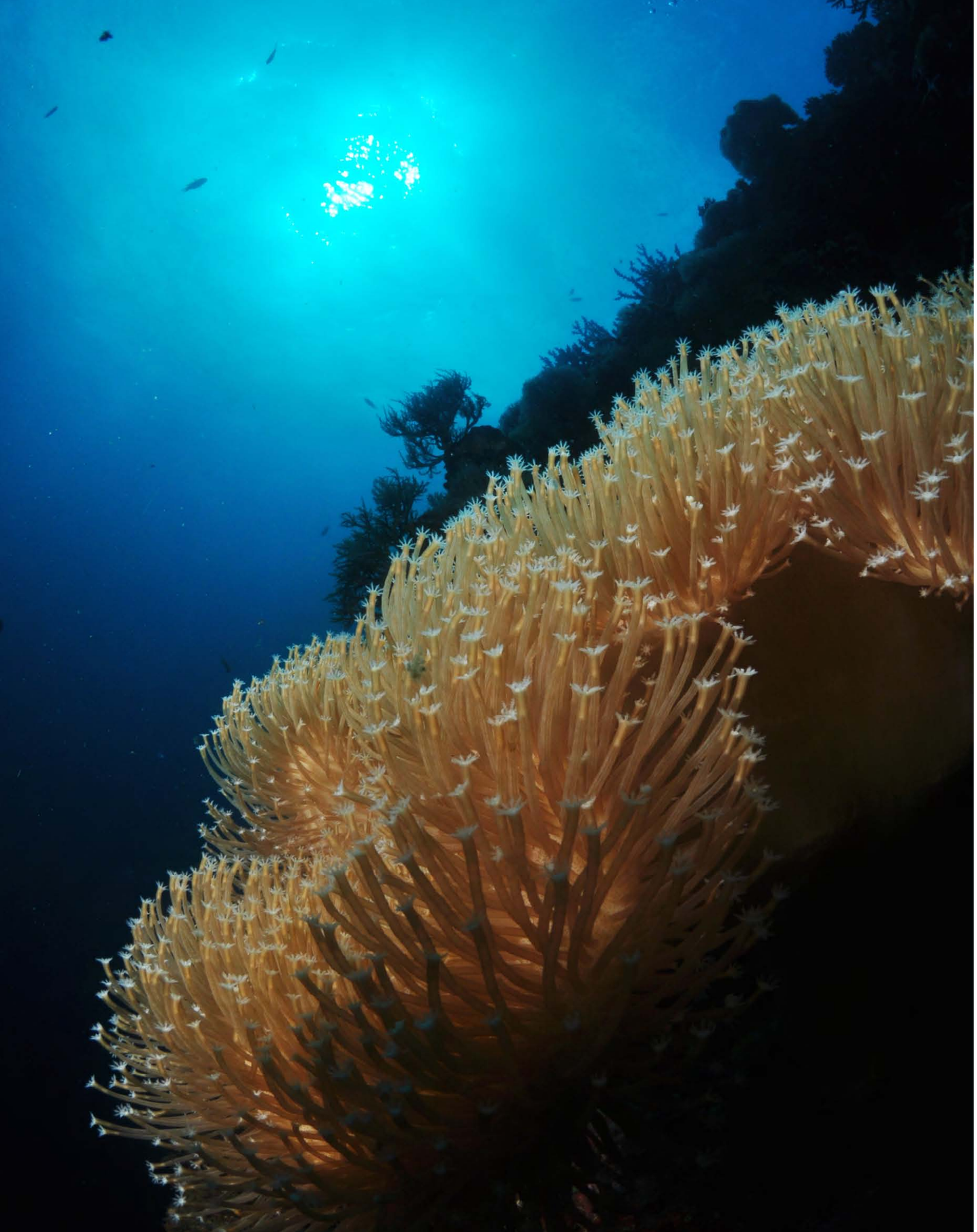


3 준스 피나클 (Jun's Pinnacle)

피터스 다이브 리조트(Peter's Dive Resort)의 다이브 마스터인 준(Jun)이 개발한 포인트이다. 상부는 수심 15m이고 바닥은40m에 놓인 커다란 피나클 포인트로 피나클에는 해송이 무성하게 자라있다. 해송 사이로 무리 지어 헤엄치는 담젤 피시와 투 스폿 스내퍼(two spot snapper), 깃대돔(moorish idol)의 떼를 볼 수 있다. 피나클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월 다이빙을 진행한다. 고스트 타운 포인트(Ghost town point)와 인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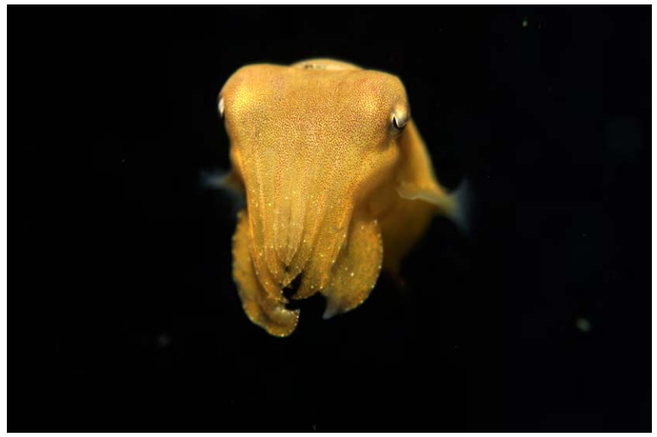






4 림마사와 (Limasawa)

파드레 부르고스(Padre Burgos) 지역에서 배로 약 40분을 이동하면 나오는 림마사와 섬에는 아드리안즈 코브(Adrians Cove), 잭스 코브(Zachs Cove) 등의 포인트가 유명하다. 월 다이빙 포인트로 오버행과 작은 동굴 등 다양하고 멋진 지형이 펼쳐진다. 대형 씨팬과 블랙 코랄을 볼 수 있고 미드나잇 스내퍼, 나폴레옹 레스, 푸질리어가 나타난다. 참치와 트래발리, 만타레이, 고래상어가 나타나기도 한다.



5 나이트 다이빙 (Burgos Pier)

더럽기로 유명한 부르고스 피어(Burgos pier)이지만 정화활동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예전의 명성만큼 더럽지는 않다. 그래도 여전히 바닥을 뒹구는 쓰레기들 그 사이로 다양한 생명체를 볼 수 있다. 스타게이저, 해마, 파이프 피시, 코카루 리프 피시, 옥토푸스, 오징어 등을 볼 수 있다.

레이테 다이빙 리조트 : Peter's dive resort

인터넷 다이빙 카페 in 2the Blue를 통해 한국 다이버들 사이에 많이 알려진 곳이다. 2대의 방카로 다이빙을 오퍼레이팅 하고 있고 1명의 강사와 3명의 다이브 마스터가 있다. 해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자갈로 된 해변이라 열대의 아름다운 비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다이빙 이외의 놀 거리는 없지만 다이빙만 하기에는 더없이 편한 환경이다. 리조트로 오고가는 교통편을 세심하고 편리하게 조정해준다. 리조트 주변으로 마땅한 식당이 없으므로 투어 중의 대부분의 식사를 리조트의 식당에서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음식 맛은 좋은 편이고 양도 푸짐하다. 단, 음식이 너무 짜게 조리되므로 소금을 적게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오전에는 약 1시간 거리의 포인트에서 2회 다이빙을 진행하고 리조트로 돌아와 점심식사를 한 후, 3번째 다이빙은 리조트 근처의 포인트에서 진행하거나 나이트 다이빙을 한다. 고래상어 시즌 중에는 인원이 6명 이상 모이면 언제든 고래상어 트립을 할 수 있다.

Peter's Dive Resort

Homepage: http://whaleofadive.com
Email: morrittpeterpdc@yahoo.com
Address: Barangay Lungsodaan 6602 Padre Burgos, Southern Leyte, Philippines
Mobile: (+63) 917-791-0993 / (+63) 915-437-7560

Peter's Dive Resort 전경

레이테 가는 길

레이테 섬의 다이빙 포인트는 모두 섬의 남쪽 끝 단에 있다. 남부 레이테까지 가는 방법은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과 세부에서 페리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1 마닐라에서 레이테 (비행기 이용)

마닐라에서 레이테 섬의 탁클로반(Tacloban) 공항까지는 약 한 시간이 소요된다. 공항에서 남부 레이테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짐이 많은 다이버의 경우 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편도 약 3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왕복 4,000페소(한화 약 10만원)이다.

* 필리핀 에어라인 www.philippineairlines.com
* 세부 퍼시픽 www.cebupacificair.com
* 제스트 에어 http://www.zestair.com

2 세부에서 레이테 (페리 이용)

세부에서는 레이테 섬의 힐롱고스(Hilongos), 오목(Ormoc), 마아신(Maasin) 항구까지 페리로 이동한 후, 차로 남부 레이테까지 이동한다. 페리와 차를 이용한 각각의 소요 시간은 아래와 같다.

세부 >> 오목(2시간 30분)
오목 >> 남부 레이테(3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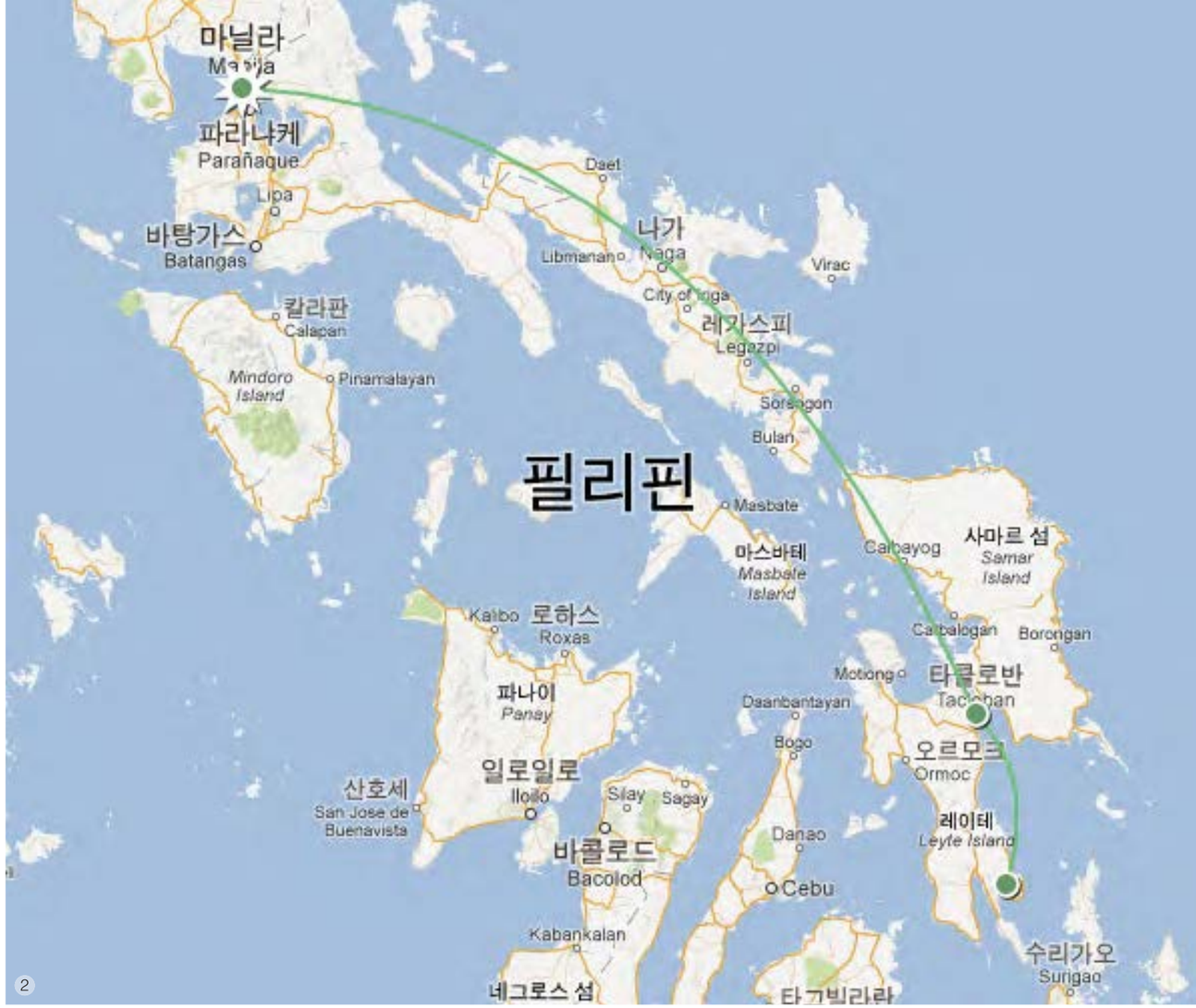
세부 >> 힐롱고스(4시간 30분)
힐롱고스 >> 남부 레이테(1시간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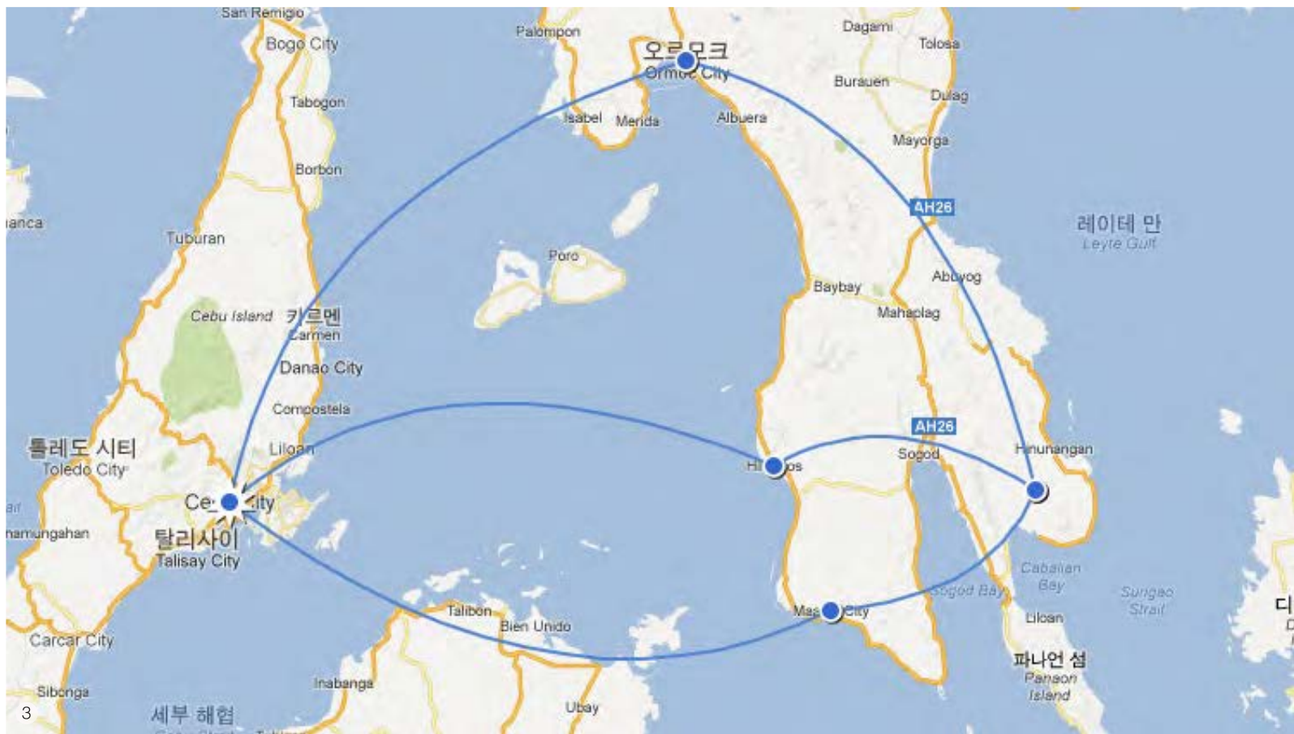
세부 >> 마아신(6시간)
마아신 >> 남부 레이테(40분)

각 페리의 운행 시간과 운행 요일이 상이하니 해당 운항사 또는 다이브 리조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슈퍼캣 www.supercat.com.ph
* 위삼 www.zimnet.com/weesam/php
* 코칼리옹 www.cokaliongshipping.com
* 필리핀 페리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http://schedule.ph/browse

1 Peter's Dive Resort 앞에서 본 해변 풍경
2 비행기를 이용해 마닐라에서 타클로반으로 이동하는 경로
3 페리를 이용해 세부에서 레이테 섬으로 이동하는 경로 (3가지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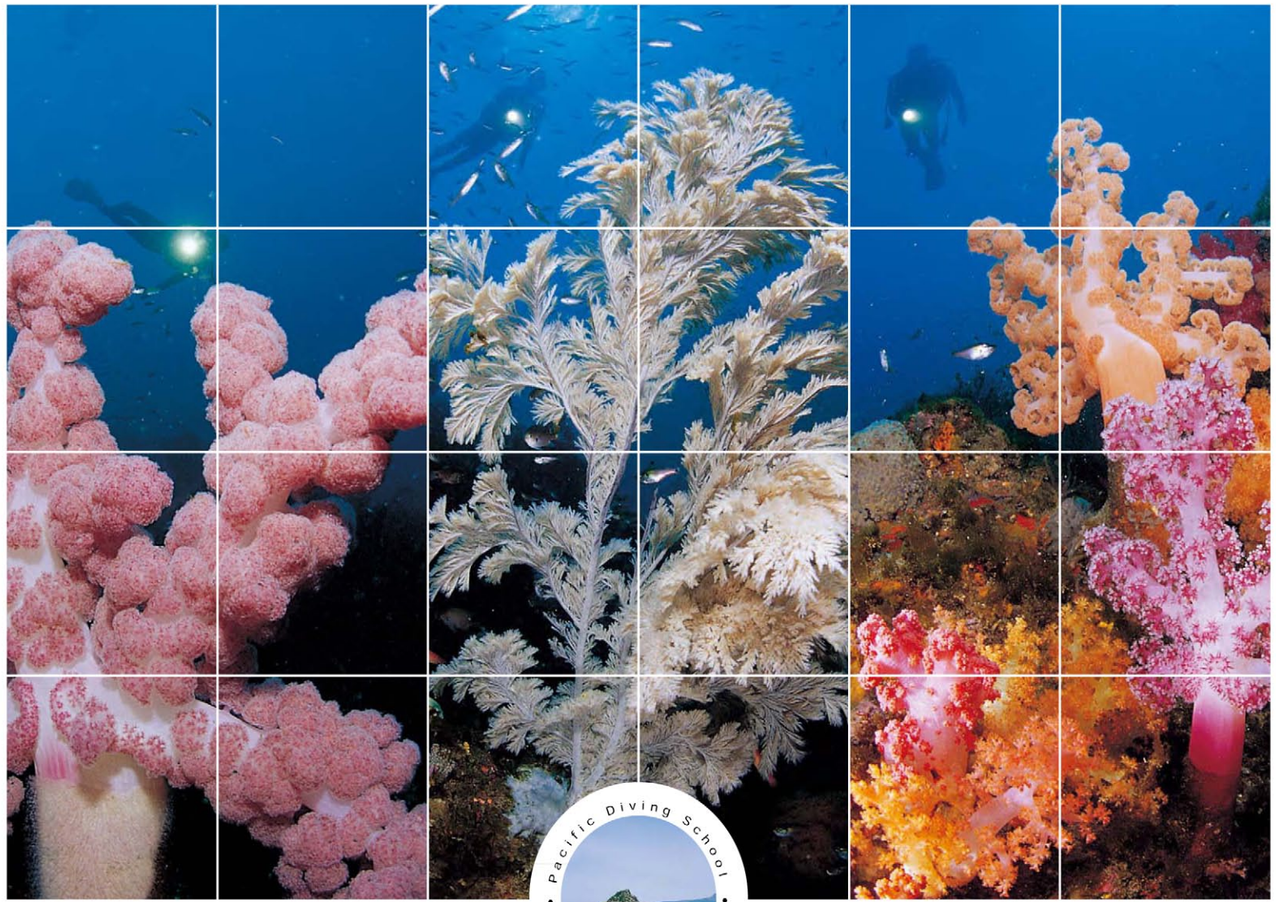


스쿠버넷 기자 김현덕

아라다이브

서귀포항에서 2분 거리에 오픈한 아라다이브
제주 다이빙 숍들을 위한 에어스테이션
올레꾼들과 다이버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젊은 다이버들과 함께 즐거울 수 있는 펀다이빙

http://aradive.com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667-12번지
대표: 이훈선
전화: 064 732 4832, 010 6575 8945
다이빙 파트:
이병웅(PADI, SSI) 011 9909 1225
장기용(PADI, NAUI) 010 6575 8945



Pacific Diving School
태평양다이빙스쿨

제주 문섬 의 새로운 포인트, 태평양 다이빙스쿨 이 안내합니다.

다이빙 준비 모습

대형 컴프레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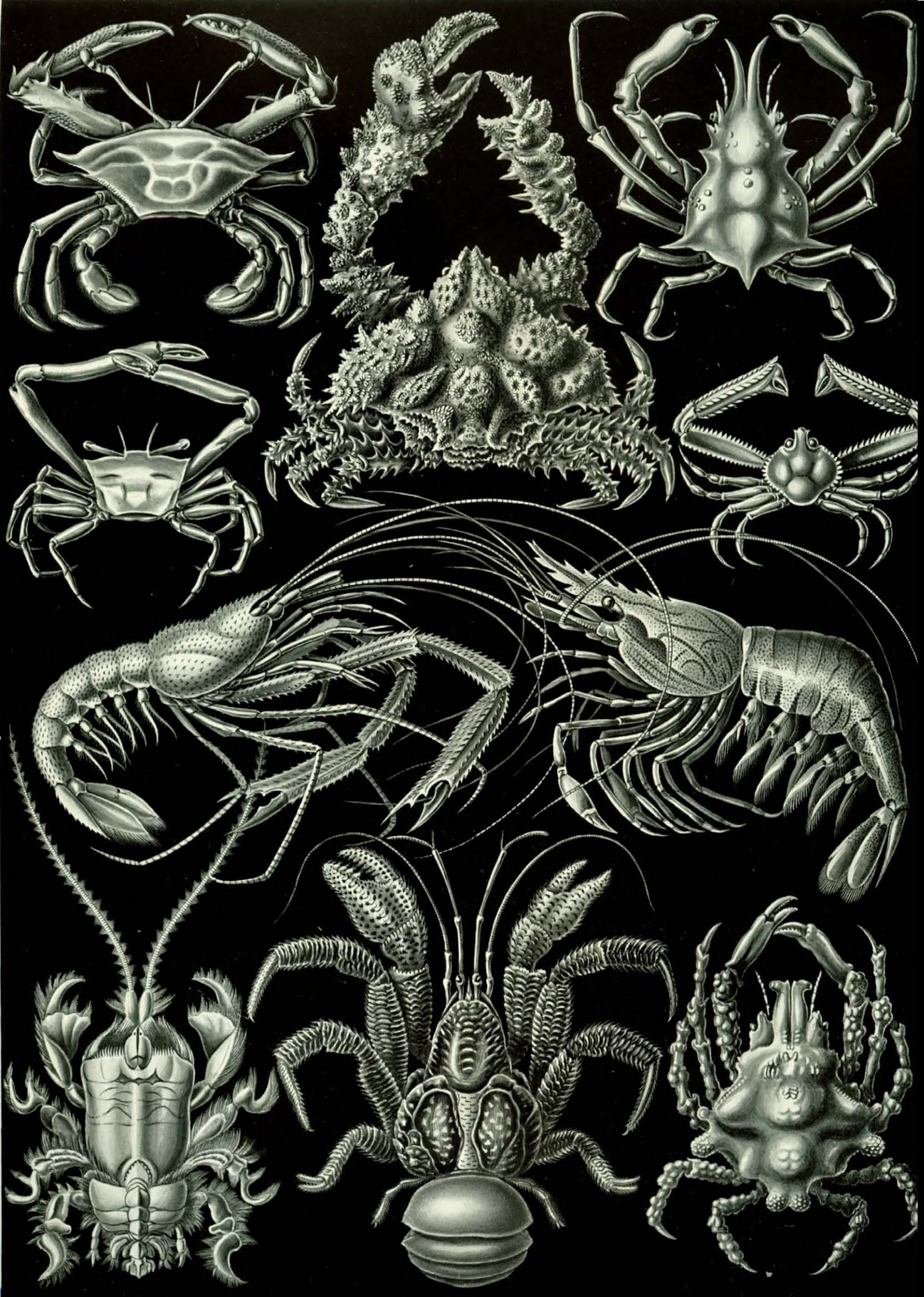
김병일대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제주 문섬의 지킴이 김병일 대표와
문섬의 특별한 포인트에서의 다이빙을 경험해 보십시오.

http://cafe.daum.net/pacific21
PACIFIC21 DIVING SCHOOL
대표 : 김병일 TEL. 064) 762-0528 FAX. 064) 732-0528

야간에 죽은 산호 틈에 자리잡고 있는 게

무장공자전(無腸公子傳)
게(Crab)에 대하여



십각목(Decapoda)에 속하는 종류들(그림출처 1904년 Ernst Haeckel의 "자연의 예술적 형상들"에서)

찬바람이 불어 코끝이 찡해지는 겨울이다. 요맘때면 떠오르는 하나의 해양생물이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통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도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따뜻할 때 한입 베어 물면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 이름 "대게(竹蟹)"이다. 물론 대게의 계절이라서가 아니라 최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필자는 대게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게 및 가재류를 즐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젓가락으로 우아하게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의 수준이 우아한 것을 따질 정도는 아니지만 여하튼 손으로 발라먹기가 귀찮아서이다. 각설하고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방송하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생명을 건 포획-Deadliest Catch"란 제목으로 알라스카 반도 서쪽 알류샨 열도의 아마크낙 섬(Amaknak Island)에 있는 항구도시 "더치하버(Dutch Harbor)"에서 출발한 배들이 영하 30℃의 추위와 10m가 넘는 파도가 치는 극한의 베링해에서 "킹크렙"과 "대게"를 잡는 현장을 방송하고 있다.

게는 옛 문헌에 따르면 한자로 보통 "해(蟹)"로 쓰였고, 궤(跪)·방해(螃蟹)·횡행개사(橫行介士)로 불리었으며, 창자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 무장공자(無腸公子)라고도 불리었다.
게는 거미, 곤충, 따게비, 거북손, 새우, 가재 등이 포함되며, 동물계 종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지구상의 어떤 서식처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절지동물문(Phylum Arthropoda)에 속하며, 연갑강(Class Malamalacostara), 십각목(Order Decapoda), 범배아목(Suborder Pleocyemata)로 분류된다. 십각목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종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0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 10개의 다리는 기능적으로 한 쌍의 집게발과 네 쌍의 걷는 다리로 나누어진다.
게는 십각목에 포함된 종류 중 가장 진화한 동물이다. 원래 십각목에 속하는 종류의 몸은 머리, 가슴, 배의 3부분으로 나누어 게는 머리와 가슴 부분이 융합하여 두흉부를 이루고, 7개의 마디를 가지는 배로 구성되어 있다. 두흉부는 1장의 등딱지가 덮고 있으며, 7개의 마디를 가지는 배는 근육이 퇴화되어 새우와 같이 운동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게는 전세계에 4,500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는 20과 183종이 분포한다. 대부분 바다산인데, 동남참게나 붉은발말똥게처럼 바다에서 유생 시기를 보낸 뒤 어느 정도 자라면 강 어귀나 육지의 습지로 올라와 사는 종도 있다.
수심 4,000m의 깊은 바다에 살거나, 남북극해 부근에서 사는 종도 있지만 대개는 대륙붕 근처에서 많이 산다. 보통 단독생활을 하지만 멍게·해삼 따위에 기생하는 것도 있다.
바다에서는 수심·수온·저질의 성질 등 환경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종들이 살고 있으며, 생활방식도 가지각색이다. 대부분의 게는 바닥을 기어 다니지만, 꽃게와 같이 헤엄치는 것도 있다. 갯벌에는 칠게와 같이 구멍을 파고 사는 종류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연해에는 전체적으로 온대성 게 종이 많고, 동해에는 한류성 게류가, 제주도와 남해에는 난류성 게류가 비교적 많다.

조선 성종 때 노사신, 강희맹, 서거정 등이 엮은 『동국여지승람』의 '토산난'에 해(蟹)가 들어 있는 고을은 모두 7도(강원도 제외) 71개인데, 여기서의 해는 대부분 참게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자해(紫蟹)는 경상·강원·함경 3도 11개 고을의 토산물로 기술하였다. 이것은 대게를 칭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또한 손암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흑산도의 동물을 인류(鱗類)·무인류(無鱗類)·개류(介類)·잡류(雜類)로 나누고 해(蟹, 게류)를 개류에 넣었다. 이 책에는 해의 특징을 쓰고 그 종류 17가지의 특징과 맛을 기재하였는데, 현재 고증결과 그 중 두 가지는 게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니다. 순조 3년 때인 1803년 진해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김려(金鑢)가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魚譜)인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에서는 진해의 게류 8가지를 기재하였고, 다.

서유구(徐有榘)의 『전어지(佃漁志) 』에서는 게류를 개류에 넣고 20여 가지를 소개하였으며, 게(참게)를 잡는 법으로서 구해법(鉤蟹法)과 현촉서포해법(懸蜀黍捕蟹法)을 소개하였다. 구해법은 낚시로 잡는 법이고, 현촉서포해법은 굵은 노끈에 수수 이삭을 매달아 잡는 법이다. 이처럼 많은 고문헌에서 게의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한편,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게 오래 두는 법, 술·초로 게젓 담그는 법, 소금으로 게젓 담그는 법, 장으로 게젓 담그는 법, 게 굽는 법, 게찜 등을 소개하였으며, 게와 감·배·꿀을 같이 먹지 말 것과 감꼭지 대여섯과 같이 찌면 빛이 푸르러진다는 것, 서리 전 게는 독이 있으니 중독자는 생연근즙·동과즙·마늘즙 등을 먹으면 좋고, 대황을 달여 먹어도 좋다는 것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학서적인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게(참게)는 가슴속 결열(結熱)을 주로 다스리고, 위기(胃氣)를 다스려 먹은 것을 소화하고, 칠창(漆瘡 : 칠독으로 생기는 급성 피부병)을 치료하며, 산후의 두통(肚痛 : 배가 아픈 것)과 피가 내리지 않는 증세를 다스린다고 소개하고 있어 옛 부터 게는 식생활 뿐만 아니라 의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친숙하게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게는 다양한 종류와 서식처를 가지고 있어 외양적 특성이 다양하다. 게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해양생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식생을 가지고 있어 "바다의 청소부(scavenger)"라고도 불린다. 물론 게가 바다생물의 사체만을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게들은 자기보다 작은 게나, 오징어, 문어, 갯지렁이 등 다양한 먹잇감을 사냥하기도 한다.

1 소라 껍데기를 집으로 삼고 있는 집게(필리핀 아닐라오)
2 야자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게(필리핀 사방)

게는 거의 모두 먹을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현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동해의 대게와 털게, 남해와 서해의 꽃게·민꽃게·두점박이민꽃게·칠게·방게 등과 제주도의 홍색민꽃게이다. 음식점에서 흔히 나오는 게장의 재료는 꽃게·민꽃게·홍색민꽃게이다. 참게는 예전에는 게젓의 중요한 재료였으나 농약으로 인한 수의 격감과 폐디스토마의 중간숙주라는 이유 때문에 한때 먹지 않았으나, 최근 양식 참게의 출하 및 유기농 재배 등에 의해 자원수가 증가하여 미식가들이나 참게가 많이 포획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음식재료로 사랑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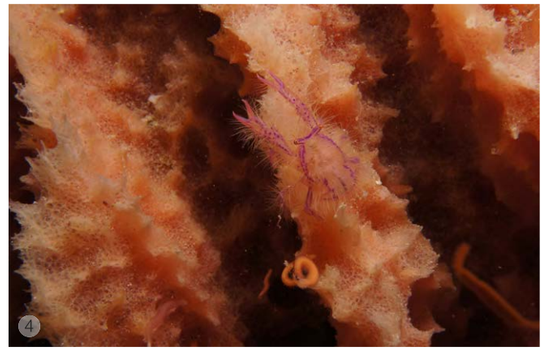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게의 종류를 모두 기술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또한 필자는 해양 무척추 동물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종류 또한 모두 알지 못한다. 따라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게와 꽃게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1 항아리 해면 내부에 자리잡은 게(인도네시아 코모도) **2** 부서진 해면을 뒤집어 쓰고 모래에 위장해 있는 게(인도네시아 발리) **3,4** 말미잘과 공생하는 껍질이 도자기처럼 매끈한 자기게 [Porcelain crab, 필리핀 사방(3), 필리핀 까빌라오(4)]

횟집의 수족관에 있는 대게

대게는 '영덕대게'로 알려져 있지만, 울진, 포항, 울산 등에서도 잡혀서 대게 산지의 사람들은 너도나도 자기 고장이 대게의 고향이며, 맛 또한 으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영덕대게로 불리게 된 것은 예전 교통편이 좋지 않을 때 동해안 여러 포구에서 잡은 대게를 전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영덕의 집하장으로 모였게 되어서 이 이름으로 남게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이처럼 대게는 한자의 '大'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몸통에서 뻗어나간 다리의 형태가 대나무 마디처럼 곧아서 붙여졌다. 최근 사람들은 원양산 대게의 수입과 알래스카산 "킹크렙" 등의 수입으로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게의 맛을 볼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맛에서 으뜸으로 치는 것은 원양산 대게가 아닌 근해에서 건져 올린 대게인 일명 '갓바리'가 최고라고 이야기 한다. 대게의 어획고는 남획, 알을 품은 암컷인 '빵게', 어린 개체의 포획 등 여러가지로 인하여 그 수가 격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실 대게의 생산량은 영덕군보단 울진군이 더 많다고 한다. 현재 울진군에서는 울진대게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영덕 대진리 앞바다에는 커다란 대게 조형물이 바닷속에 있어 수중 수중 촬영가들에게 흥미로운 피사체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다이버들이 찾고 있다. 대게 중 살이 꽉 찬 것은 살이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다 하여 박달게라는 애칭을 가지며 최고의 상품으로 대접 받고 있으나, 길거리의 포장마차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게는 대게와는 다른 홍게이다. 대게는 수심 200~400m의 동해 대륙 경사면 바닥에 서식하는 반면, 홍게는 수심 600~1000m 의 동해 심해에서 많이 잡힌다. 대게의 껍데기가 얇고 황색을 띤다면 홍게는 껍데기가 두껍고 붉은 색을 띠는데다 살이 적은 편이다.

꽃게 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요 수산 자원 중 하나로 수심 20~30m 깊이의 바닥에 서식하며, 긴 다리를 뻗치고 배가 물을 가르듯이 옆 방향으로 빠르게 헤엄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절에 따라 적합한 수온을 찾아 서해안을 따라 남북을 오간다. 9~10월 가을에 접어들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꽃게는 겨울 동안 우리나라 서해안 끝인 소흑산도 이남까지 남하하여 겨울잠을 자고 이듬해 3월이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꽃게가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이동을 하며, 4~5월이 되면 살이 올라서 최고의 상품가치를 가지는 꽃게가 된다. 서해안에는 산란을 위해 꽃게가 연안으로 이동하는 4~5월과 겨울을 나기 위해 남하하는 9~10월 두 차례 성수기가 형성 되어 봄에는 잡히는 양은 적지만 맛이 뛰어나 인기가 있으며 가을에는 수적으로 많이 잡히게 되어 어민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인지 봄에는 암게를 먹고, 가을에는 수게를 먹는 다고한다.



2 모래에 서식하는 게(Helmet Carb) **3** 연산호의 폴립과 같이 위장하고 있는 캔디 크렙(Candy Carb) **4** 해면에 기생하는 게(Pink Hairy Crab)

속담(俗談) 속의 게

게는 옆으로 걷고 집게 다리를 이용하여 집기를 잘하며 맛 또한 뛰어나 옛부터 여러 가지 속담에 자주 사용되었다.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한다.'는 말은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들을 빗대어 이야기 하는데 게의 눈은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위험을 감지하면 재빠르게 몸 속으로 숨기는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유전적 본능을 속일 수 없다는 의미로 '게는 새끼를 집고 고양이는 새끼를 할퀸다.'고 이야기 하며, 무슨 일을 하려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손해만 보았을 때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는 속담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사람이나 동물이 괴로울 때 흘리는 침을 '게거품'이라고 하는데, 게는 호흡을 위해 빨아들인 물을 아가미와 연결된 한 쌍의 구멍을 통해 배출시킨다. 아가미 호흡을 하는 게가 무리 없는 곳에 장시간 노출되어 숨이 가빠지면 아가미 주위에 거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약 100년 전인 1908년 안국선에 의해 출간된 개화기 신소설 "금수회의록"에서는 게를 "무장공자(無腸公子)"라 칭하여 줏대 없고 절개 없는 인간들을 비판하고 지배 계급의 부패상을 풍자하는 것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실제로 다이빙을 하다 보면, 해초숲 이나 모자반 군락 사이에 위장을 하고 있는 "뿔불맞이게" 처럼 특이하게 생긴 게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미천함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음식이나 술안주로 애용하는 '게맛살'은 명태로 만든 것이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이용한 맛살이 존재하지 않는데 '게맛살'만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게의 맛이 좋긴 한가보다.

권천중
해양생물학 박사
부경대학교 해양과학 공동연구소
BSAC 강사 트레이너

마린하우스

Marine House
Scuba Diving Resort

- www.marinehouse.info
-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 748
  064-738-7390
  017-215-6577
  대표 허천범

- 공항 픽업
- 철저한 수중가이드
- 장비이동 및 세척서비스
- 초보에서 강사까지 교육

Diving Resort Club
다이빙 리조트 클럽

가입혜택
- **다이빙 요금 5% 할인** : 다이빙 요금에 한함
- **생일특별할인** : 주민증록증 기준으로 30일 이내
- **기념품증정** : 이용횟수에 따라(10회, 20회 등)

지금 원하는 리조트에서
"클럽"에 가입하세요!!!

남해안의 숨겨진 보석
거문도로 오세요

거문도 스킨스쿠바 리조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덕촌마을
전화: 018-279-2212
http://cafe.daum.net/gogeomundodiving

치명적인 흉기 공기통 '얼굴두부손상'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각오와 계획으로 2013년을 맞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12월 수차례 때 이른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가운데 연말 대선의 열기는 그야말로 뜨겁고 흥미로웠다. 새로운 지도자의 안정된 국정운영으로 조국의 번영과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주제인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공기통의 위험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한다.

요즘 국내 다이빙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파와 폭설 그리고 좋지 못한 바다사정 때문이다. 대부분 다이빙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필자도 요즘 같아서는 따듯하고 시야가 탁 트인 열대바다에서 사나흘 다이빙이나 하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보트에서 장비를 세팅하고 다이빙 포인트로 입수하는 과정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누구든 그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보트에서 다수의 다이버가 자신의 장비를 매고 바닥에 널려져 있는 오리발, 수경, 후드 등 장비를 챙기기 위해서 좌우로 두리번거리고 있다. 누군가는 바닥만을 쳐다보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의 상황이다. 자신의 등 뒤에 공기통이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좌우로 흔들어 댈 때 누군가의 얼굴과 머리는 흉기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하였다. 위험한 상황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리더의 인솔 하에 보트 양쪽에 걸터앉아서 동시에 뒤로 굴러 입수를 할 때의 경우이다. 늦게 입수하는 다이버가 이미 보트아래 수면에 떠있는 다이버 위로 덮쳐 입수하는 위험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첫째 가벼운 얼굴과 머리 타박상(contusion)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상 부위가 조금은 붓고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수일 내 후유증 없이 말끔히 좋아진다.

두 번째는 두부와 얼굴에 긁힌 상처(scratch wound)가 생기거나 찢어지는(laceration wound)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처 소독과 연고 정도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나, 후자의 경우 출혈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여 봉합수술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로는 가장 심각한 경우인 뇌손상 또는 이로 인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이다. 먼저 공기통으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안면골절(facial bone fracture) 및 머리 골절(skull fracture)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조직에 피멍이 드는 뇌좌상(brain contusion) 또는 두개강내출혈(intra-cranial hemorrhage)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손상, 즉 뇌의 구조적인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뇌기능부전이 동반되어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흔히 말하는 뇌진탕(brain concussion)이 대부분이겠지만 간혹 이보다 심각한 뇌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겠다.

안면골절, 두개골 골절의 경우 단순 X-ray 및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시행할 수 있으며 뇌 실질의 손상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촬영술(MRI) 시행이 필요하며, 뇌진탕, 뇌좌상, 뇌출혈 여부를 감별할 수 있다.

동해안이나 제주도와 같이 국내 다이빙 중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겠지만 해외에서 다이빙 중에 이러한 사고에 봉착한다면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으므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를 숙지해두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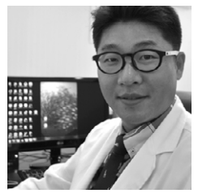
먼저 두부나, 안면에 찢어진 상처가 있는 경우 간혹 출혈의 양이 많아 다친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도 당황할 수가 있다. 이때는 침착하게 출혈부위를 찾아 깨끗한 수건과 같은 천으로 누르고 손가락으로 압박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자. 출혈부위를 손가락으로 잘 압박하면 효과적으로 지혈이 가능하며 일단 지혈이 되었다면 응급상황은 해결된 것이다.

두 번째로 두부외상 후 의식이 소실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이상 징후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의식이 곧 회복되었고, 의식수준이 이전과 동일하며 구토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이다. 부상 후 24시간동안 두통이나, 구토 등의 별다른 몸의 이상이 없다면 이는 더더욱 좋은 징후이며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부상 후 의식수준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지속적으로 분출성구토를 반복하는 경우, 코피 또는 맑은 액체가 지속적으로 코로 나오는 경우,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경우 등일 때는 장소를 불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사고를 경험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희망찬 2013년을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으로 아름답게 추억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보트 위에서 장비를 착용 후에는 누구든 행동하기에 앞서 주변상황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음이 중요하며, 설사 동시에 입수를 못하고 늦게 따로 입수하는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보트아래 수면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건욱
SSI 강사 GUE Tech1 diver
가정의학과 전문의

DAN AP Q&A 잠수의학

DAN Asia Pacific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가시털갯지렁이에 쏘였을 때

Q 수중사진을 촬영하고 있을 때 가시털갯지렁이(Bristleworm)에 쏘여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가시털갯지렁이(Bristleworm) 사진/우종원

A 가시털갯지렁이(Bristleworm)는 전세계 모든 해양에 걸쳐서 나타나는 갯지렁이입니다. 보통 매우 화려한 색상을 띠고 있어서 다이버들의 눈에 자주 관찰되는데 바다의 애벌레처럼 생각합니다. 크기는 수 mm의 작은 것에서 20㎝의 큰 것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가시털갯지렁이(Bristleworm)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증세로는 가려움, 염증, 홍반, 따가움, 저림 등이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응급조치가 적절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부에 남아있는 가시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염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말립니다.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항생제 연고나 소염제 크림이 사용됩니다. 물집이 생길 수도 있지만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마르게 둬야 합니다.

답변은 DAN의 존 리(John Lee)와 마티아스 노체토(Matias Nochetto)가 해주었습니다.

해원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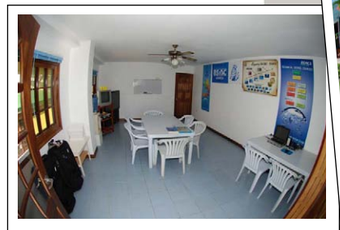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안 다이빙 사이트
숙식일체형 다이브 리조트
다이빙 전용보트 3척 보유
인공어초, 자연짬 등 다양한 포인트 보유
수중사진가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곳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6-39번지 대표: 박상용
전화: 033-644-6207, 011-685-1556
http://cafe.daum.net/kattt

MoalBoal 오션블루

· www.moalboaldive.com
· 필리핀 세부 모알보알
070-7518-0180
070-8229-5285
대표 김용식

· 바닷가 수영장
· 테크니컬다이빙센터
· ITC 및 각종 교육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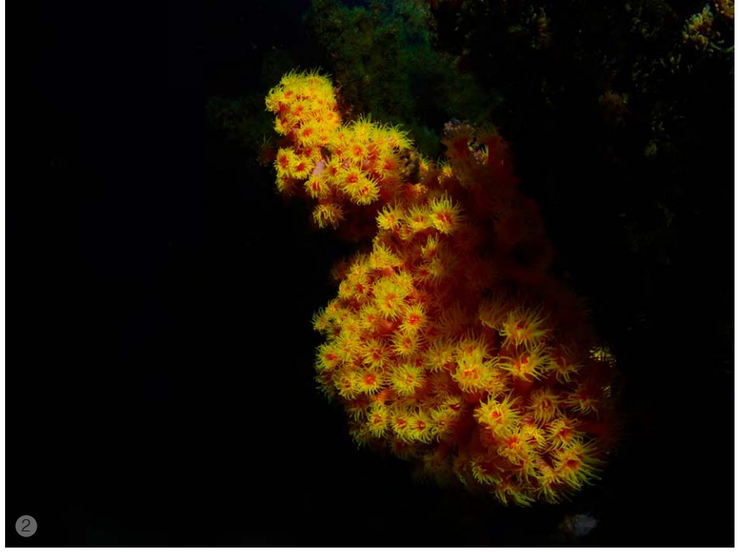
Diving Resort Club
다이빙 리조트 클럽

가입혜택
- **다이빙 요금 5% 할인** : 다이빙 요금에 한함
- **생일특별할인** : 주민증록증 기준으로 30일 이내
- **기념품증정** : 이용횟수에 따라(10회, 20회 등)

지금 원하는 리조트에서
"클럽"에 가입하세요!!!

고급수중사진교실

야간 다이빙의 수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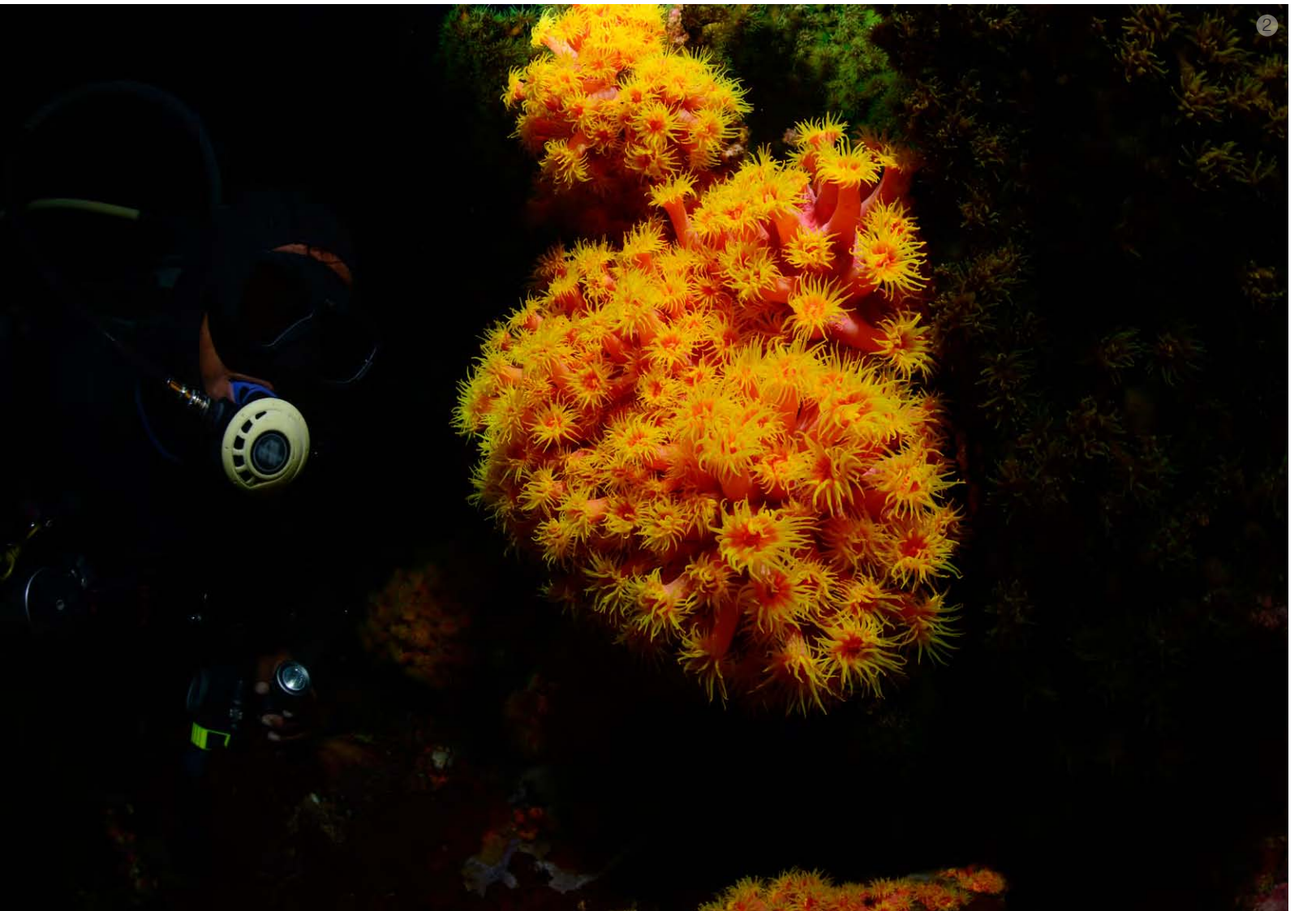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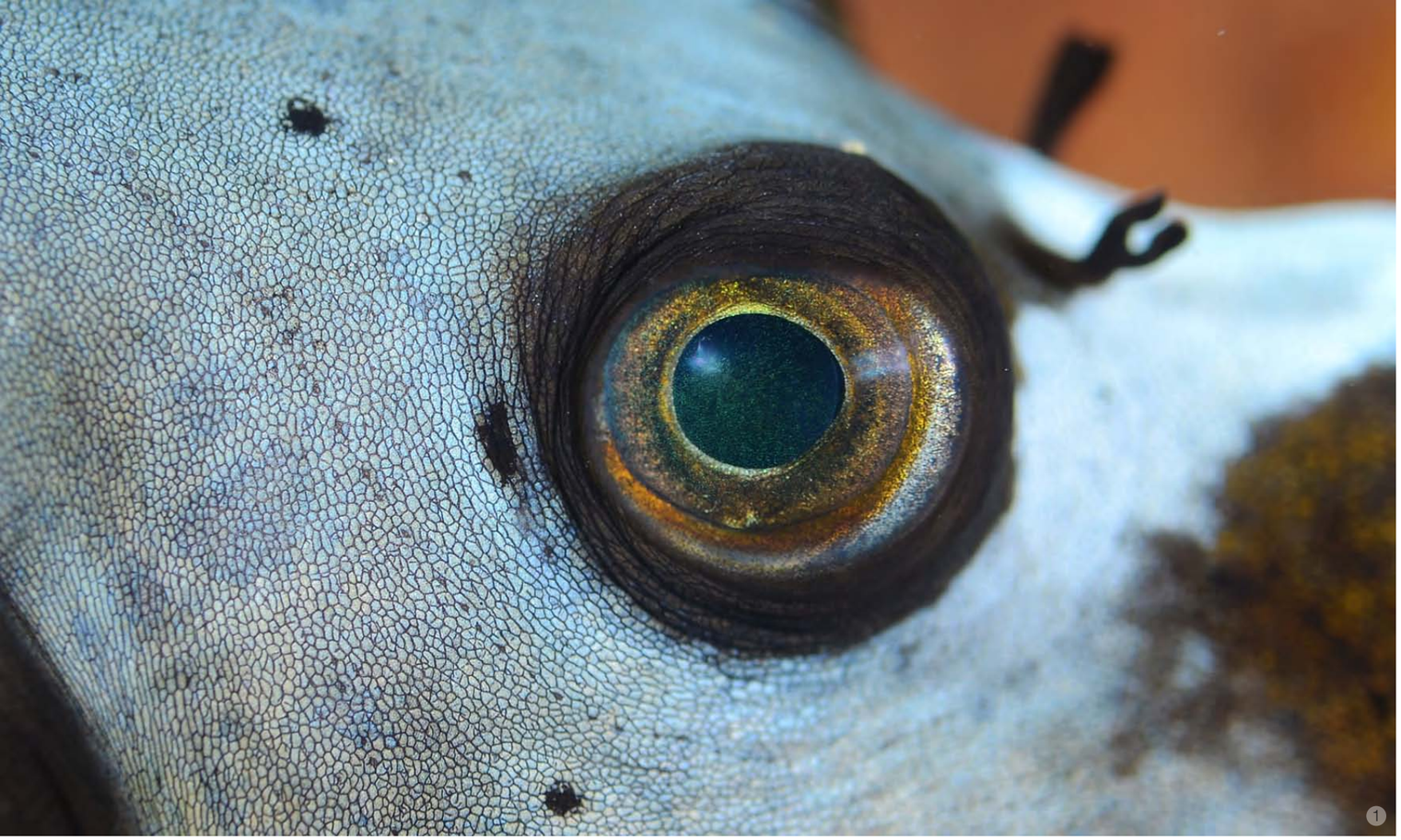
다이빙을 배우고 레벨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교육단체에서는 어드밴스드 코스(Advance course)에 야간 다이빙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간에 볼 수 없었던 생물이나 생태 등을 특징적으로 관찰 할 수 있고 그것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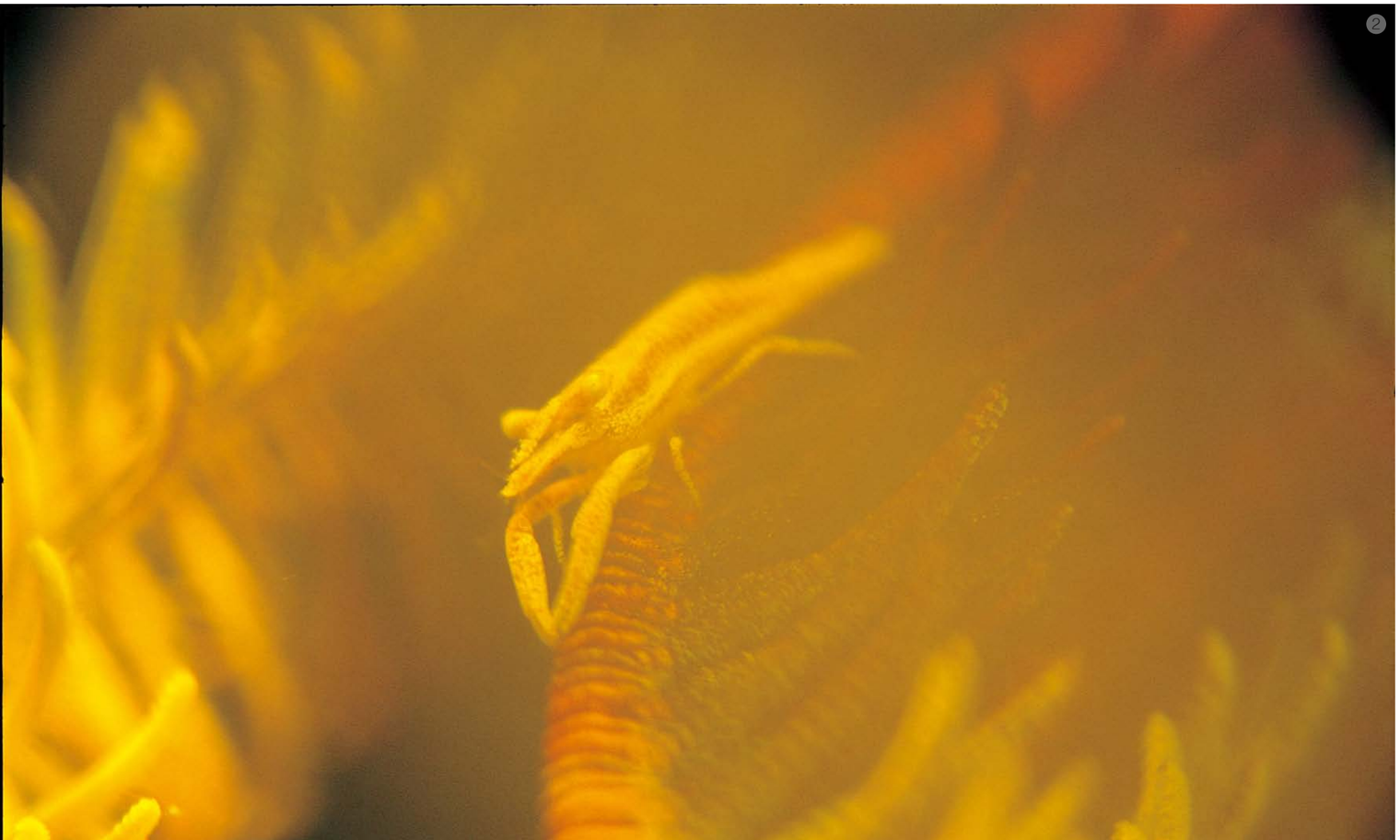
수중촬영에서 야간 다이빙은 주간에서 보지 못하는 장면이나 생물들을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그로인해 많은 수중 촬영가들은 야간다이빙을 즐기게 된다. 카메라를 들고 야간다이빙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야간다이빙보다 안전을 위한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야간다이빙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라이트와 카메라를 동시에 손에 들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카메라하우징에 타켓 라이트를 붙여서 야간다이빙의 가이드 라이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타켓 라이트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우 등의 유어들이 모여들어 촬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켓 라이트 없이 야간촬영이 불가능하므로 하우징에 장착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와 밝기의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출시된 가이드 라이트는 크기가 작으면서도 꽤 밝은 라이트가 많으므로 필자 생각에는 가볍고 밝은 가이드 라이트와 너무 밝지 않은 하우징의 타켓 라이트를(너무 밝으면 사진에 영향을 주고 작은 새우 등의 여러 가지의 미세 생물들이 모여들 수 있음)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2 인공광(스트로브광)만의 라이팅으로 아주 간결한 표현이 가능하며, 야간촬영은 위 사진처럼 산호의 폴립이 만개 한 것을 프레임에 담을 수 있었다.



1,2 모델 촬영(foreground 촬영)은 야간다이빙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모델의 얼굴과 피사체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얼굴이 잘 나오도록 3번처럼 강한 빛으로 조광하면 피사체가 과노출 될 수 있고, 4 번처럼 피사체에 노출을 맞추면 모델 얼굴의 광량부족이 생길 수 있다.
3 모델의 얼굴과 피사체와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조광을 위해 필자는 얼굴 쪽으로 향하는 제 3의 광원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야간촬영의 목적은 주간에 얻을 수 없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야간에만 나타나는 생물들도 있고, 산호나 말미잘 등에 공생하는 생물들이 주간에는 숨어 있다가 야간에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생새우나게 등의 마크로 촬영에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는 야간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으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하므로 물고기 눈만을 확대하여 찍는 경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 야간다이빙은 이런 이유에서 접사 촬영을 하게 되는데 필자는 몇 해 전에 광각촬영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흔히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 광각촬영의 장점은 순수한 인공광만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주간촬영과 좀 다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으며, 스트로브 광에 의한 간결한 표현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으로써 표현하려고하는 소재를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큰 장점은 피사체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야간에 촬영하여야 원래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몇몇 산호는 야간에 주로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야간다이빙으로 산호 특유의 모습을 관찰하며 프레임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1 야간 다이빙의 장점 중 하나는 물고기에 촬영자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며 주간에 촬영하기 힘든 물고기의 눈을 클로즈업 할 수 있다.(촬영자: 최성순)
2 야간에는 바다나리 공생새우의 촬영은 바다나리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용이하다.

조진생
수중사진 칼럼리스트
대전 을지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필리핀 아닐라오의 최고급 다이빙 리조트

Monte Carlo Resort

대표 손의식 강사

+ 마닐라 공항에서부터 모든 서비스 시작!
+ 아일랜드 호핑, 피크닉 다이빙, 요트 세일링 투어 가능
+ 최적의 조건을 갖춘 다이빙 포인트
+ 고품격 다이빙 여행과 골프 여행
+ 다이빙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장비 완벽 구비!
  (총 50여 세트의 렌탈장비, 100여개의 탱크와 대형 콤프레서)
+ 체험 다이빙과 오픈워터 다이버 교육 가능
+ 전용 수중카메라룸 구비

Bray. Majuben, Mabini, Batangas, Philippines
http://cafe.daum.net/montecarloresort
070 8285 6306 / (63)919 301 5555 / (63)918 311 4444

CAMARO
www.camaro.at
CAMARO
www.diversmall.com

외장 스트로브의 TTL 촬영과 매뉴얼 촬영

Compact Digital Photography

외장 스트로브를 이용하여 수중촬영을 할 때 스트로브의 광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각도가 적합하다 하더라도 광량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사진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지요. 외장 스트로브의 광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매뉴얼로 직접 조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TTL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촬영모드나 피사체에 따라 스트로브의 광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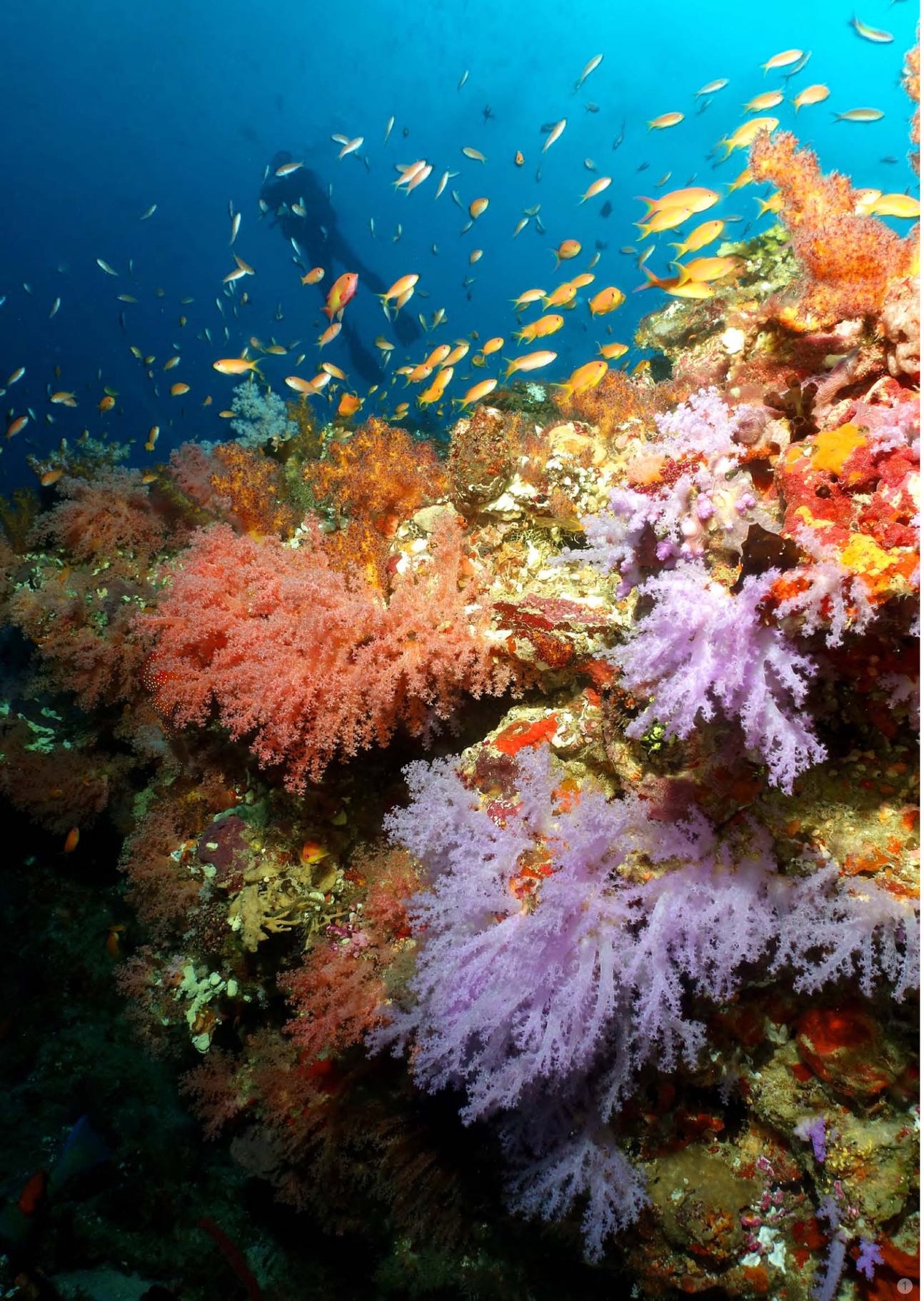
사진을 촬영할 때 스트로브를 사용하면 조절하여야 하는 것이 많이 늘어납니다. 수중촬영을 할 때 외장 스트로브를 사용하면 유리한 장점도 많지만 수중사진가는 스트로브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로브는 순간적으로 강한 빛을 발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조리개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이 크면 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또한 빛에 대한 센서의 반응도이 ISO가 높으면 적은 빛으로도 충분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로브의 빛은 순간적으로 발광하기 때문에 셔터스피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SLR은 셔터막의 형식 때문에 1/200정도 이하의 셔터스피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는 셔터스피드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중전용 스트로브의 대부분은 수동으로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매뉴얼 기능과 함께 자동으로 광량이 조절되는 TTL 기능를 가지고 있습니다. TTL 기능은 스트로브가 카메라와 연동하여 피사체의 거리에 적합한 광량을 설정된 조리개와 ISO 값에 맞추어 발광하는 것입니다.

스트로브의 빛은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에 반비례 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광량이 적게 필요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광량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진을 촬영하는 상황에 따라 거리는 계속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스트로브의 발광량을 조절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스트로브의 발광량은 조리개 값과 ISO 값에 비례합니다. 같은 거리에서 조리개를 한 스텝 열면 광량은 반으로 줄여야 하고, 반대로 한 스텝 조이면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ISO도 마찬가지로 고감도로 가면 스트로브의 광량을 줄이고, 저감도로 설정하면 광량을 늘려야 하지요. 다행이 스트로브의 광량은 셔터스피드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는 참 많지만, 조리개와 ISO값을 고정한 상태에서는 거리만 감안하여 광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카메라 제조회사에서 제작한 전용 스트로브를 육상에서 사용할 때는 TTL 모드가 상당히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물론 피사체의 상황에 따라 광량을 가감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앞 페이지) 야간다이빙에서 산호 아래에 숨어 자고 있는 앵무고기를 2개의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촬영한 사진, SONY RX100, Patima housing, UN wide conversion lens, YS-D1 strobeX2, M mode, f5.6, 1/250s, ISO 100 **1** 두개의 스트로브를 매뉴얼 모드로 설정하여 각각 발광량을 설정하여 촬영한 사진, SONY RX100, Patima housing, YS-D1 strobeX2, UN wide conversion lens, M mode, f2.5, 1/40s, ISO 400 **2** 야간다이빙에서 하나의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설정하여 마블레이를 촬영한 사진. SONY RX100, Patima housing, UN wide conversion lens, YS-D1 strobe, M mode, f4, 1/200s, ISO 100



1

2

3

4

있습니다. 스트로브에서 광량을 가감할 수 있으며, 카메라에서 스트로브의 광량을 가감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된 값에 따라 제조사의 고유방식에 따른 TTL 기능을 이용하여 필요한 광량을 적절하게 발광해 줍니다. 전용스트로브를 하우징에 넣어 수중촬영에 이용하면 편리하게 TTL을 사용할 수 있지만, 카메라와 외장 스트로브와의 연결을 카메라의 스트로브 슈의 X-접점을 통하여 전용코드로 연결을 하여야만 합니다. 하이엔드급의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에는 X-접점을 통하여 스트로브와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X-접점이 없는 카메라나 요즈음 많이 사용하는 광케이블로 동조하는 하우징에는 전용 스트로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내장 스트로브는 대부분 TTL 기능으로 광량을 조절하지만, 기종에 따라서는 촬영 모드에 따라 TTL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Canon의 경우에 대부분의 촬영모드에서 TTL 기능이 지원되지만, M모드에서는 TTL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수중촬영에 많이 사용되었던 S100이나 G12는 P모드나 A모드에서는 내장 스트로브의 TTL 기능이 지원되지만, M모드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SONY RX100은 M모드에서도 TTL이 지원이 되므로, M모드로 수중촬영을 하면서도 TTL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촬영하기

이 방법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촬영모드에 따라 스트로브의 TTL을 지원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외장 스트로브는 카메라에 의하여 TTL을 통제받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Canon 계열의 카메라를 사용한다면 M모드를 사용하지 말고 A나 P모드를 사용하여야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TL 기능을 사용하면 카메라가 설정된 상황과 피사체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발광량을 조절하여 주므로, 수중사진가는 스트로브 광량 조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훨씬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중사진가는 적당한 물색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를 조절하여 노출을 맞춥니다.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설정하고, 스트로브의 위치와 조사각을 조절한 뒤, 구도를 잡고 초점을 맞춘 뒤 셔터를 눌러 촬영하면 되지요. 피사체의 거리와 카메라의 조리개 값 등에 알맞게 스트로브의 광량은 자동으로 맞추어진다. 촬영한 뒤 LCD 창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TTL 보정이 필요하면 광량을 조절하여 몇 장 더 촬영하면 된다. 가급적 사진을 확대하여 초점, 광량, 백스케터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광케이블을 통한 동조에서 외장 스트로브의 TTL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스트로브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개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광각촬영 시 가급적 매뉴얼 모드로 외장 스트로브를 사용합니다. 접사촬영은 피사체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앵글이 조금만 바뀌어도 거리의 변화가 커지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접사촬영 때는 스트로브를 TTL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접사촬영은 원하는 순간을 잡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촬영을 하며 찰나를 노리므로, 스트로브는 TTL 모드로 촬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스트로브를 매뉴얼 모드로 촬영하기

이 방법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메라가 선발광(Pre-frash)을 하는 타입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Canon의 S100 시리즈는 선발광을 하지 않으며, SONY의 RX100은 선발광을 합니다. 이에 맞추어 스트로브의 발광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로브는 발광하는데 스트로브 빛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발광모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조리개를 조이고 가까운 피사체를 풀발광으로 촬영해보면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Sea & Sea의 스트로브는 매뉴얼1 또는 이중번개 표식이 선발광 모드이며, 매뉴얼 2 또는 하나의 번개 표식이 선발광을 하지 않는 모드입니다. Inon의 스트로브는 자석을 이용하여 선발광을 선택하는데, S2000은 자석

1 Sea & Sea의 YS-D1 스트로브의 전면과 뒤면 콘트롤 판넬. 두개의 번개표시로 매뉴얼 선발광 모드를 표현하고 있다. **2, 3** Inon의 Z-240과 S2000의 콘트롤 판넬 **4** 두개의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설정하고 촬영한 Cristmas tree worm. SONY RX100, Patima housing, Inon 165+330M67 micro conversion lens, YS-D1 strobeX2, M mode, f11, 1/200s, ISO 200

을 넣지 않으면 선발광 모드가 되며, Z240은 스위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스트로브를 매뉴얼 모드로 설정하였으면, 물색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노출값으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조리개 값과 피사체와의 거리에 적당한 스트로브의 발광량을 조절 레버를 돌려 선택합니다. 스트로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풀발광부터 단계적으로 광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스트로브의 적정 발광량을 찾아 설정한다. 스트로브의 광량을 말하는 가이드 넘버(GN)가 클 수록 밝은 스트로브입니다. 거리에 적당한 발광량을 계산하는 공식과 도표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는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풀발광으로 설정하여 테스트 촬영을 한 후, LCD 모니터를 보면서 스트로브의 광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아요. 백스케터의 발생여부와 조사각도 적당한 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 조리개 값과 거리에 적당한 스트로브의 광량을 어림할 수 있겠지요?
스트로브를 매뉴얼 모드로 촬영하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몇 가지 패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로 국내에서 촬영할 때는 ISO 400, f4, 피사체와의 거리가 1m일 때 적정의 스트로브 발광량을 기억합니다. 해외에서는 ISO 100, f8, 피사체와의 거리가 1m일 때 적정의 스트로브 발광량을 기억합니다. 이 데이터는 수중촬영을 하는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국내바다는 해외 바다보다 어둡기 때문에 ISO를 올리고 조리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색을 맞추기 위하여 노출을 조절하는 것은 셔터스피드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피사체와의 거리가 1m에서 반으로 줄어 50cm가 되면 광량을 반으로 줄이고, 거리가 2m가 되어서 두 배로 늘어나면 광량도 두배로 늘이면 되지요.

외장 스트로브를 처음 매뉴얼 모드로 사용하면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외장 스트로브를 사용하면 우선 TTL 모드로 사용하면서 감을 익히고, 좀 더 익숙해지면 매뉴얼 모드로 사용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광각사진에서는 매뉴얼 모드의 장점이 매우 큽니다. 다양한 사진의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모드이던지 간에 촬영한 사진을 보고 스트로브의 광량을 조절하여 다시 촬영하여야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두개의 스트로브를 TTL 모드로 설정하여 촬영한 할리퀸 스위트립. 스트로브가 다소 강하게 발광이 되어 스위트립의 밝은 부분이 노출과다가 되었다. SONY RX100, Patima housing, UN wide conversion lens, YS-D1 strobeX2, M mode, f5, 1/100s, ISO 200

정상근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
BSAC Instructor Trainer

매년 동해시 전국수중경관 촬영대회가 개최되는 곳
자연짬, 인공어초, 다이버들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포인트
주의보가 내려도 다이빙이 가능한 전천후 다이빙 포인트 보유
단체 다이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 보유

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3번지 5통 6반 대표: 김삼규
전화: 033-521-9839, 011-306-1082
http://cafe.daum.net/happyhaejuk/

행복한 해적

1. 전 포인트 하강라인 설치
2. 최적의 오픈워터 다이빙 포인트(7~15m)
3. 비치 다이빙 가능
4. 촬영하기 좋은 환경과 풍부하고 다양한 어류
5. 대진 해수욕장과 붙어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지
6. 숙식, 다이빙 일체 100명 수용 가능
7. 다이빙 전용풀이 있는 영덕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대진리조트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대진 146번지(대진해수욕장) 대표: 최억
전화:054-732-7800, 054-733-1382, 010-3539-7800, 홈페이지: http://www.djscuba.co.kr/

임규동의

DSLR GALLARY

유리병 속의 팽블레니(Fang Blenny)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8, 1/100, ISO200**

기타 장비 : **Snoot, Torch light**

버려진 유리병에 살고 있는 팽블레니의 촬영을 위해 유리병 반대편에 Torch light를 조사하였고, 유리병색의 표현을 위해 조리개를 개방해서 촬영하였습니다. 다행이 고기가 호기심이 많아 즐거운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리퀸 고스트 파이프피쉬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25, 1/125, ISO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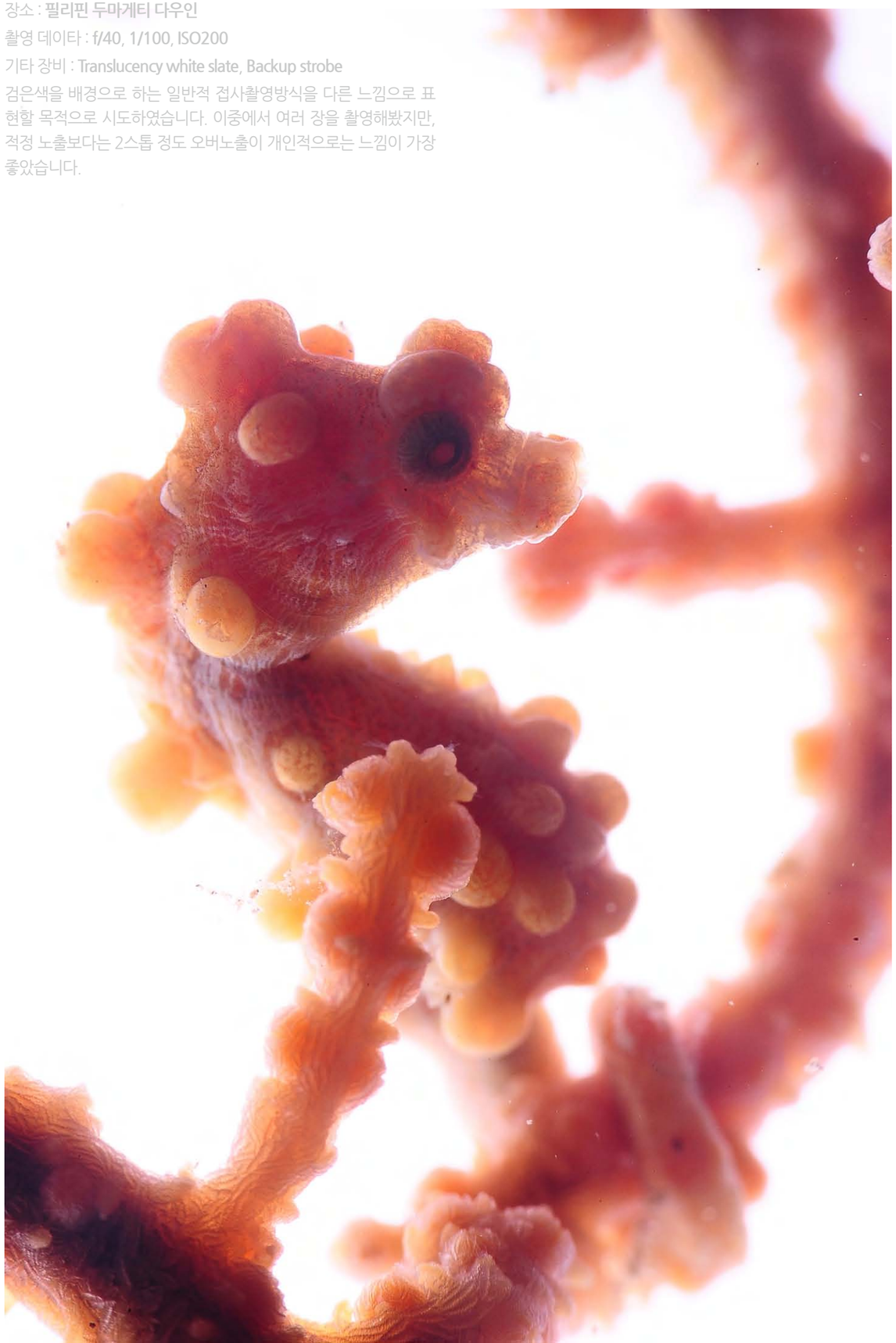
피그미해마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40, 1/100, ISO200

기타 장비 : Translucency white slate, Backup strobe

검은색을 배경으로 하는 일반적 접사촬영방식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목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여러 장을 촬영해봤지만, 적정 노출보다는 2스톱 정도 오버노출이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가장 좋았습니다.



롱노즈호크피쉬의 보케 효과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5, 1/320, ISO200

기타 장비 : Snoot

피사체눈동자의 집중효과를 연출하려고 보케(Bokeh) 효과를 이용하였습니다.

회초리산호 공생새우와 광섬유 백라이트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11, 1/125, ISO200**

기타 장비 : **Snoot, Optical-fiber, Torch light**

밋밋한 접사에 배경 라이트를 보이도록 하여 그로 인해 주 피사체가 돋보이도록 할 목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과정에서 힘든 점은 움직이는 피사체 때문에 배경 라이트의 위치를 계속 바꿔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스늣(Snoot)까지 같이 따라 움직이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얕은 수심에서의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촬영 시 유의할 점은 부드러운 배경 라이트의 표현을 위해 조리개의 개방이 필요합니다.

바다나리 공생새우와 광섬유 백라이트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16, 1/125, ISO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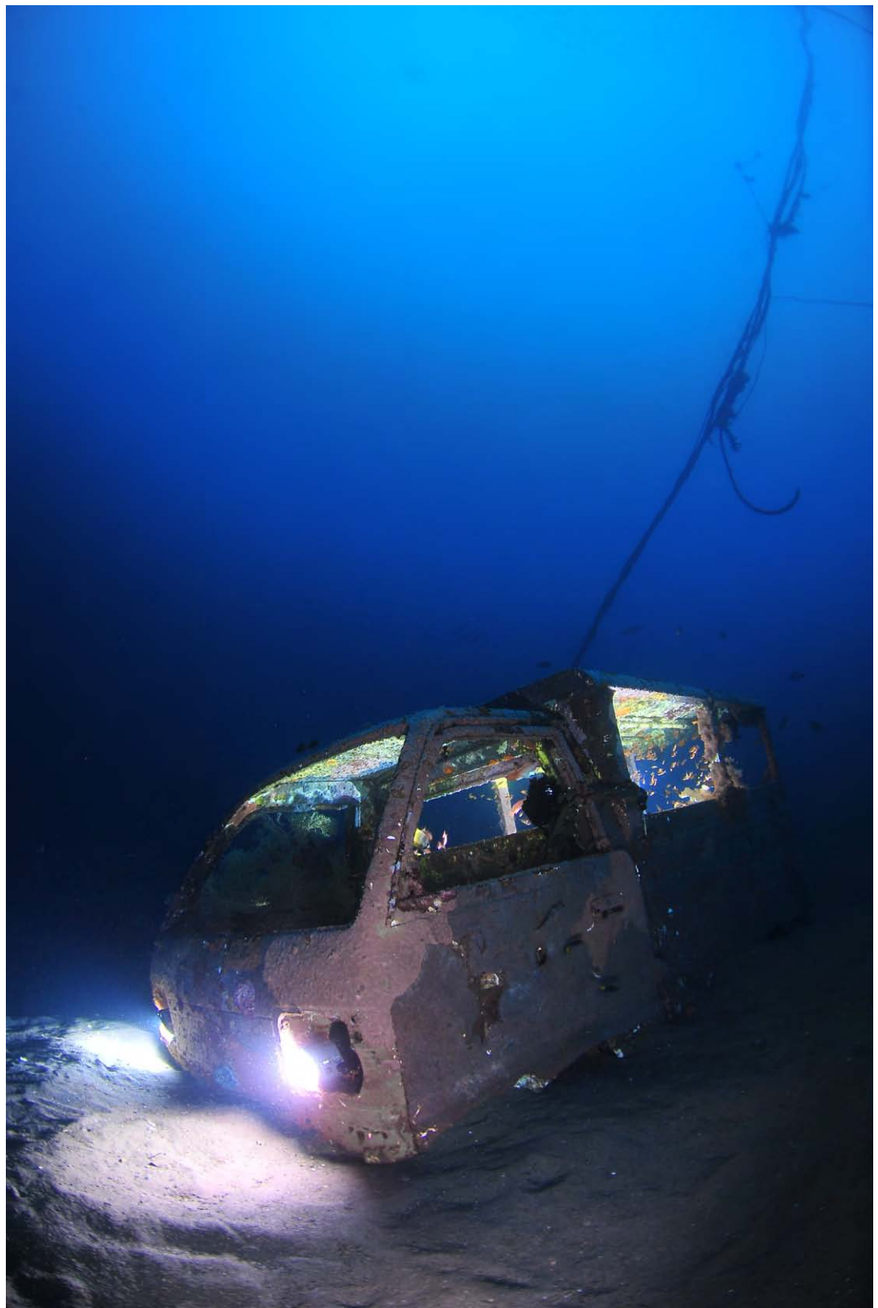
트럭 - 공동작업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8, 1/100, ISO400

기타 장비 : Video Light, Remote strobe 다수.

기획에서 연출까지 여러 작가들과 의기투합하여 만든 공동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위해 여러 작가들의 스트로보가 동원되었고, 수심이 깊고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작업? 이라 더욱 애착이 가는 작품입니다.



광각 스늣

장소 : 인도네시아 말루쿠 암본

촬영 데이타 : f9, 1/80, ISO200

기타 장비 : Snoot

접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Snoot을 광각에 적용한 샷입니다. 촬영 팁으로는 Dynamic range를 줄여야 배경의 실루엣을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황제새우의 스눗촬영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18, 1/125, ISO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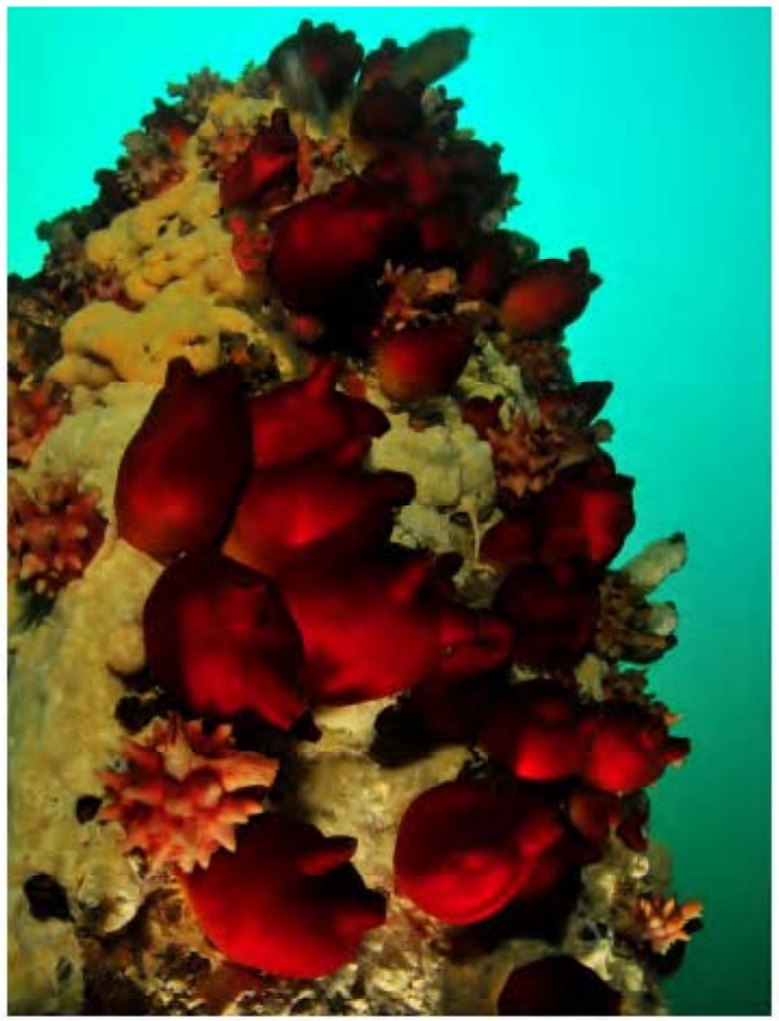
갯민숭달팽이의 스눗촬영

장소 : 필리핀 두마게티 다우인

촬영 데이타 : f18, 1/100, ISO200

기타 장비 : Snoot

일반적 스눗샷



▸ 어초/자연짬/난파선 포인트 안내
▸ 체험 다이빙/오픈워터 해양실습

▸ 테크니컬 다이빙/강사교육
▸ 강의실과 스태프 숙소 완비
▸ 나이트록스/트라이믹스 블랜딩

영진 아쿠아존 리조트

http://yjaquazone.co.kr/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18-5 대표 김창문
전화: 033-662-8300, 010-9058-9933

다이빙 상해보험

www.diveassure.com/new/kr

ScubaNet

스쿠버넷과
함께하는
장비점검

“다이빙 장비, 지피지기면 안따즐따”

제 2 편 카메라 하우징 관리하기

Part 1 침수, 경험해 봤나요?

수중사진세미나 초급과정 중에 정상근 교수님께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다이버가 있어요. 침수를 겪어본 다이버와 침수를 겪어볼 다이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웃음을 빵 터뜨리지만 내심 불안한 듯 곧 찜찜한 표정이 된다.
나는 침수를 겪어본 다이버다. 그렇다고 앞으로 또 침수를 겪지 않으리란 보장은 물론 없기에 마음 한 구석에 침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몇 대를 해먹었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 수중사진과 침수는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지도 모르겠다.
침수를 피하려면 하우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오버홀은 언제 받아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칠까? 함께 자세히 살펴보자.

필자의 Canon S100 카메라 및 파티마 하우징, 침수 전

침수의 기억

필자의 침수 경험은 이러하다. 개인적으로 2012년의 하이라이트로 꼽는 코모도에서의 2주간의 다이빙이었다. 첫째 주는 데이트립으로 즐겼고 둘째 주는 리브어보드로 보다 찐하게 코모도 다이빙을 즐겼다(코모도에서의 어메이징한 다이빙에 대한 내용은 스쿠버넷 매거진 2012년 10월호를 참조하시라!). 리브어보드 다이빙의 둘째 날 선셋 다이빙이었다. 입수 후 하강 지점을 향해 수면에서 이동하는데.. 무언가 느낌이 싸했다. 하우징을 보니 잠금 걸쇠가 안 잠겨 있었다. 순간 뒷골이 찌릿찌릿함을 느끼며 번개같이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우징을 물 밖으로 들어올렸지만 하우징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마스크 안으로 필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렀다. 사실 카메라가 고장 난 것보다 남은 리브어보드 기간 동안 사진을 찍지 못하는 것이 더욱 마음이 아팠다. 오래 전부터 큰 기대를 했던 투어였으니 말이다.

침수 후의 모습, 하우징 안에 물이 가득했다

왜 침수가 됐을까?

필자가 물 속에서 본 상황은 오른쪽 걸쇠가 안 잠겨 있었다는 것이었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잠근 경우 걸쇠가 스스로 열릴 수 없다. 그리고 걸쇠를 열기 위해 가하는 힘을 생각할 때 약한 충격에 의해 열릴 수도 없다. 결론은? 필자가 제대로 안 잠그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름대로 꼼꼼히 관리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수 없지만 실수를 한 것이다. 스스로를 절대 과신하지 말자. 자신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침수를 당한 우리의 마음가짐

침수 후, 카메라와 하우징을 보트로 넘겨주고 계획대로 다이빙을 진행했다. 물론 머릿속에는 온통 카메라 생각이었고 왜 그랬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되짚어 보느라 눈앞에 펼쳐진 물 속 풍경을 제대로 즐기지 못 했다. 다이빙을 마치고 나와 아무리 살펴봐도 카메라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했고 손써볼 여지가 전혀 없었다. 나는 코모도 국립공원 바다 한 가운데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즐기기로 마음 먹었다.

처음에는 카메라 없이 다이빙을 하려니 심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너무 편해졌고 더 천천히, 자세히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구멍에 쏙 들어간 채 머리를 빼꼼히 내밀고 입만 움직이는 블레니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 했고 가볍게 춤추는 안티아스 무리의 움직임은 마치 오선지 위의 음표인 냥 실로폰 연주가 들리는 듯 했다. 트레발리의 푸질리어 사냥 장면을 코 앞에서 지켜볼 땐 씩씩거리며 거칠게 내뱉는 트레발리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듯 했다. 카메라가 없으니 이동하는 만타도 쫓아가서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다. 만타와눈을마주하는 순간에는 물론 카메라 생각이 간절했지만 LCD 모니터가 아닌 두 눈으로 바라보는 바다는 분명 더 경이로웠다. 수중사진은 분명 우리의 다이빙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오래기억하고간직할수있게해준다.하지만어쩔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면 있는 그대로를 즐기자. 어쩌면 보 다 강한 인상과 여운을 남기는 다이빙일 될지도 모른다. 바다는 항상 놀라운 곳이니까.

Part 2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하우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오링 관리 |

오링 피커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오링을 뺀 후, 손가락에 구리스를 조금 묻혀 얇게 펴바른다. 구리스를 바르며 오링에 스크래치나 상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리스는 오링에 윤기가 날 정도로 얇게 바른다.
오링이 들어갈 홈을 면봉이나 먼지가 나지 않는 휴지를 이용해 깨끗이 닦은 후 오링을 삽입한다.

| 카메라 세팅 |

카메라가 하우징에 올바로 들어가게 한다.
하우징 커버를 닫기 전 머리카락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끼지 않는지 확인한다.
카메라를 넣은 후에는 각 버튼의 조작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 오버홀 |

1년마다 정기적인 오버홀을 통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오링 등 소모품을 교체하여 늘 새 것과 같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 사용 후 |

투어 중에는 다이빙이 끝난 후 하우징을 민물에 30분 이상 담가 염분을 제거한다. 하우징을 물에서 꺼내기 전에 각 버튼을 여러 번 눌러주어 버튼 사이의 염분을 제거한다.
민물에 하우징을 담가두기 어려운 경우 젖은 수건으로 하우징을 덮어두어 하우징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한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하우징을 열어 카메라를 뺀다.
투어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는 욕조에 물을 받아 하우징을 12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 염분이 제거되게 한다.
1년에 1회 오버홀을 통해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오링 등 소모품을 교체한다.

결로가 생긴 카메라로 찍은 사진

폴리카보네이트 하우징 최대의 약점, 결로 예방하기

가볍게 사용하기 편리한 폴리카보네이트 하우징은 결로가 생기기 쉽고 열과 충격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결로를 예방하기 위해 카메라를 하우징에 넣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하우징은 가급적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서 여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리카겔을 넣을 때 하우징 내 여유공간에 잘 들어갔는지, 렌즈나 버튼 조작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세팅 후 포인트로 이동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수건 등으로 덮어두거나 물 속에 담가둔다.

Part 3 하우징 오버홀

㈜파티마엔지니어링에서 오버홀을 하는 모습

평소 하우징을 잘 관리한다 해도 사용을 하다 보면 적당한 타이밍에 세척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버튼이 잘 안 눌리게 된다. 이럴 때는 오버홀을 통해 전체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번 오버홀을 통해 전체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위한 방법이다.

사실 필자는 그 동안 침수된 하우징을 방치해두었다. 침수 직후 카메라에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살려보려 애쓰느라 하우징의 상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민물에 한번 헹구어 보관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번 기사를 준비하며 오버홀을 받으러 (주)파티마엔지니어링을 찾았다. 짧은 사용기간을 말씀 드리니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 하시며 오버홀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게 왠 걸. 여기 저기 쉽게, 정상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부품들이 있었고 전체 오버홀을 받아야 했다. 바닷물의 놀라운 영향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파티마엔지니어링에서 이뤄진 Canon S100 하우징 오버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오버홀 과정

점검: 사용기간과 특이사항, 외형 및 작동 사항을 점검하여 전체 오버홀을 할지 부분 오버홀을 할지 결정한다. 필자의 하우징의 경우 부분 오버홀로 예상하고 분해를 시작했지만 분해 중에 전체 오버홀을 하기로 변경하였다.

분해: 먼저 하우징 전면을 작업하고 후면을 작업한다. (주)파티마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전용공구를 이용해 분해 작업을 한다. 분해를 하며 문제의 여지가 있는 부품은 제거한다. 필자의 하우징에서는 휘어진 축, 녹슨 스프링 등이 나와 사용불가로 분류되었다.

세척: 하우징 내부의 구멍은 모두 면봉에 구리스를 발라 세척하고 부품들은 전용 세척액에 약 30분간 담궈 세척한다.

조립: 세척 후의 깨끗해진 부품과 교체된 부품들로 조립을 한다. 분해 과정과 마찬가지로 전용 공구와 토크 드라이버 등이 사용된다.

수압테스트: 조립이 끝난 하우징은 수압테스트를 통해 제대로 방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수조에 하우징을 넣고 밀폐시킨 후 일정 압력이 될 때까지 물을 가한다. 20m, 50m, 70m의 수압에서 방수테스트를 한다.

사용테스트: 수압테스트를 거친 하우징은 실제 카메라를 안에 넣고 모든 버튼과 레버들이 편안히 조작되는지 확인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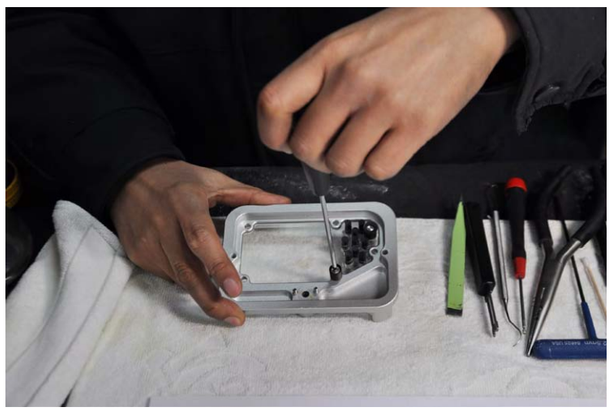
2

3

4

5

6


7

8

9

1 오버홀에 사용되는 전용 공구들
2 분해과정: 부품 틈으로 소금 결정이 보인다
3 오링은 모두 절단하여 교체한다
4 분해 후, 세척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품들
5 구석구석을 구리스로 닦아 준다
6 전용 세제로 부품을 세척한다
7 조립과정
8 수압테스트
9 사용테스트

기계 가공으로 부품을 만드는 모습

파티마, 수중세계를 담는 공장

이 날 필자는 파티마 공장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다. 하우징을 직접 제조하는 (주)파티마엔지니어링에서는 오버홀 과정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가공하여 사용한다. 선반과 밀링 머신을 이용해 직접 알루미늄을 가공해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사 머리가 마모된 경우 그것을 풀지 못하면 하우징 전체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파티마에서는 나사를 뚫고 더 큰 지름으로 나사산을 만든다. 제조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다. 부품 수급이 어려운 오래된 하우징을 오버홀하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부품을 가공해 사용한다. 하우징을 만드는 곳이니 오버홀 정도야 더 큰 자유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며

카메라와 하우징을 한번 장만하는 것으로 본인의 수중촬영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끝나지 않는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수중촬영장비로 인해 다이빙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위한 시작일 것이다.

카메라, 스트로브, 렌턴 등의 침수는 다이빙 중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철저하고 꼼꼼한 관리, 그리고 주기적인 오버홀을 통해 그 가능성을 낮추고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을 하자!

“다이빙 장비, 지피지기면 안따즐따.”

다이빙 장비, 지피지기면 안따즐따 페이스북 이벤트 2탄 예고!

1월에는 여러분의 재미있고 황당한 침수 경험담을 듣습니다.. 김기자처럼 어이없는 실수로 소중한 카메라를 침수시킨 경험을 스쿠버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쿠버넷 페이스북 주소

https://www.facebook.com/scubanetkr

ScubaNet

스쿠버넷과 함께하는 장비점검

한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

김철현
E: abysmch@nate.com
T: 010 3665 2255

정상우
마린마스터
W: scubaQ.net
E: goprokorea@gmail.com
T: 011 226 4653

박성수
고 다이빙
W: godiving.co.kr
E: godiving7@hotmail.com
T: 010 9053 83335

정회승
엔비 다이버스
W: nbdivers.com
E: nudiblue@hotmail.com
T: 02 423 6264

김수열
노마 다이브
W: nomadive.com
E: norna@nomadive.com
T: 010 7114 9292

송종윤
아쿠아렉스
W: e-aquarex.com
E: padipros@naver.com
T: 010 5230 6770

김현잔
베스트 다이브
W: bestdiver.co.kr
E: kim462311@naver.com
T: 010 9310 1377

위영원
씨씨 다이버스
W: ccdivers.com
E: wipro@naver.com
T: 010 3648 1886

강정훈
스쿠버 그린피스
W: scubamall.kr
E: james007@korea.com
T: 010 5256 3088

한민주
아쿠아마린
W: scubain.com
E: webmaster@scubain.com
T: 011 284 0393

서종열
다이버스 에듀
W: diversedu.com
E: webmaster@diversedu.com
T: 010 4173 4113

박현정
투씨 다이브
E: studioin00@hotmail.com
T: 011 280 9371

우인수
에버레져
E: wooinsu@hanmail.net
T: 010 3704 8791

임용우
고 다이빙
W: godiving.co.kr
E: godiving8@hotmail.com
T: 010 6317 5678

김진관
아쿠아마린
W: scubain.com
E: chingwan83@hotmail.com
T: 010 3000 4679

송관영
인투 다이브
E: ky70700@hotmail.com
T: 010 7419 9658

임욱션
블루 다이버스
W: bluedivers.co.kr
E: lws2201@naver.com
T: 010 3290 4653

이호빈
스쿠버 인포
W: scubainfo.co.kr
E: hobin@nate.com
T: 010 8731 8920

윤재준
잠실 스쿠버 풀장
W: jsscuba.co.kr
E: pipin642@nate.com
T: 010 6351 7711

김정미
PSI 스쿠버
W: psiscuba.com
E: jungmi@psiscuba.com
T: 010 6334 4475

박금옥
넵튠 다이브 센터
W: alldive.co.kr
E: neptune6698@gmail.com
T: 011 408 4837

김시광
불루존 스쿠버
W: bzscuba.co.kr
E: ksk1655@hotmail.com
T: 010 3110 0364

김용진
다이브트리
W: divetree.com
E: ygoll@ecoscuba.co.kr
T: 010 5216 6910

송규진
파아란 바다
W: paranbada.com
E: idbsea@paran.com
T: 010 9926 0140

주호민
서울 다이브 아카데미
W: seouldive.com
E: seouldive@naver.com
T: 010 9501 5928

스페셜 제안 – PADI 와 함께 다이빙 프로페셔널이 되세요

무료 PADI사전 강사 개발 코스를 여러분 지역에서 활동 중인 PADI 코스 디렉터와 상의 하세요 – 일반 코스 비용 **300,000 원** . 지금 PADI 강사가 되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지역의 PADI 코스 디렉터에게 연락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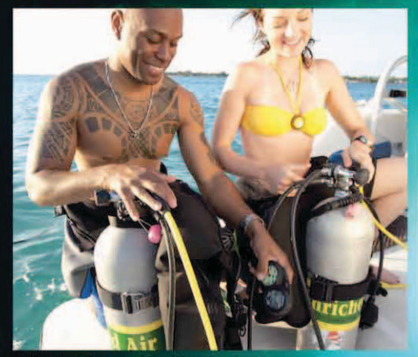
PADI
padi.com

자신감있게, 책임감있게, 또 준비된 자세로

다이빙을 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여러분의 연속 교육을 오늘 시작하기 위해 가까운 PADI 다이브 센터 또는 PADI 리조트를 방문하시어 상의하세요.

또는 padi.com/divecenterskorea 방문하세요.

PADI
padi.com

다음에서 PADI를 따라보세요:

제9회 빛흐름 수중사진전

지난 2012년 11월 9일~14일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빛과 물'이란 주제로 전시되었던 제 9회 빛흐름 수중사진전의 출품사진들 중에서 일부를 소개한다.

이종화 | 흐름2 |

곽용건 | 바다나리와 고비 | 좌

구자광 | 희망 | 우

김상욱 | 안식처 |

김인회 | 푸른바다물과 정어리빛 |

김학주 | 첫만남 |

송신재 | 쏠배감펭의 나들이 |

우종원 | 碧山2 |

이종화 | 흐름2 |

정혜심 | 태고의 빛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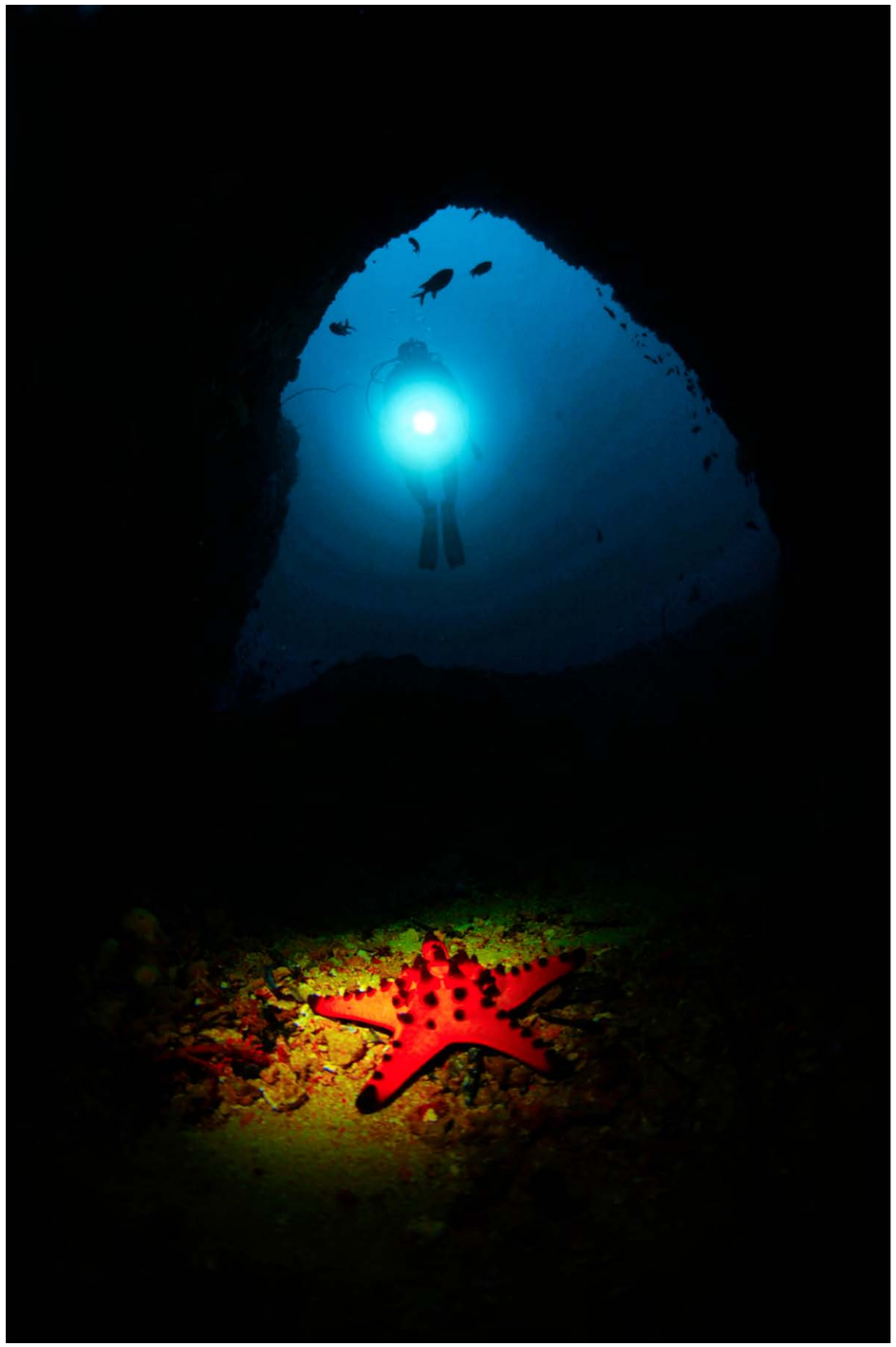
조진생 | 빛을 향하여 |

주　원 | 고래와 춤을 |

채상헌 | 은폐 |

최동용 | 세상을 향하여 |

최은주 | 빛과물의 선물2 |



곽용건 | 바다나리와 고비 |

구자광 | 희망 |

김상욱 | **안식처** | 좌상

김인회 | **푸른바다물과 정어리빛** | 좌하

김학주 | **첫만남** | 우

송신재 | 쏠배감펭의 나들이 |

우종원 | 碧山2 |

이종화 | 흐름2 |

정혜심 | 태고의 빛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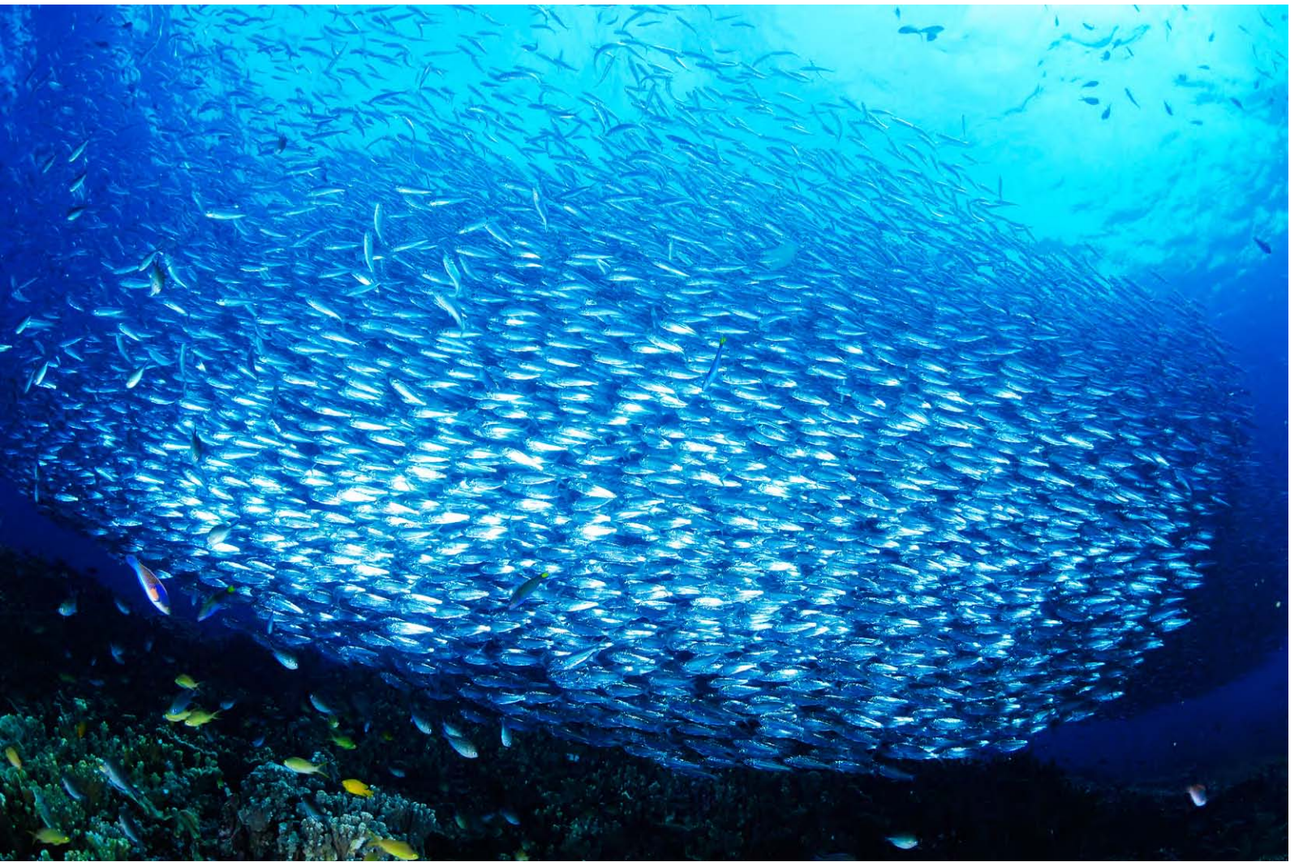
조진생 | 빛을 향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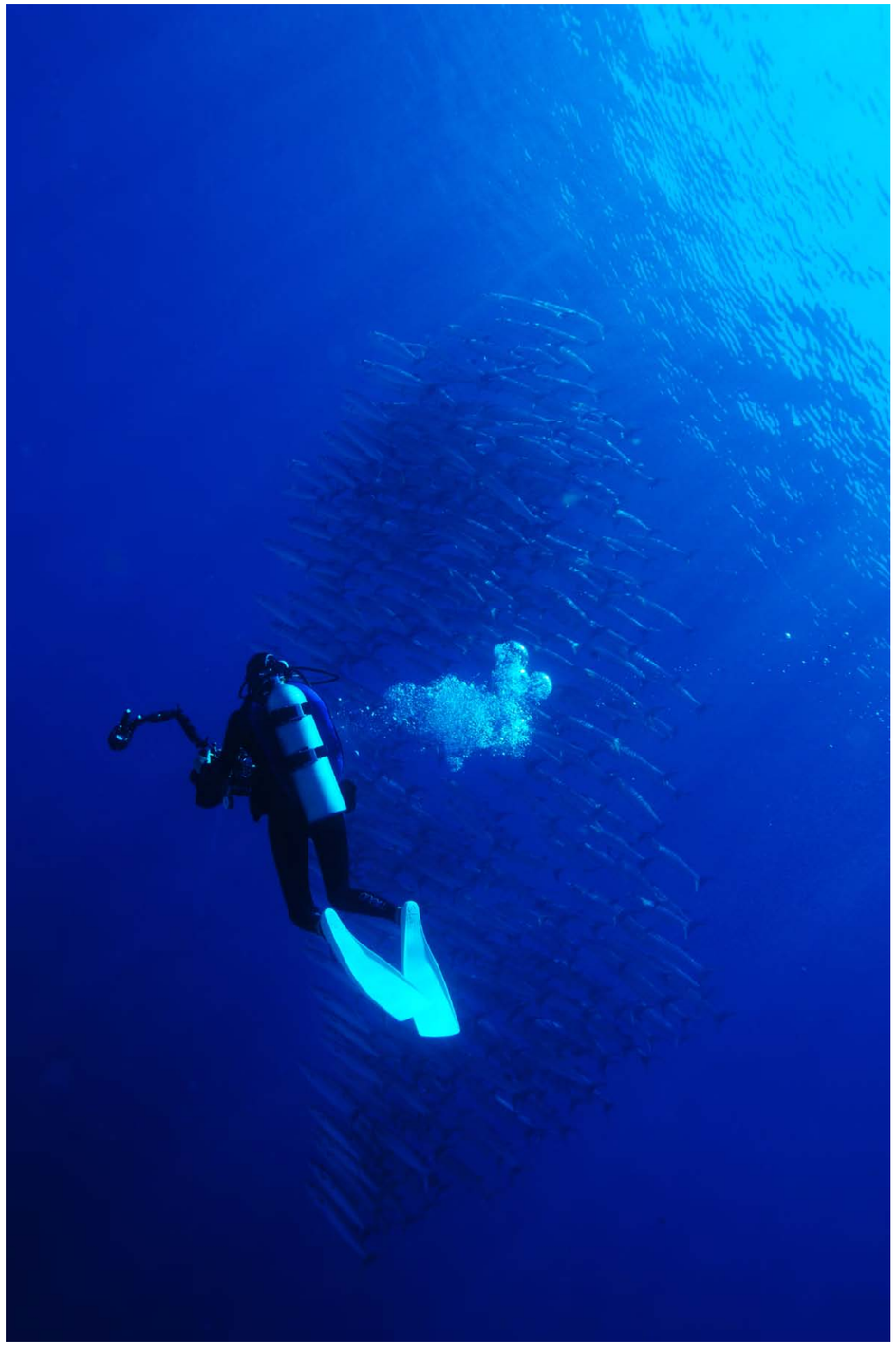
주　원 | 고래와 춤을 |

채상헌 | 은폐 |

최동용 | 세상을 향하여 |

최은주 | 빛과물의 선물2 |





곽용건 | 바다나리와 고비 | 좌

구자광 | 희망 | 우

김상욱 | 안식처 |

김인회 | 푸른바다물과 정어리빛 |

김학주 | 첫만남 |

송신재 | 쏠배감펭의 나들이 | 좌

우종원 | 碧山2 | 우

이종화 | 흐름2 |

정혜심 | 태고의 빛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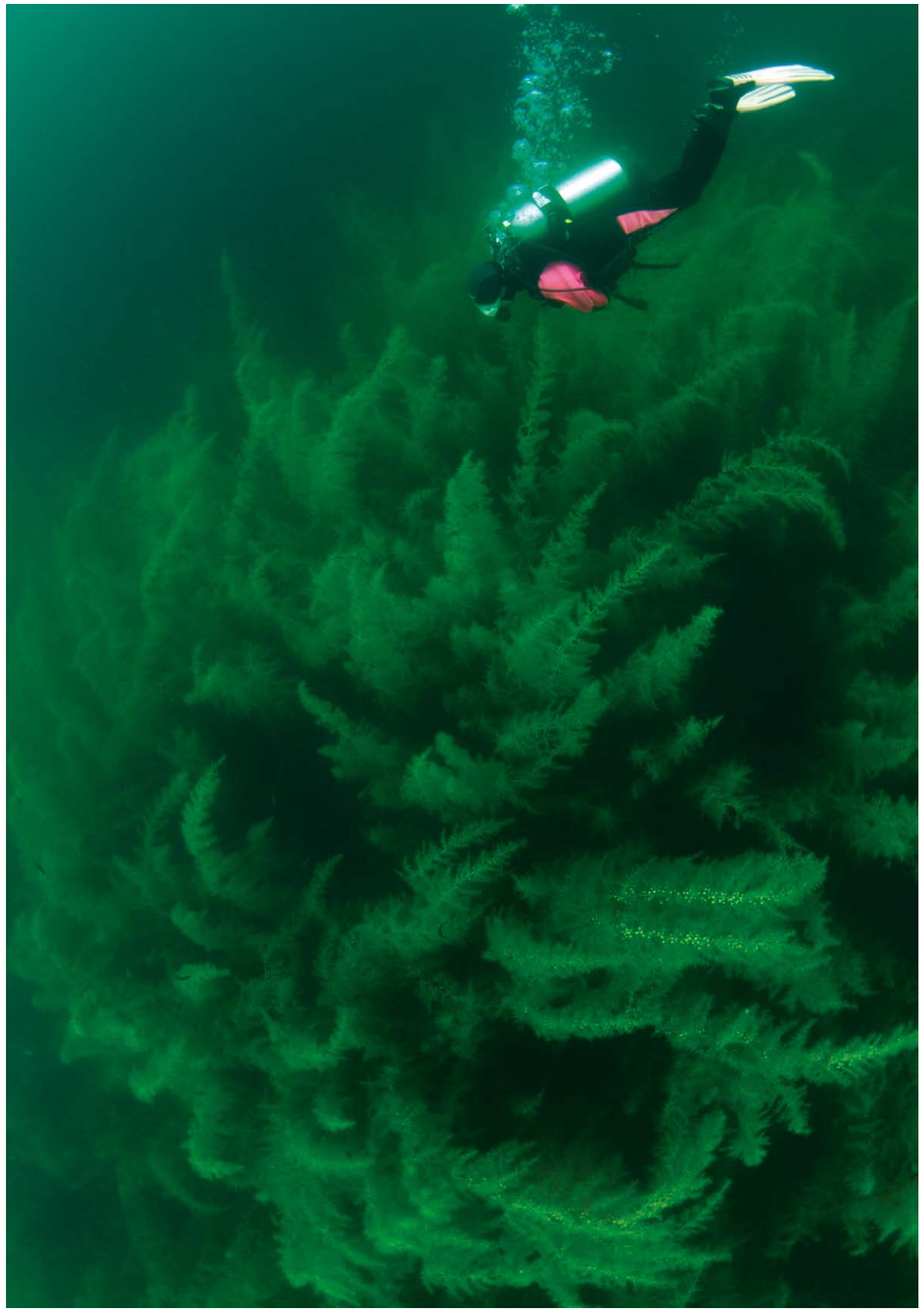
조진생 | 빛을 향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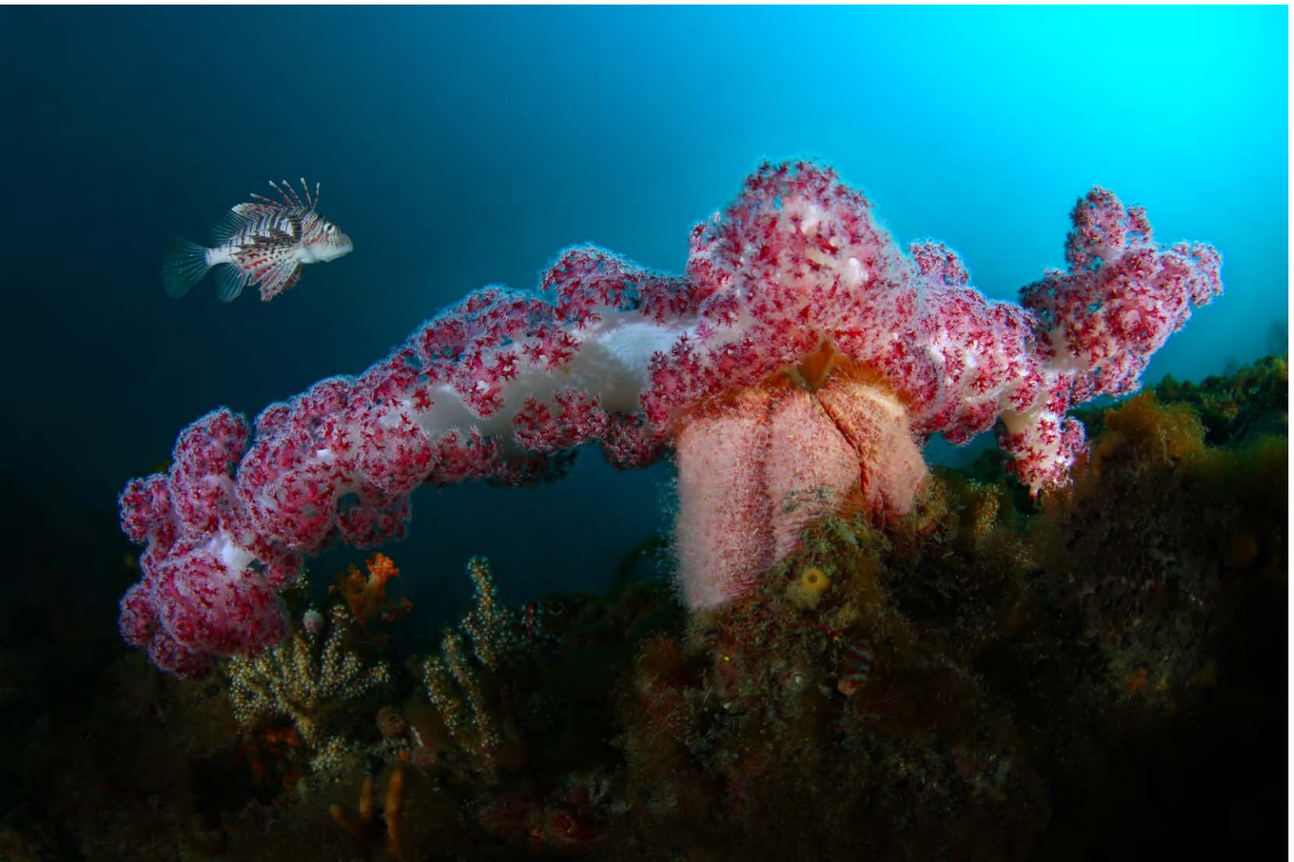
주　원 | 고래와 춤을 |

채상헌 | 은폐 |

최동용 | 세상을 향하여 |

최은주 | 빛과물의 선물2 |





곽용건 | 바다나리와 고비 | 좌

구자광 | 희망 | 우

김상욱 | 안식처 |

김인회 | 푸른바다물과 정어리빛 |

김학주 | 첫만남 |

송신재 | 쏠배감펭의 나들이 |

우종원 | 碧山2 |

이종화 | 흐름2 |

정혜심 | **태고의 빛** |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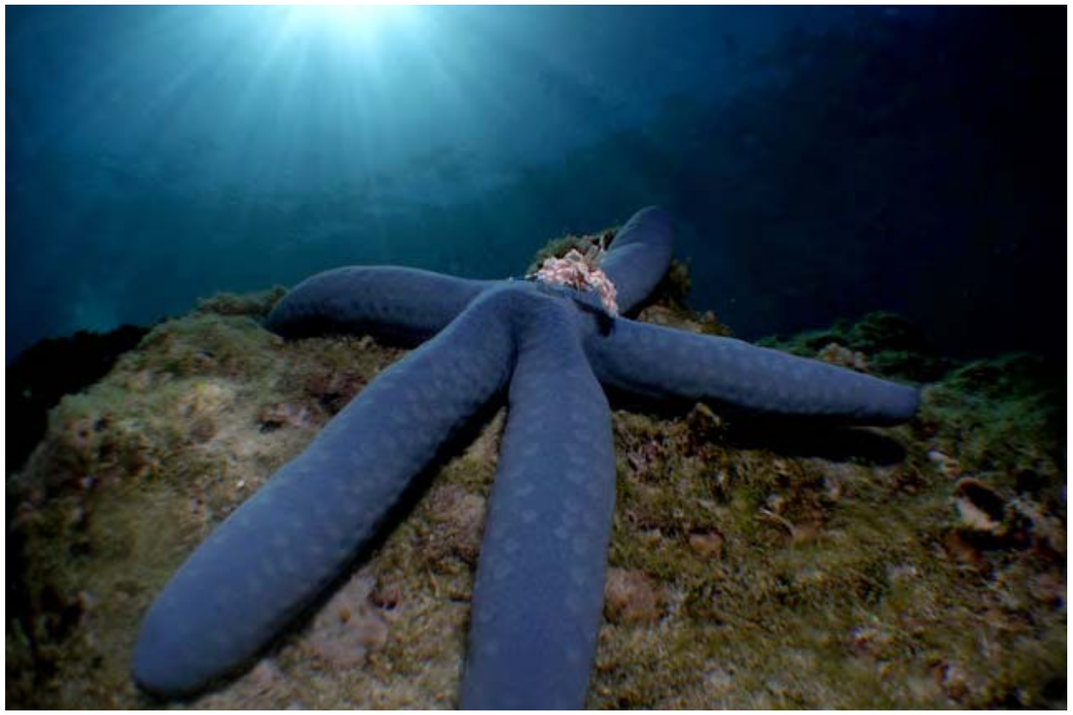
조진생 | **빛을 향하여** | 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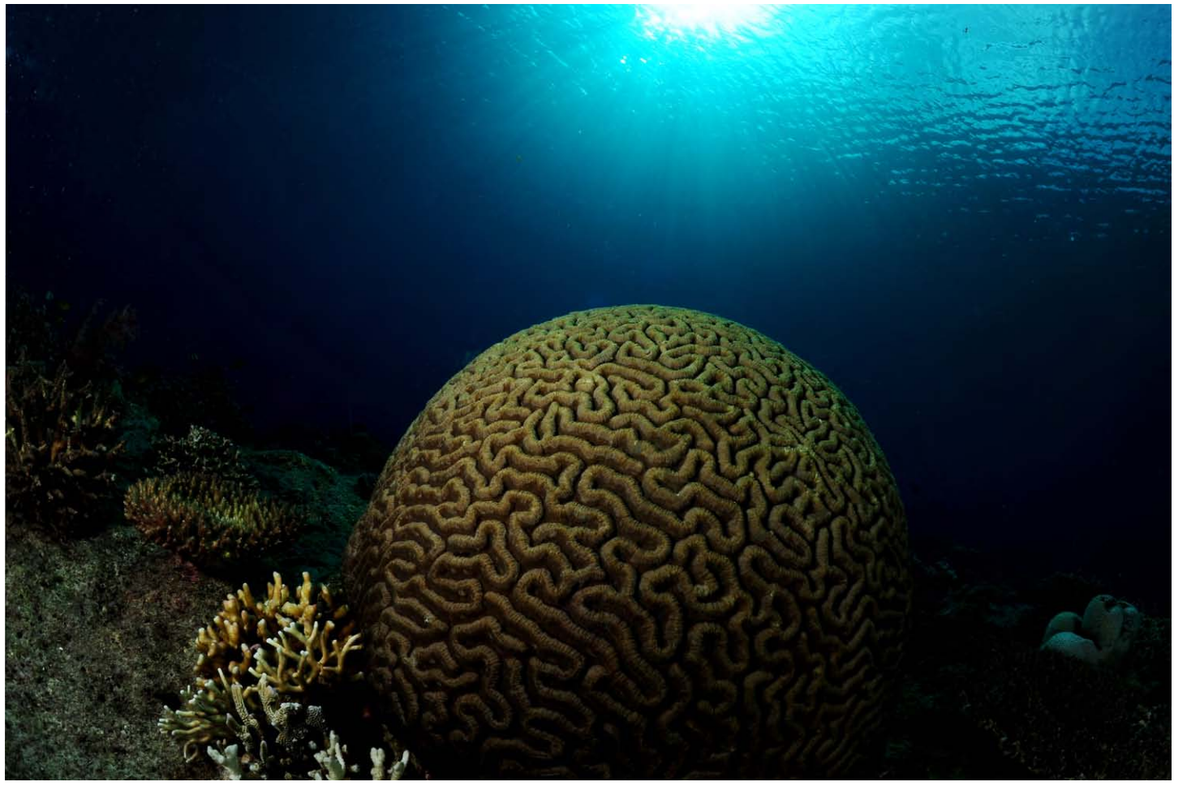
주　원 | **고래와 춤을** | 우하

채상헌 | 은폐 |

최동용 | 세상을 향하여 |

최은주 | 빛과물의 선물2 |





곽용건 | 바다나리와 고비 | 좌

구자광 | 희망 | 우

김상욱 | 안식처 |

김인회 | 푸른바다물과 정어리빛 |

김학주 | 첫만남 |

송신재 | 쏠배감펭의 나들이 |

우종원 | 碧山2 |

이종화 | 흐름2 |

정혜심 | 태고의 빛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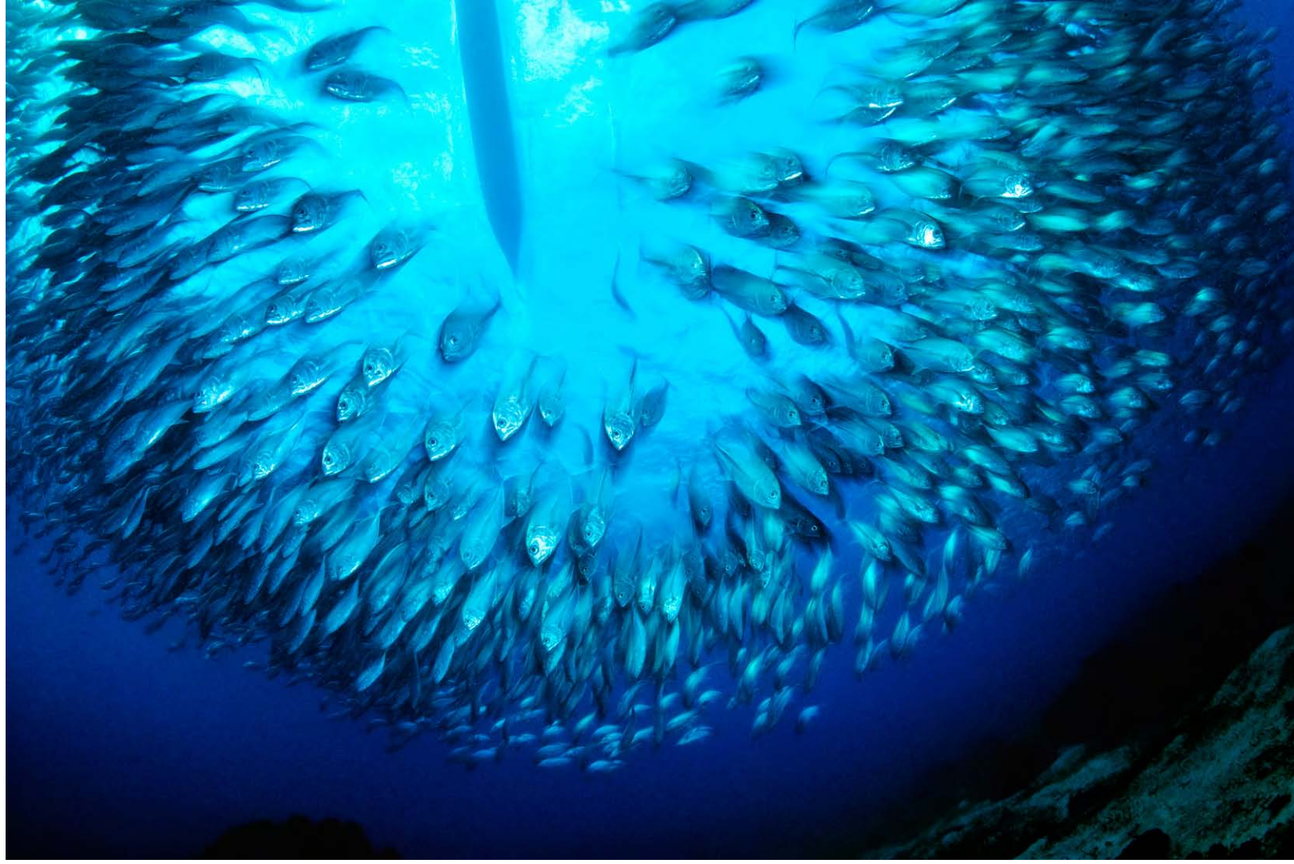
조진생 | 빛을 향하여 |

주　원 | 고래와 춤을 |

채상헌 | **은폐** | 좌

최동용 | **세상을 향하여** | 우

최은주 | 빛과물의 선물2 |



곽용건 | 바다나리와 고비 | 좌

구자광 | 희망 | 우

김상욱 | 안식처 |

김인회 | 푸른바다물과 정어리빛 |

김학주 | 첫만남 |

송신재 | 쏠배감펭의 나들이 |

우종원 | 碧山2 |

이종화 | 흐름2 |

정혜심 | 태고의 빛 |

조진생 | 빛을 향하여 |

주　원 | 고래와 춤을 |

채상헌 | 은폐 |

최동용 | 세상을 향하여 |

최은주 | 빛과물의 선물2 |

BSAC
Diving for divers

BSAC KOREA
강사 트레이너

청주
김기운 010-941-2854

광주
김옥주 010-727-5375

강원
정문진 010-9366-9113

포항
최경식 010-6823-4277

서울
김윤석 010-5254-7710
이진영 010-6211-1847
정상근 010-3775-5718
최종인 010-5275-0635

부산
권천중 010-5201-5353
박재경 010-2560-2383
서동균 010-5007-0251
서동수 010-2957-5091
박신용 010-3035-5615

해외
김용식 070-8229-5282
서민욱 070-8134-5113

2013, BSAC's 60th Anniversary year!

BSAC Diving for divers | BSAC KOREA 031-272-0120
www.bsac.co.kr

BSAC KOREA
다이브 센터

2013, BSAC's 60th Anniversary year!

수도권

서울
e 다이빙
권기윤
010-5473-3050

J-MARINE
최종인
010-527-0635

아레나잠수교실
권희상
016-318-6550

다이버리퍼블릭
박재석
010-3778-3483

서울 스포츠 클럽
최우집
010-7296-7522

경기
로얄잠수풀 인어와 마린
유종범
010-5346-3333

탑익스트림스쿠버
김재구
010-6303-0993

정 스킨스쿠버
최우정
010-7515-0481

충청권

청주
김기운 수중운동센터
김기운
010-9418-2854

전라권

여수
프로잠수
강종복
010-3867-0393

광주
MARINE BOY
김옥주
010-7227-5375

제주권

제주
다이브 환타지아
고창관
010-3413-0411

서귀포
SEA PLUS
김동한
010-5135-1004

찰스다이브
손철수
010-6798-2002

블루오션
정윤현
010-5141-9797

해외권

모알보알
M.B.OCEAN BLUE
김용식
070-7518-0180

아닐라오
아닐라오다이브리조트
한상윤
070-7653-5352

세부
CEDA RESORT
최원철
070-4366-2400

Dolgorae Marine
서민욱
070-8134-5113

사방
클럽 마부하이 라라구나
박정우
070-7755-9166

파라다이스리조트
이수호
010-7153-7476

팔라우
다리 다이버스
이성수
070-7536-6767

강원권

고성
백상어리조트
김대선
011-9716-7474

강릉
해원리조트
박상용
011-685-1556

씨드릴다이브리조트
이주열
011-365-1247

양양
38마린리조트
임근환
010-3940-0010

영진 아쿠아존
김창분
010-3372-1401

양양레저
김찬호
010-9058-9933

경상권

부산
BSAC CLUB
박재경
010-2560-2383

범한수중
유태관
010-4844-2786

씨프랜드
박신용
010-3035-5615

부산잠수센타
서동수
010-2957-5091

와후레저
정희철
010-8905-2052

포항
동해청진캠프
송혜옥
054-261-0067

원잠수해양리조트
최경식
010-6823-4277

기억해스쿠바
김기억
010-5439-3256

대구
계명스킨스쿠버
이우식
010-3532-3282

울산
BSAC ULSAN
김미성
010-8853-7418

SCUBA CLUB 123
정영기
011-564-3106

울진
RESORT SOO
주학수
011-829-7422

문경
분경잠수
박희진
017-513-0086

상주
동아잠수
김대석
010-6536-8701

고성
해인스쿠버
양영동
010-6209-9403

BSAC Diving for divers | BSAC KOREA 031-272-0120
www.bsac.co.kr

제1회 Underwater.kr 국제 수중촬영대회 수상작

The 1st Underwater.kr Lembeh Photo Shootout

지난 2012년 12월 8일~15일 인도네시아 렘베 NAD 리조트 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Underwater.kr 국제 수중촬영대회의 수상작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회는 수중촬영 커뮤니티 사이트 Underwater.kr(운영자 임은재)에서 주최한 것으로 국내외 수중촬영 동호인들이 마크로 촬영의 천국 렘베에서 함께 촬영 다이빙을 즐기며 수중사진 실력을 자랑하는 축제의 자리였다고 한다. 수상자들과 작품을 소개한다.

◆ 컴팩트 부문

우승 Balqesh Abdullah (말레이시아)
장려상 Hng Che Leong (말레이시아)

◆ 미러리스 카메라 부문

우승 Christine Foo (말레이시아)
장려상 Anne Adijuwono (인도네시아)
장려상 Nichole Ng (말레이시아)
장려상 CH Low (말레이시아)

◆ DSLR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2위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3위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장려상 박정권 (한국)
장려상 Alvin Ho (싱가포르)

◆ Super Macro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2위 Patrick Rebai (프랑스)
3위 CK Chong (말레이시아)
장려상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 Unrestricted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2위 Kay Burn Lim (호주)
3위 Christian Jansen (미국)
4위 원하경 (한국)

◆ 포트폴리오 부문

1위 박정권 (한국)
2위 CK Chong (말레이시아)
3위 Patrick Rebai (프랑스)

◆ Best of Show(대회 대상 이미지): 박정권 (한국)

◆ Good Diver - 환경 다이버 상

Patrick Rebai (프랑스) & Christian Jansen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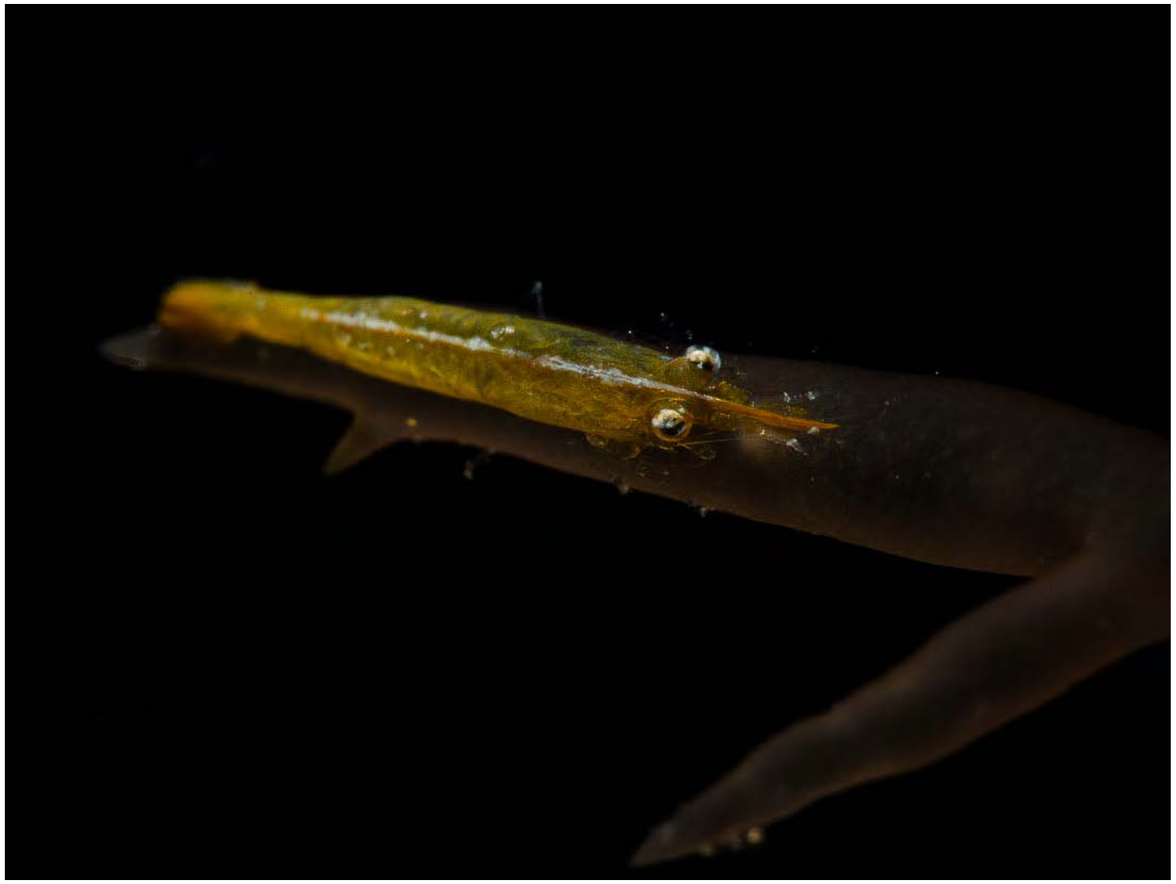
컴팩트 부문

우승 Balqesh Abdullah (말레이시아)

장려상 Hng Che Leong (말레이시아)

미러리스 카메라 부문

우승 Christine Foo (말레이시아)



장려상 Anne Adijuwono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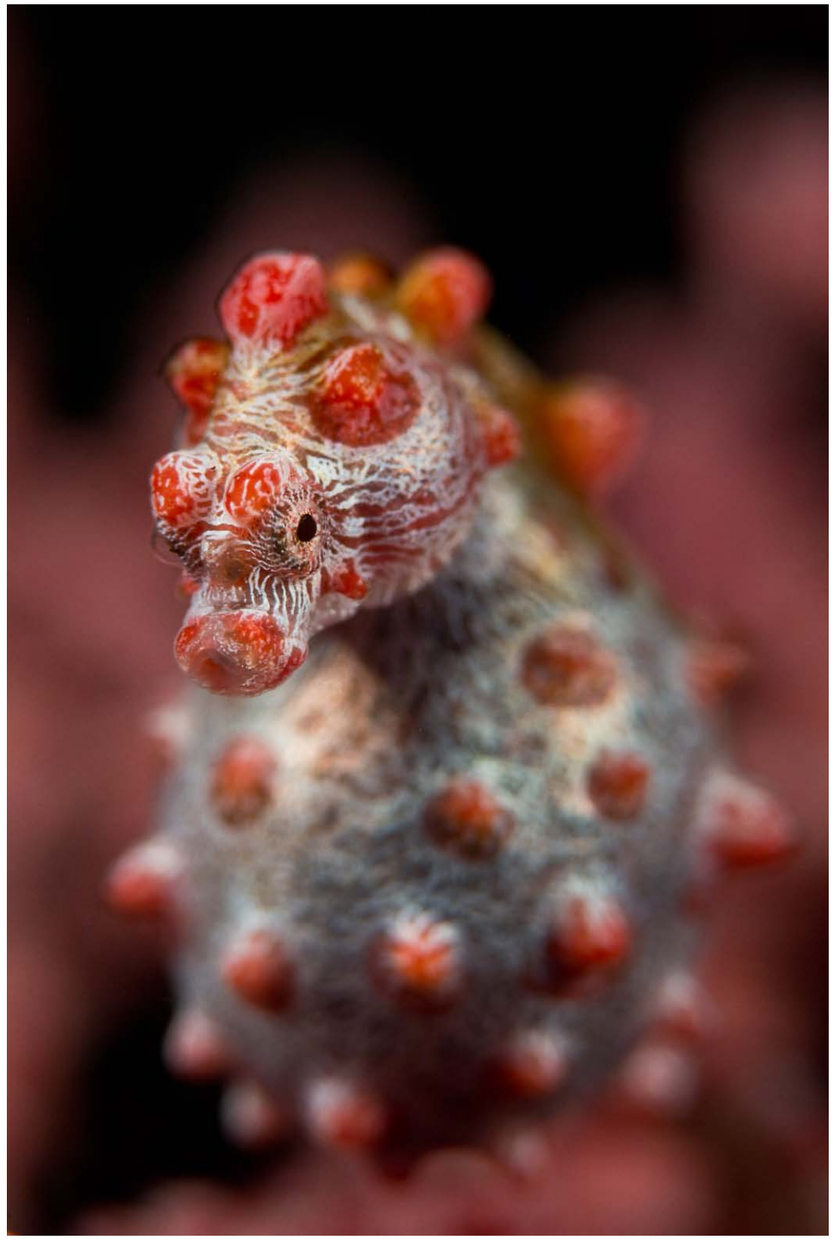
미러리스 카메라 부문

장려상 Nichole Ng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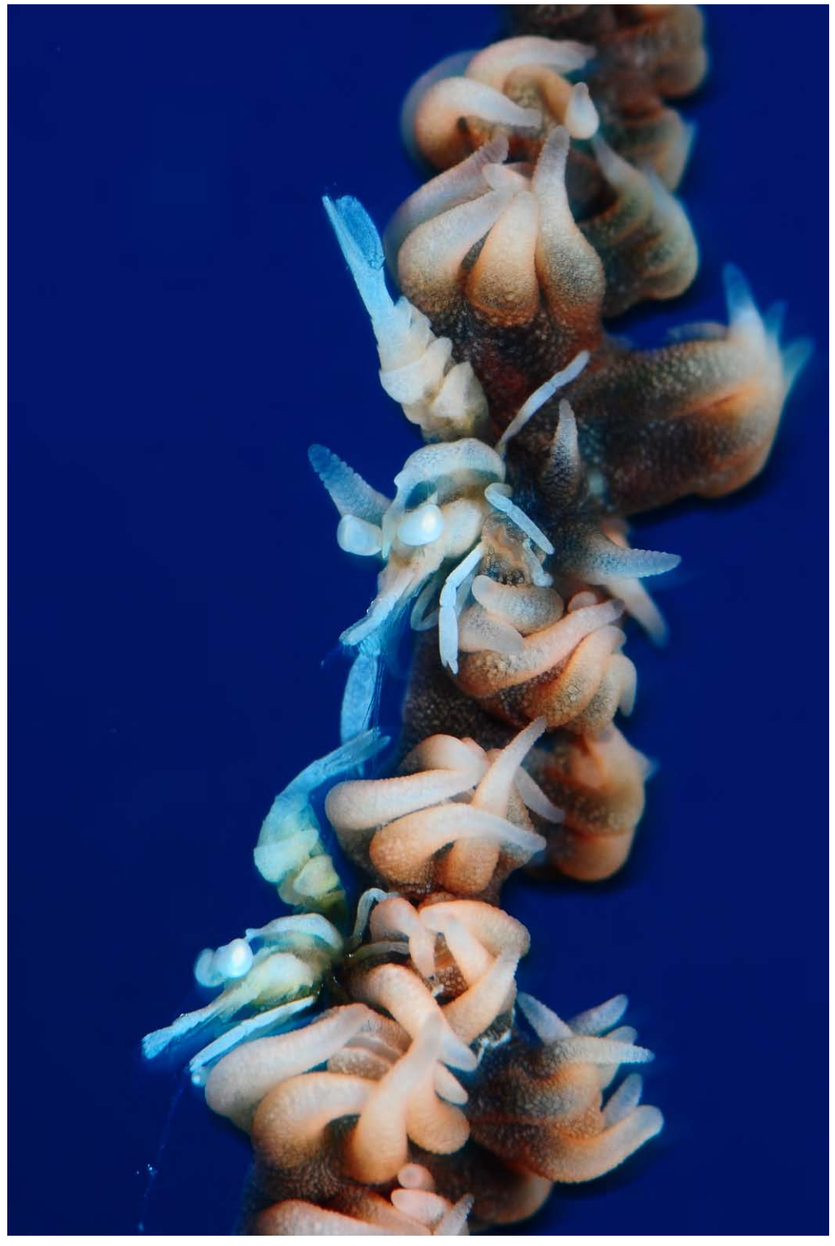
장려상 CH Low (말레이시아)

DSLR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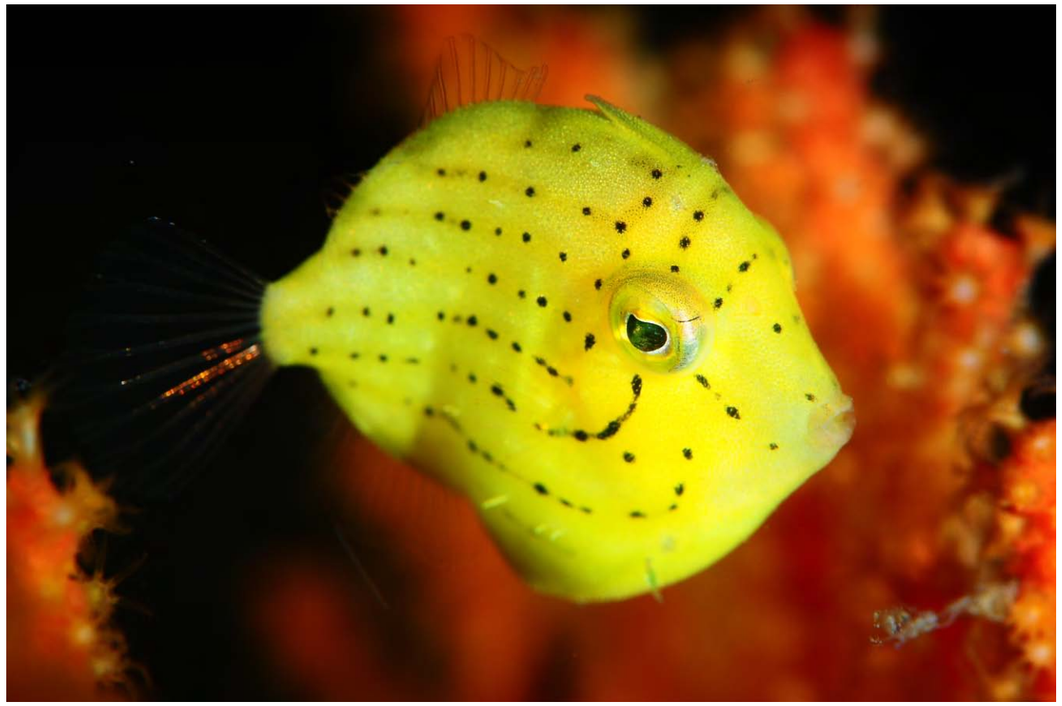


2위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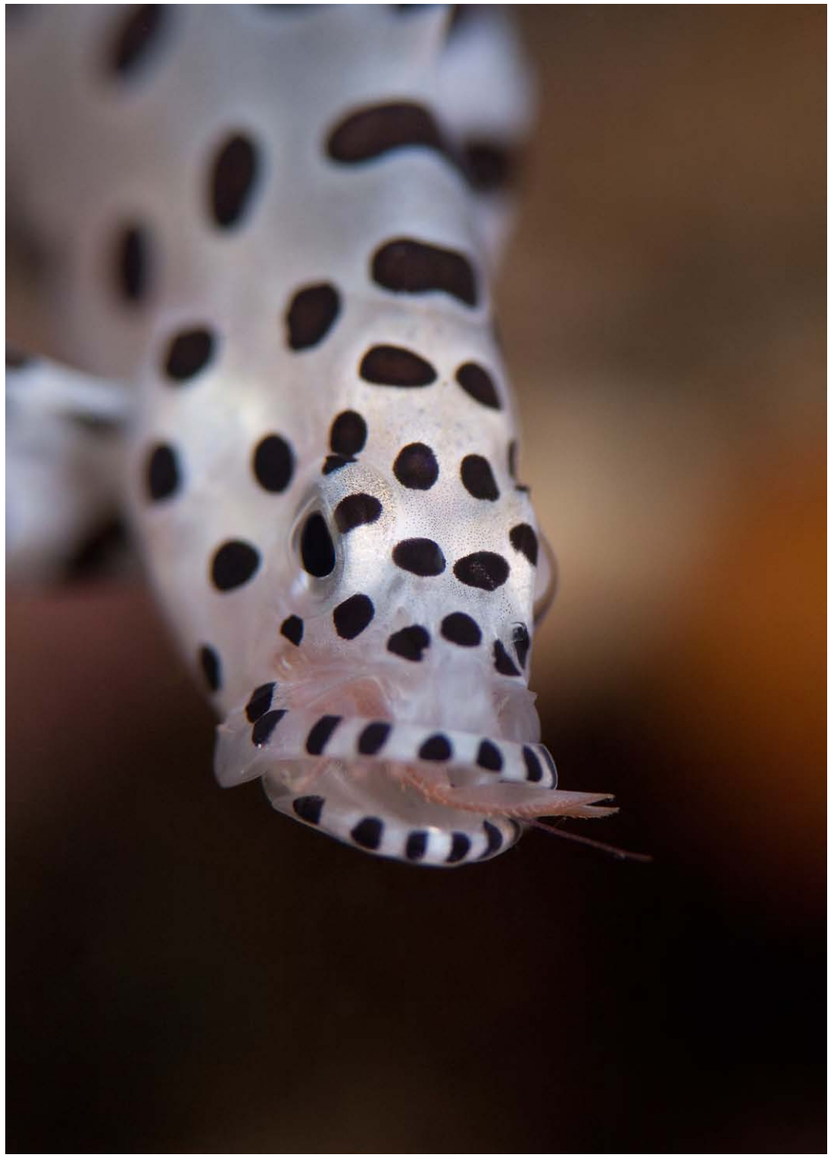
DSLR 부문

3위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장려상 박정권 (한국)

장려상 Alvin Ho (싱가포르)



Super Macro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2위 Patrick Rebai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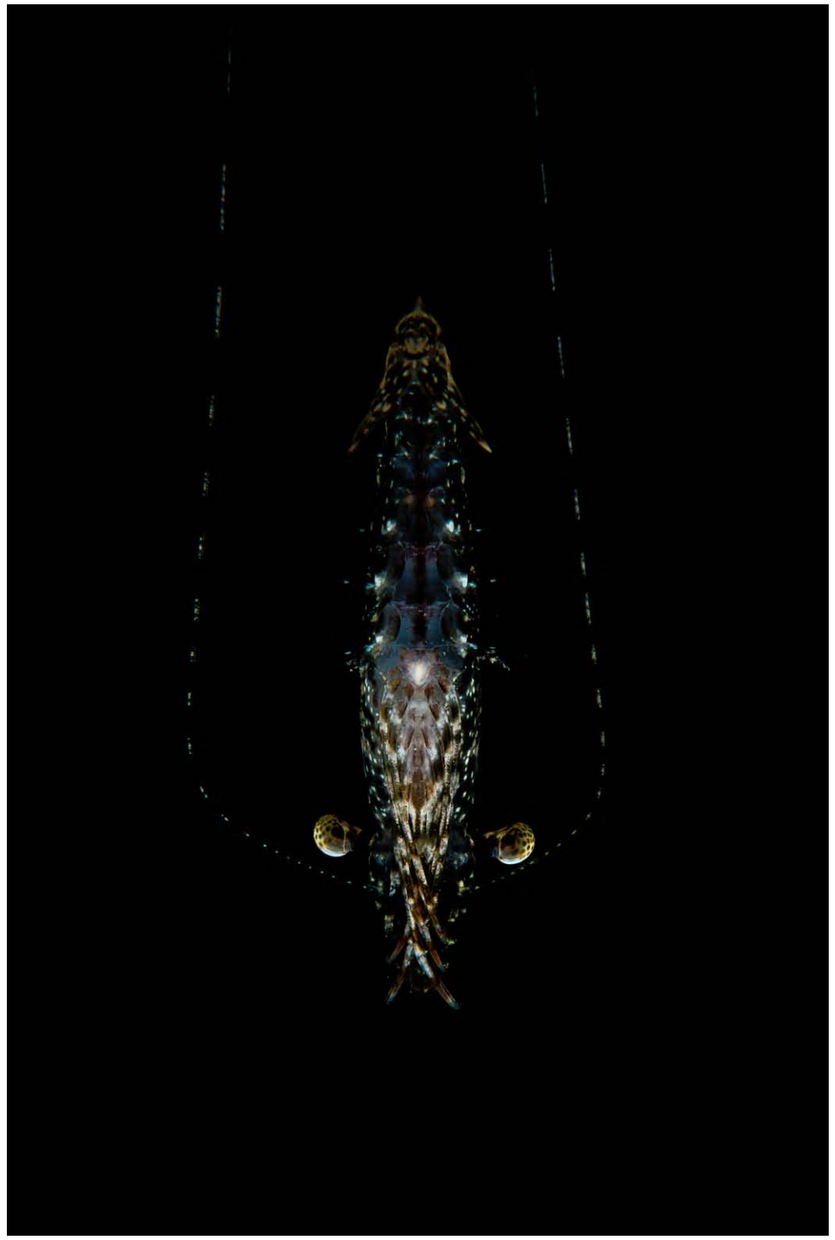
Super Macro 부문

3위 CK Chong (말레이시아)

장려상 Carmelo Bethencourt (스페인)

Unrestricted 부문

1위 Kay Burn Lim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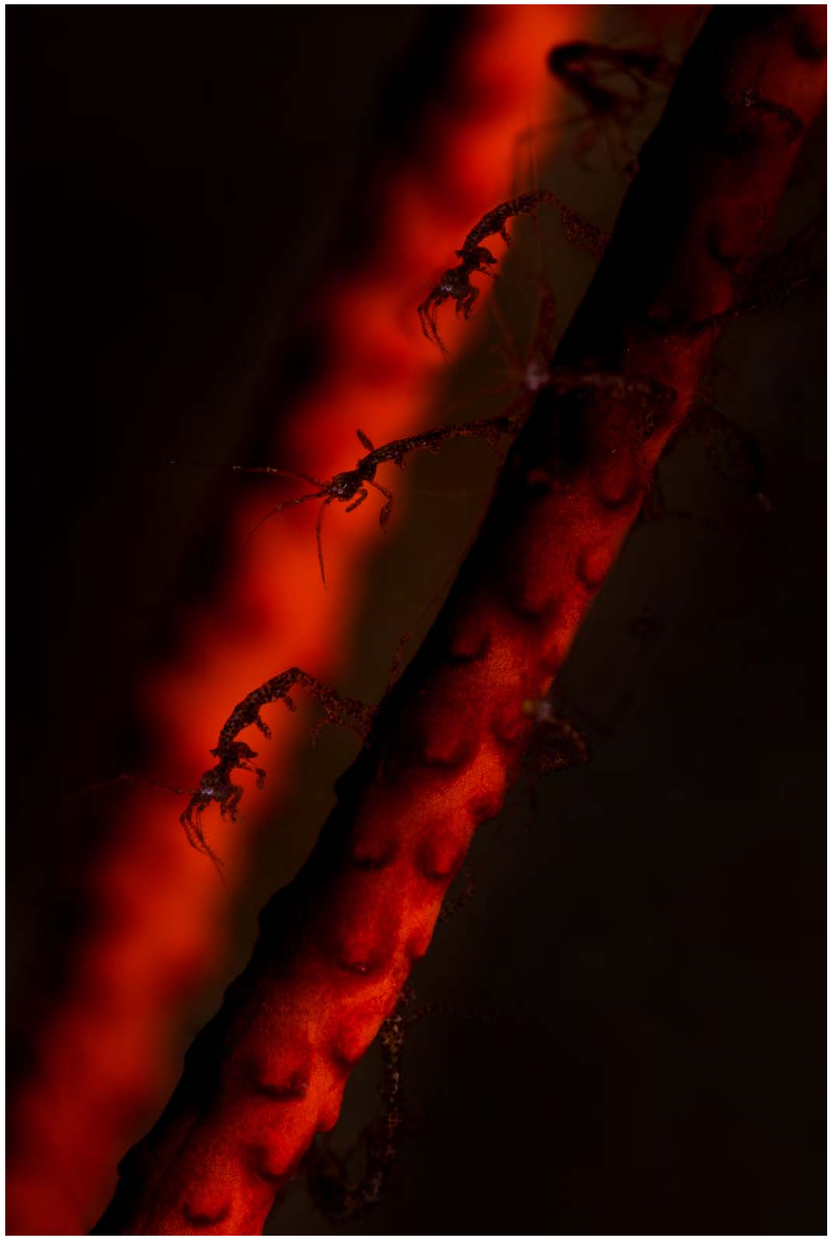


2위 Kay Burn Lim (호주)

Unrestricted 부문

3위 Christian Jansen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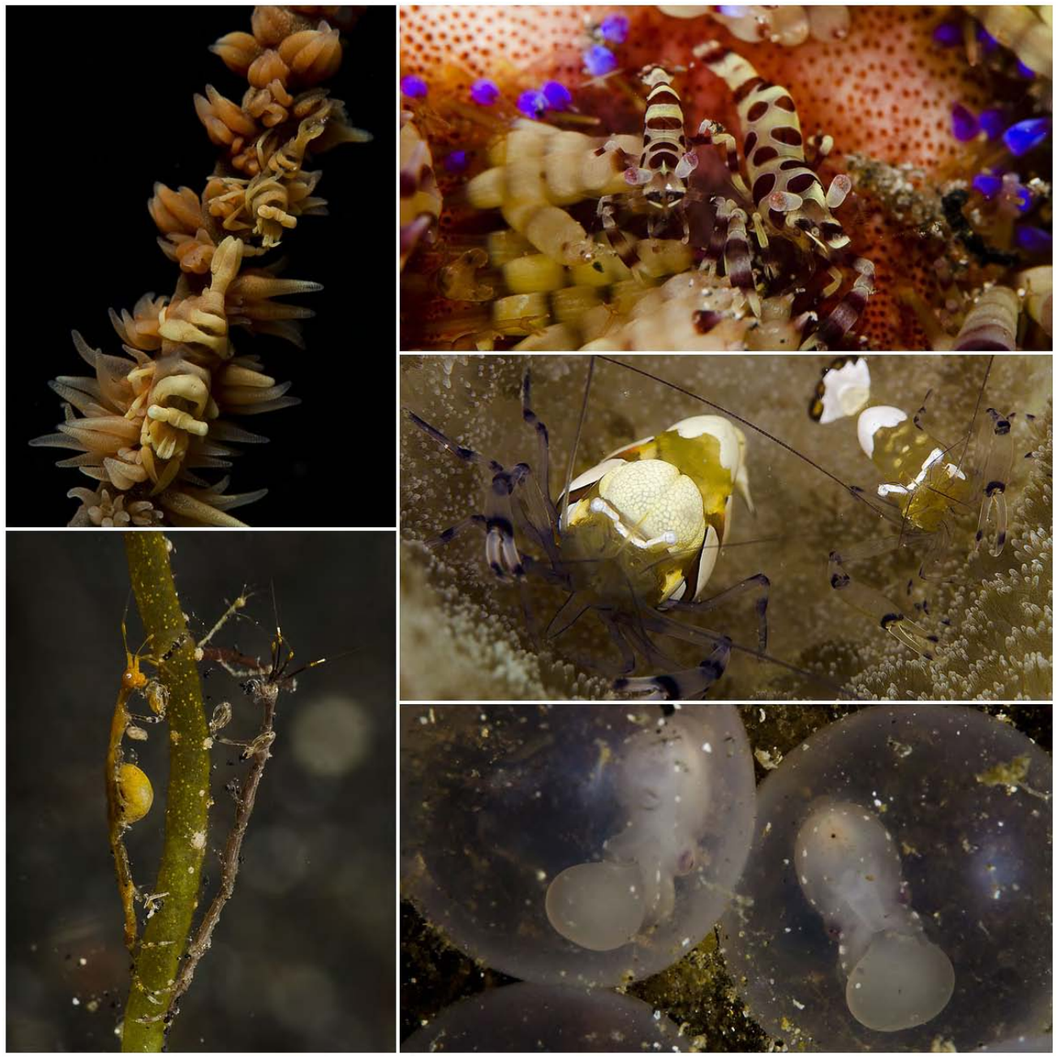
4위 원하경 (한국)



포토폴리오 부문

1위 박정권 (한국)

2위 CK Chong (말레이시아)



포토폴리오 부문

3위 Patrick Rebai (프랑스)

Best of Show(대회 대상 이미지)

박정권 (한국)

SDI TDI ERDI

강사 트레이너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에 도전하세요.
전문 트레이너들이 SDI.TDI.ERDI 강사가 되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EXTENDINGTHERANGEOFYOURDIVINGKNOWLEDGE EXTENDINGTHERANGEOFYOURDIVINGKNOWLEDGE

최용진
서울
010-6298-6380
mrcopspaul@gmail.com

최성기
서울 마포
아띠다이브
070-7583-9862
010-7679-1112
pndiver@naver.com
attydive.com

권성훈
사이판
D.P.I.Saipan
070-8243-1910
사이판 +1 670 989 5800
roy460283@hotmail.com
cafe.daum.net/gosaipan1

김천일
서울
씨텍 다이브
010-2696-1230
scuba1001@hanmail.net

김진규
경기 성남
해마스쿠바
011-314-5422
jinkyung8282@hanmail.net
scuba24.com

문승범
경기도 안산
테마스쿠바아카데미
017-604-3244
msbnr@naver.com
www.tmscuba.co.kr

남선국
충남 서산
마린 캠프
041-666-2522
011-437-9279
010-9351-4001
scuba2080@hanmail.net

강규호
제주 서귀포
제주 다이브
016-699-9582
scuba@jejudive.com
www.jejudive.com

안태수
괌(Guam)
드림 다이브
괌:+1 671 488 2695
한국:02-6434-0123
shark574@naver.com
guamdream.co.kr

유종범
경기 수지,분당
안와외림수지점수풀
031-262-1829
010-5346-3333
scuba@mnmscuba.co.kr
mnmscuba.co.kr

이종술
경남창원실내수영장
남해수중
055-266-0062
011-816-6055
cwcdiver@yahoo.co.kr
nsdiver.com

전대헌
경북영덕 축산
푸른바다리조트
010-3516-6034
bsresort4874@nate.com
bsresort.co.kr

이성호
서울, 강원
경희대학교
010-2797-3737
sc3798kr@naver.com

하상훈
부산
이지 다이빙
051-405-3737
010-8336-1010
ezdiving@ezdiving.co.kr
www.ezdiving.co.kr

임재현
서울 강서
버블 홀릭
010-9172-0017
muguri72@hanmail.net
bubbleholic.co.kr

국용관
필리핀아닐라오
SM Scuba Resort
필리핀 +63 917 530 1109
smric@hanmail.net
cafe.daum.net/smscuba
facebook.com/#!/groups/smscuba/

김종환
서울
골드피시
02-3437-5410
010-3763-2589
7632589@hanmail.net
goldfishclub.co.kr

이상욱
울산
토니의수중세계
010-3847-6887
052-236-7747
cafe.daum.net/O2DIVER
tdisdiulsan@hanmail.net

이주언
경남
고성 스쿠바
011-569-5522
zetlee2@gmail.com
gsscuba.com
facebook.com/gsscuba2

오경철
서울
캡틴 다이브
011-236-1865
captaindive@hanmail.net

박명덕
경기 의정부,양주
엉클박다이브아카데미
010-3691-7166
pmdscuba@naver.com
cafe.naver.com/diveedu

윤형준
서울
준 다이브아카데미
010-6311-0245
kmc0641@paran.com

권혁기
서울, 수원
액션스쿠버
02-787-0215
010-9031-7825
ann611@hanmail.net
www.dive2world.com

정무용
서울
엘피노이
010-3297-1889
moraychung@yahoo.co.kr

윤병철
경기 파주
자유로 스쿠버
010-5035-9093
ybc1667@hanmail.net
jyrsj.co.kr

SDI.TDI.ERDI 에서는 강사 후보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트레이너에게 연락하세요.

SCUBA DIVING INTERNATIONAL

SDI

우리의 도전은 계속 됩니다....

수준 높은 한글 교재 개발 - 40여 종의 한글 매뉴얼
40여 종의 PPT
온라인 이러닝(E-learning), 모바일 교재 무상 제공
전자책 (E-BOOK) 제공
전문적인 시청각 교재 - PPT, 비디오 무상 제공

TECHNICAL DIVING INTERNATIONAL

TDI

빠른 서비스 - 다이브센터/리조트에서 직접 자격증 발급, 24시간내 배송
사회 공헌 - 장학생 강사, 공개 세미나, 공공 안전 다이빙 프로그램
진보적인 프로그램 - 솔로 다이빙, 스포츠 재호흡기, 다이브컴퓨터 필수 체택
더 많은 혜택 - 마일리지 프로그램, 한번 리뉴얼로 모든 자격 갱신(SDI.TDI.ERDI.CPR 등)

ERDI

ERDI

www.tdisdi.co.kr

제1회 Underwater.kr 국제 수중촬영대회 참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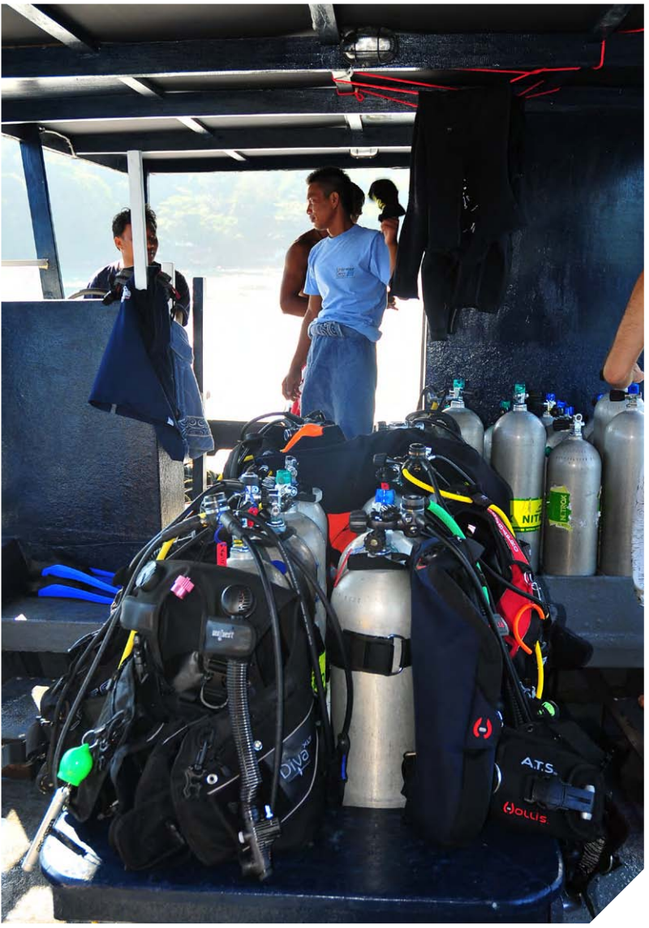
2012년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렘베에서 Underwater.kr이 주최하는 제1회 국제 수중촬영대회가 있었다. 마크로 천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렘베라는 다이빙 사이트에 항상 궁금함이 컸던 차에 흔하지 않은 국적불문의 다이버들이 모이는 축제가 있다기에 좋은 추억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다.

출국하는 12월 7일 밤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변에는 온통 흰 눈이 가득해 깊어가는 겨울을 실감하게 했다. 인천에서 렘베까지는 싱가포르를 경유해야 하는지라 약 7 시간의 긴 비행을 한 뒤에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출발 전에 각종 장비의 중량을 맞추어 놓았던 탓에 탑승수속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마나도까지는 짐을 찾을 필요 없이 3 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을 보내고 다시 비행기에 오르면 되었다. 후에 들어서 안 내용이지만 마나도에서는 화물이 15kg 정도는 초과해도 다이빙 장비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흔쾌히 통과 된다고 한다. 아마도 이곳을 찾는 다이버들의 많은 숫자가 이러한 넓은 배려의 관례를 만들어 놓았나보다. 자정 쯤에 인천을 떠나서 싱가포르를 들러 다시 마나도 공항에 내리니 점심 무렵이 지나간다. 자그마한 마나도 공항이 꽤나 친숙하게 느껴지며 깔끔하게 정돈된 인상을 받았다.

렘베의 리조트에서 픽업 나온 차량에 짐을 싣고 다시 1 시간을 넘기는 도로를 따라 선박을 이용할 작은 항구를 찾아가는 길에 짬짬이 차량에 크리스마스 축제 팀들이 왁자지껄~하게 지나쳐간다. 이 더운 곳에서도 크리스마스도 즐기나 보다. 마나도에서도 맨 끝쯤 되어 보이는 항구에 다다르니 일행을 싣고 갈 선박이 기다린다. 각종 선박들이 어우러져있어 정돈되어 보이지는 않으나 낯선 이국땅에서는 그 어떤 풍경도 괜스레 아름답게만 보인다.

일행을 태워갈 리조트의 선박에 장비를 옮겨 싣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열대의 바다에서 8 일간의 여정을 보내게 된다. 아마도 해외투어의 꽃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로소 짐을 풀어놓는 그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제 모든 것 놓아두고 마음껏 다이빙을 즐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렘베 NAD 리조트의 모습은 오목하게 휘어져 들어간 만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뒤로는 야자수며 나무들이 빼곡하고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담한 풍경이다. 각국의 다이버들이 모여 있었는데 하루 먼저 도착한 팀도 있었으며 우리 일행이 마지막으로 각자 숙소를 배정받아서 2인1 실의 형태로 짐을 풀어 놓았다.



피로와 기대가 교차하는 밤이 지나고 대회 첫날이 시작 되었다. 우선 처음 경험해보는 국제대회의 분위기에 언어가 당췌 불통인지라 눈인사로 대신했다. 우선 놀라운 것은 이번 대회의 컨셉이 마크로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하나같이 디옵터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DSLR 기종에서는 고가의 배율 뷰파인더가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것이 흡사 장비 경연장에 와 있는 듯 최상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인별로 여러 형태의 디옵터들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대분분은 SUB-SEE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본인이 원하는 장면을 얻기 위해서는 장비의 보강은 적극적 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지라 그들의 장비들이 중화기를 연상케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했다. 하루 다이빙은 오전 2회 중식 후 오후 1회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야간 보트 다이빙 1회로 총 4회씩 진행을 했다. 때문에 대략 한 계수심 25m 정도로 해서 무감압 다이빙을 진행하기에 1회의 다이빙 후에 수면휴식시간은 한숨 자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게 진행되었다.

총 3 대의 선박으로 참가선수, 임원, 심사위원 그리고 각국의 스폰서 등 총 50 여명이 서로 나뉘어서 다이빙을 진행하는데 포인트는 서로 교차해가면서 보트 한 대당 한명의 심사위원이 동승을 해서 시합 전날 나누어준 대회규칙 안내서에 위배됨이 없이 다이빙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형식이다. 누군가 지켜본다는 부담감도 없지 않았지만 이런 새로운 규정에 다이빙을 해보는 것도 경험이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강조되는 윤리적인 다이빙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는 일이다. 나홀로 투어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은 일률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진 5070)
우선 대회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마크로의 천국이라는 실체를 확인해보고자 가이드가 찾아주는 피사체들에 몰두해서 담기도 하고 또 휴식시간에는 이제껏 다이빙 하면서도 볼 수가 없었던 그래서 내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던 피사체를 주문해보기도 했다.

수심 약 5~6m 암벽 사이에서 무한전기를 내보내던 전기가리비(Electric flame scallop)를 가까이에서 보며 카메라에 담았던 느낌은 지금도 나를 미소 짓게 한다. 출발 전에 급조한 필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촬영도 해보며 아무튼 1회의 다이빙에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려 가이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이 빠져라 두리번거리기도 했던 기억이다.

다이빙 일정에 여유가 있으니 매회 다이빙이 편안하고 꼬박꼬박 찾아오는 식사시간에는 대략의 얼굴들이 비로소 한자리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우선 쥔장이 영국인이라 그런지 아침은 가벼운 토스트에 계란을 주문하면 삶아주기도 하고, 프라이로 내어주기도 했다. 만약 이곳의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주변에 주전부리할 곳도 없는 철저한 외딴섬이라는 것 정도만 알았더라면 아마도 부두에서 배에 오르기 전에라도 간식거리 정도는 준비했으리라~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야참을 참아야 하며 그만큼 돈 쓸 일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이번 대회를 공동 주최한 사람은 한국의 underwater.kr 운영자 임은재 씨이다. 수중사진의 저변확대와 국내 촬영가들이 해외에 소개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기획하고 진행함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기에 수중사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냥 대견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경연이 진행되는 내내 국적은 다르지만 자주 만나는 탓에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이어지는 그래서 함께 다이빙을 즐기는 공통분모가 투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대회는 축제를 위한 타이틀일 뿐 물속에선 내가 원하는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열심히 촬영을 하고 물밖에 나와서는 모두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배려하는 모습들이 진정 다이빙을 즐기는 마니아들의 멋스러운 매너로 어디에서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위기였으면 하는 바램마저 느껴보는 투어였다.

NAD
North Sulawesi, Indonesia

1st Underwater.kr International Photo shoot out

Nauticam
innovation underwater

•Date: 8~15th Dec 2012 •Location: Lembeh strait, North sulawesi, Indonesia •Resort: NAD Lembeh Resort

Cam Square 캠스퀘어 · Prestige Sport · SCUBATEC · BACKSCATTER · ScubaNet · INON · MB Ocean Blue · GoPro UNDERWATER · eneloop

일정 내내 자신의 장비를 넣어두는 박스에 영문으로 이름도 붙여놓아 서로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트 내에는 카메라를 담가둘 수 있도록 플라스틱 상자도 실어놓는 배려가 있었다. 사용하는 기체는 매회 마다 진행요원에게 의견을 개진하면 나이트록스 다이빙도 가능했으며 본인에게 산소농도를 확인시키며 사인을 받는 꼼꼼한 진행을 엿볼 수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플램보얀트 커틀피쉬며 전기가리비, 그리고 예쁘장하기 그지없는 할리퀸쉬림프들을 만나고 씬벵이는 손톱만한 녀석부터 종류대로 다 만나본 것 같다. 마크로의 천국이라 이번 한 번 투어로 그 진가를 다 볼 수야 있으랴만 귀한 종이 서식하는 지역이기도 했고, 그 개체수가 여타 다른 지역보다는 많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실의 시름과 피할 수 없는 압박에서 벗어나 이렇게 휴식하고 다이빙만 하는 달콤한 시간이 어느새 일정의 끝을 달리고 있음이 못내 아쉽기도 하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번 촬영대회의 심사발표와 시상식이 이어졌다. 리조트 2층의 넓은 공간 한쪽에는 맛난 음식과 주류가 준비되었고, 모든 인원은 각자 편한 자세로 화면에 소개되는 사진에 환호하며 서로 즐거운 현장을 즐기려는 준비가 된 듯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다. 모든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국적에 관계없이 서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박수를 보내주는 훈훈한 그런 멋진 마무리…….

참가자들은 모두 대회를 즐기면서도 하나같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여 주었다. 필자도 급조해 갔던 필터를 이용해서 하루 동안 색다른 사진을 만들어보았는데 그것들을 포함해서 3개 부분에 심사를 받았다. 대회 규정에는 law/jpg 원본을 모두 제출 받는데 이중에 jpg는 약 10% 크롭과 보정을 허락했다. 모두 원본을 제출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출품작들이 모두 장려상과 금상 그리고 필터를 사용했던 사진은 큰상을 받는 기쁨을 얻었다. 모두 다 훌륭한 사진들이라 참가자들 앞에 서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그저 이 하나의 축제의 일원이 되어 많이 느끼고 배우고 나눈 것들이 더 보람차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이 아름다운 곳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 말이 짧아 ^^ 서로 포옹도 하고 어깨를 맞대고 사진을 남기고, 페이스북 친구를 현장에서 맺으며 또 언제 바다에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투어를 통해서 멀고도 긴 여행의 참 맛을 느끼고 또 가고파 했던 장소를 찾아 나름 보고 싶었던 수중생물들을 많이 만났던 기억들, 그리고 국제대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간 타성에 젖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수중촬영에 대한 생각들에 상큼한 촉매제를 얻은 듯 하고 국적은 다르나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분위기에 많은 깨달음과 감사한 기억이 많이 남는다.

수중촬영을 즐기는 다이버들에게 이처럼 좀 더 다양하고 넉넉한 축제의 기회가 많아져서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심신을 재충전하는 좋은 여행이나 경험을 한다는 것이 작은 소망처럼 느껴진다. 이 자리를 빌어 참여했던 모든 분들과 이 대회를 공동 주최한 인도네시아 NAD 렘베리조트와 한국의 임은재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이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즐거운 일 가득하시고 언제나 안전다이빙 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정권
바다속이야기 카페지기
(http://cafe.naver.com/callipers.cafe)
강릉 남향진 신풍해장국 운영

SSI 인스트럭터

-즐거움이 함께 하는 최선의 선택!

더 많은 지식
최신의 교육자료들과 최고의 교육방법으로 즐거움과 최상의 교육을 보장합니다.

더 더양한 선택
유소년다이빙, 프리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높은 전문성
전문적인 비즈니스 교육 또한 교육 과정의 일부이며 인스트럭터로서의 장기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더 넓은 세계적인 인정
국제 ISO 인증으로 전 세계 SSI 인스트럭터들의 다양한 직업 선택의 문을 열었습니다.

SSI SCUBA SCHOOLS INTERNATIONAL

SINGLE BREATH, NO TANK!

How Deep Can You Go?

SSI FREEDIVING

Freediving Level 1 Program	LEVEL OF EXPERIENCE 1	10 m	33 ft	
15 or more Dive Sessions	LEVEL OF EXPERIENCE 2	20 m	66 ft	
30 or more Dive Sessions	LEVEL OF EXPERIENCE 3	30 m	99 ft	
50 or more Dive Sessions	LEVEL OF EXPERIENCE 4 Optional	40 m	130 ft	INSTRUCTOR LEVEL 1 — Freediving Level 3 or Scuba Professional*
100 or more Dive Sessions	LEVEL OF EXPERIENCE 5			INSTRUCTOR LEVEL 2 — Instructor Level 1 + 25 Certifications
300 or more Dive Sessions	LEVEL OF EXPERIENCE 6			INSTRUCTOR LEVEL 3 — Instructor Level 2 + 50 Certifications
500 or more Dive Sessions	LEVEL OF EXPERIENCE 7			INSTRUCTOR TRAINER — Instructor Level 3 + Outstanding Experience
1000 or more Dive Sessions	LEVEL OF EXPERIENCE 8			

FREEDIVING BASIC
- Start Your Freediving Adventure In The Pool & Continue Your Way To Freediving Level 1. Any Time!

SPECIALTY COURSES
- Digital Underwater Photography
- Mono Fin

... and many more options

The Ultimate Dive Experience

www.diveSSI.com

The Red Sea II

홍해의 한인 다이빙 커뮤니티와 그들이
선호하는 홍해 다이빙 포인트

홍해에는 이미 지난 1980 년대부터 선구자적인 한인 다이버들이 방문하였고, 2002년을 시작으로 다합, 샤름엘셰이크 일대를 기반으로 개인적으로 활동을 시도했던 강사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프로페셔널 팀으로 활동 중인 한인 다이빙 강사 그룹은 후루가다의 레드씨다이브팀(Red Sea Dive Team)이 유일하지만, 현재도 다합 일대에는 개인적으로 활동중인 강사들이 몇몇 다이브센터를 기반으로 한인 대상 다이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한인 다이빙 시장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다이빙만을 위해 홍해를 찾는 다이버들보다는 여행을 위해 이집트를 찾는 배낭 여행객들이 주요 대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 여행 시장의 특성상 여행자들은 트랜드에 상당히 민감한 변화를 보입니다. 배낭여행의 붐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상당수의 여행자들이 인도, 티벳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에서 여행을 마무리를 하는 일정을 선택하다 보니 마지막 여행지인 태국의 다이빙 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기점으로 유럽 혹은 그리스, 터키, 중동, 아프리카 루트를 따라가는 배낭 여행의 트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루트의 마지막 여행지인 이집트, 그리고 홍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지며,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홍해에서의 다이빙 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카이로에서 피라미드를 봐야 하듯이 홍해에서는 다이빙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여행자들에게 넓게 퍼진 것이 홍해 다이빙 커뮤니티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됩니다.

홍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연자원과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스템화 된 다이빙 문화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트랜드에 시기적절하게 부흥하며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홍해를 방문하는 다이버들에게 가장 큰 매력은 물고래와의 조우이다.

1 홍해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바다거북
2 다이빙 교육 중에 돌고래를 조우하는 경우도 잦다.

레드씨다이브팀은 지난 2005년에 홍해의 교통과 다이빙의 중심이라 판단된 후루가다에 거점을 두고 런칭되었으며, 이후 한인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역시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문화 및 다이빙 시스템 습득을 위한 여러 시도를 거쳐 홍해 내 전 지역에 9개의 다이빙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다이빙 숍인 "아쿠아리우스"와 파트너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홍해 전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한 투어 개발을 염두해 둔 첫번째 시도가 됩니다.

홍해에서 교육을 받은 다이버들은 비교적 쉽게 다이빙의 매력을 알게 됩니다. 교육 중 돌고래와 조우하는 경우도 잦으며, 그 외에도 바다를 비추는 강렬한 태양의 영향과 평균 시야 20~30m 라는 탁트인 시야 아래 다양한 수중생물과 형형색색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수중환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이버가 된 이후에는 대부분 홍해에서 돌고래 다음으로 각광받는 딥다이빙 혹은 수중사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홍해 전역에 분포한 천여개 사이트 중 절반은 딥 혹은 월다이빙 사이트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합의 블루홀 등도 딥다이빙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로컬다이빙을 통해 다이빙에 익숙해지고 충분한 재미를 느낀 다이버들은 자연스럽게 홍해 남부 사이트를 주목하게 됩니다.

1

2

3

한인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홍해다이빙

1. 마르사알람과 엘핀스톤

홍해를 찾는 다이버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되는 곳은 멸종 위기종인 듀공의 서식지가 있는 마르사알람과 헤머헤드 상어를 보며 제대로 된 딥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는 엘핀스톤을 방문하는 1박 2일 투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정은: 후루가다에서 출발 - 육로 이동으로 남쪽으로 2시간 – 듀공 포인트(2 다이브) - 호텔 휴식 및 숙박(식사 및 음료 제공되는 All Inclusive 호텔) - 보트승선 - 엘핀스톤(2 다이브) - 후루가다로 복귀

1 홍해에서 활동하는 한인 강사들이 결성한 RSDT는 민간외교의 최전선에 있다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RSDT 팀이 독도는 한국 땅임을 알리는 기념 티셔츠를 입고 단체로 다이빙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3 해초지대에서 볼 수 있는 홍해의 예쁜 해마

2. 하마타 미니 리브어보드

두 번째로 인기있는 다이빙 프로그램은 하마타 딥 사우스 3박 3일 미니 리브어보드입니다. 10박 11일 일정에 대해 비용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여행자들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주요 사이트를 모두 둘러볼 수 있는 미니 리브어보드는 그야말로 맞춤형 투어로 자리잡았습니다. 후루가다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하마타에서 출발하는 이 리브어보드는 딥 사우스의 대표 사이트인 세인트존스(St. Johns - 특징: 딥다이빙, 상어, 만타)와 사타야(Sataya - 특징: 케이번 지형, 돌고래 무리) 일대를 돌며 대표 사이트를 방문하는 투어이며,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인만큼 거의 훼손되지 않은 건강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각종 상어, 만타레이 등 다양한 수중생물과의 조우도 다이빙에 재미를 더해주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일정은: 후루가다에서 남쪽으로 4시간 육로이동 - 보트승선 - 야간이동 - 1일차 다이빙 (세인트존스 지역) - 2일차 다이빙 (사타야 지역) - 3일차 다이빙 (하마타 지역) 후 부두도착 - 후루가다로 이동

3. 난파선

이외에도 홍해는 난파선 다이빙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 난파선으로는 홍해 최대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기록된 살렘익스프레스(Salem Express), 근대 무역이 시작된 이래 사고 다발지역으로 악명 높았고, 아직까지 한개의 리프를 따라 6개의 난파선이 남아있는 아부 누하스(Abu Nuhas),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용차량, 화기, 기타 물품들을 운반하다 포격으로 침몰한 초대형 난파선-시슬곰(Thistlegorm)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 지역 모두 나름의 특징과 웅장한 외형,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로 많은 다이버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지역으로 출항하는 1박 2일 혹은 3박 3일 미니 리브어보드를 통해서 방문이 가능하나 후루가다에서는 아부누하스와 살렘 익스프레스로의 당일 스페셜 투어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1 다이버들에게 접근하는 호기심 많은 홍해의 돌고래들
2 홍해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난파선들을 구경할 수 있다.

1

2

3

일반적인 일정은...

1 살렘익스프레스: 새벽출발 - 1일차 다이빙 (살렘익스프레스 / 난파선 / 야간 다이빙 포함 총 3회 다이빙) - 2일차 다이빙 (파노라마 리프 지역 / 리프 다이빙 / 새벽 다이빙 포함 총 3회 다이빙) - 후루가다 도착

2 아부 누하스: 새벽출발 - 1일차 다이빙 (Giannis D 과 Carnatic / 2개의 난파선 다이빙 및 1회 야간다이빙, 총 3회 다이빙) + 2일차 다이빙 (Syul 혹은 Gobal 지역 / 리프 다이빙 / 새벽 다이빙 포함 총 3회 다이빙) - 후루가다 도착

3 시슬곰: 새벽출발 - 1일차 다이빙 (돌핀하우스와 Duraven 지역 다이빙 / 야간다이빙 포함 총 3회 다이빙) - 2일차 다이빙 (Ras Mohammed 와 Thistlegorm 지역 / 야간다이빙 포함 총 4회 다이빙) - 3일차 다이빙 (Abu Nuhas 지역 / 2회 다이빙) - 후루가다 도착

1 홍해에서 독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RSDT 소속 다이빙 강사들 **2** 홍해의 럭셔리 호텔 **3** 무리지어 이동하는 청대치들과 한 쌍의 나비고기

김산
PADI 코스디렉터
Red Sea Dive Team

용인 아르피아 스포츠센타
스킨스쿠버다이빙 전용풀장 OPEN

용인시 죽전에 위치한 아르피아 스포츠센타에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위한 전용풀과 전문시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 스쿠버다이빙 전용 풀
- 강의실 및 회의실
- 사우나 및 샤워실

교육 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 수시 개최
수중사진 / 비디오 교육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용인 아르피아 스포츠센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 2동 1003-43

SDD INTERNATIONAL

Be a Diver With SDD International

SDD INTERNATIONAL 강사양성센타

김동혁(서울 • 경기) / SDD International
이메일 : sddihq@nate.com
전 화 : 031-708-6967

조지훈(성남) / 바다
이메일 : badacho112@hanmail.net
전 화 : 010-6242-9550

박세익(광주) / 블랙마린
이메일 : blackmarine2@naver.com
전 화 : 010-8230-1001

정지원(울산) / 울산스쿠버
이메일 : jwjung1009@yahoo.co.kr
전 화 : 010-8510-2609

이재원(속초) / 동명스쿠버
이메일 : npm271@naver.com
전 화 : 033-632-2215

김영기(인천 • 경기) / 119 Rescue
이메일 : k119yk@hanmail.net
전 화 : 010-2698-9948

이창호(광주) / 광주 Deep Blue
이메일 : changho7776@yahoo.co.kr
전 화 : 010-9412-9433

김창문(강릉) / 영진아쿠아존
이메일 : 01190589933@hanmail.net
전 화 : 010-9058-9933

성기영(동해) / 동해 Deep Blue
이메일 : sky79881112@hanmail.net
전 화 : 011-371-7988

오기현(전북) / 고창 Deep Blue
이메일 : scuba112@hanmail.net
전 화 : 011-656-7988

SDD 강사교육과정 안내

SDD 강사교육과정은...

- 단지 스쿠버다이빙 강사를 배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기본적인 교육 개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합격, 불합격보다는 교육내용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 환경에 맞는 가장 한국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 육 비 : 1,200,000원

SDD는 최고를 지향하는 전문가들의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 입니다

Let's SDD

www.sddi.org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1003-43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B2
T.031-264-1661 F.031-264-1822

거북들의 놀이터,

발리카삭

주변에서 발리카삭을 한번 가보라고 여러 번 권유를 받았지만, 교통편이 불편하여 몇 번 미루다가 비로서 큰 결심을 하고 지난 11월말에 비행기에 올랐다. 보홀섬의 탁빌라란으로 가는 항공기 연결이 좋지 않아 마닐라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탁빌라란 공항에 도착하니 다이브스루 스쿠버리조트(Dive Thru Scuba Resort)에서 마중을 나와 있었다.

팡라오 섬의 유명한 알로나 비치 부근에 자리잡은 이 리조트의 다이브 숍에 도착하니 체격이 자그마한 아가씨가 인사를 한다. 자기가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를 돌봐줄 가이드라고 하는데 나는 이 아가씨가 과연 탱크를 들어올릴 힘이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팡라오 섬에서 발리카삭 섬 까지는 방카 보트로 30분 정도 걸리지만 리조트의 배가 고장이 나서 작은 배로 이동 하느라 50분 이상 걸렸다. 첫날 다이빙은 다이버스 헤븐의 절벽을 따라 25 m의 수심에서 하였는데 이날 다이빙을 마치고 나는 너무 실망하였다. 이 정도의 월 다이빙은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고 모알보알만 가도 지척에 널려있고 가격도 훨씬 싸다.

일부 인터넷에서 세계 5대 다이빙 포인트라고 떠들어 대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고 이곳을 찾은 나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다. 보따리를 싸서 떠나고 싶었지만 호텔비를 모두 선불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하였다.

다음날 다이빙은 블랙 포레스트에서 하였고, 나는 계속 가이드 아가씨에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다.

조류가 제법 있었는데 수심 7-8m 정도에서 우리는 수천마리의 잭피쉬 무리를 만났다. 잭피쉬들이 다이버들을 많이 보았는지, 전혀 도망을 가지 않고 유유히 내 곁으로 지나간다. 스쳐 지나면서 나를 경계하며 돌려대는 눈동자가 너무나 순진하고 재미있다. 정말로 경이로운 장면 이었고 내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내가 잭피쉬 무리의 중앙을 뚫고 들어가도 이 녀석들은 전혀 도망을 치지 않는다.

나는 비로소 발리카삭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잭피쉬 무리 때문에 이 많은 다이버들이 이곳을 찾는 것이다. 수심이 7-8 m 밖에 안되니 탱크에 공기가 남아돌아 1시간 20분을 물속에 있다가 가이드 아가씨에게 미안하여 그만 출수를 하였다.

발리카삭 섬에 올라가 로즈스 플레이스(Rose's Place)라는 간판도 없는 식당에서 점심을 사먹었는데 맛은 제법 있었으나 가격이 비쌌다. 이 식당 아줌마가 예전에 한국 리조트에서 요리사로 일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 또 다시 블랙 포레스트로 입수를 하였다. 수심 7 – 9m 정도의 하얀 모래 밭에 잔디처럼 생긴 해초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나는 이곳이 거북들의 천국이라고 직감하였다. 뜯어 먹을 풀이 사방에 널려있고 수심이 얕으니 내가 거북이라도 이곳에서 살겠다. 그리고 보니 여기 저기에서 거북들이 눈에 자주 뜨인다. 입수를 하자마자 아주 커다란 거북을 만났으나 조류가 세어서 접근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와이에서 거북들과 많이 놀아 보아서 거북을 다룰 줄 안다. 거북에게 접근 할 때는 거북을 쳐다 보면 안된다. 반대편을 바라보며 딴청을 부리며 살금살금 접근 해야지 거북이 도망을 안간다. 거북에게 3m 정도 접근 한 뒤에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카메라의 노출과 스트로브의 각도 등을 미리 조절한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면 거북이를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 할 수 있다. 이때 숨을 쉬면 공기 방울 때문에 거북이 도망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숨을 끊고 서서히 접근 한 뒤 셔터를 눌러야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1970년대에 하와이에서 써먹던 수법이 이곳에서도 확실하게 통하였다. 이 커다란 거북이 경계심을 풀고 나를 위험인물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다. 등을 살살 만져도 싫은 눈치가 전혀 아니고 계속 풀을 뜯어 먹는다. 지나가던 서양 가이드가 탱크를 두들기며 거북을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1970년대 하와이에는 거북이 많았고 우리는 물속에서 거북 등에 올라타고 다니며 놀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후에 생각하니 이것이 무척이나 몰상식한 짓이었다.

사람이 거북 등을 붙잡고 올라 탔으니 거북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탈진한 거북은 수면으로 숨을 쉬러 갈 기력조차 없어서 익사하는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북이 등에 올라탄 다이버의 손가락을 두 개나 물어 뜯어버리는 일도 생겼다. 그 다이버의 이름은 잭 크인데 아직도 하와이에서 "8손가락 재크"를 기억하는 다이버들이 많다. 얼마 후,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거북 보호법을 만들어서 스쿠바 도중 거북을 만지면 $5000의 벌금을 부과 하였다. 거북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닿으면 $5000불 벌금이다.

거북이 싫어하지만 않으면 등을 긁어서 이끼를 닦아 주는 것이 거북의 건강에 이롭다. 거북의 등과 배에 빨판상어가 달라 붙어서 청소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은가? 등을 살살 만지다가 거북이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손을 떼었다. 거북을 절대로 강제로 붙잡거나 하지 않고 살살 등딱지만 어루만졌지만 그래도 이곳이 하와이라면 몇 만 불의 벌금을 물었을 것이다. 거북에게 접근 하느라 숨을 하도 참았더니 머리가 아파온다.

거북과 놀다가 조류를 타고 내려가니 수천 마리의 잭피쉬 무리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한번의 다이빙 도중, 이처럼 얕은 7 m 수심에서, 거북들과 놀고, 수천 마리의 잭피쉬 무리 속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다이브 사이트가 과연 세계에 몇 곳이나 있을까? 나는 곰곰히 생각하였다. 오픈워터 자격증을 방금 취득한 나의 초보자 친구에게 제일 먼저 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발리카삭이 아닐까 생각한다. 발리카삭이 세계 5대 다이빙 포인트라는 것은 상당한 과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30탱크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초보자라면 발리카삭이 세계 5대 다이빙 포인트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심이 7 – 8m 밖에 안되니 비상시에 쉽게 탈출을 할 수 있고 잭피쉬 떼나 거북을 볼 수 있는 확률이 항상 90% 이상이니 초보자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장소임이 확실하다.

방카 보트에서 쉬고 있을 때 물속에서 다른 팀의 한국 여성 다이버 한 명이 갑자기 솟아 올랐다. 혹시나 비상 사고 인가 놀라 나는 이 여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마스크를 벗어서 물을 뺀 뒤 바로 다시 입수 하였다.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여자는 마스크 속의 물을 제거 할 줄 몰라서 수면으로 올라와서 마스크 속의 물을 뺀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발리카삭의 최대 장점이었다. 수심이 7 – 8m 밖에 안되니 급하면 수면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래서 초보자들이 안심하고 잠수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후로 나는 다른 다이빙 포인트는 찾지 않고 매일 블랙 포레스트에서만 잠수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거북 때문이었다. 이곳에서 하는 월다이빙은 다른 곳에 가도 얼마던지 할 수 있다. 잭피쉬도 여러 번 보면 조금 흥미를 잃게 된다. 그러나 거북과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은 흔치가 않다.

거북들과 매일 놀다 보니 거북들을 기억하게 되었다. 한 녀석은 목에 때처럼 검은 이끼가 끼어 있어서 "목때"라고 이름을 지었고, 등에 초록색 이끼가 많은 녀석은 "파란등"이라고 지었다. 한 녀석은 물고기들이 등딱지를 자주 클리닝 해주었는지 아주 등이 깨끗하여서 "예쁜이"이라고 부르고 사진 모델로 주로 찍었다.

예쁜이는 정말 충실한 모델이 되어 주었다. 카메라의 스트로브가 계속 터져도 도망을 안가고 풀만 뜯어 먹고 있었다. 등이 깨끗하니 사진도 잘 받고 비디오로 찍어도 예쁘게 나온다. 수영도 천천히 해주어서 바로 옆에 따라 가며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도 숨이 차질 않았다.

하루는 블랙 포레스트의 6m 수심에서 스톤피쉬를 발견하였다. 정말 이름 그대로 돌멩이 같이 생겼고, 꼼짝도 않고 있다. 스톤피쉬는 등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여러 개 숨겨져 있고 이 가시로 독을 분사하는데 독사 보다 더 치명적인 종류도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한다. 물속을 걸어가다가 이 고기를 밟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많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배쪽을 만지면 안전하여 손바닥 위에 이 고기를 올려 놓고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주영필
NAUI 어드밴스드 다이버(1987)
500여회 로그
Canon 5D-Mark II, Canon 16-35mm Lens,
Sea&Sea Housing, YS-250
아웃도어 장비 디자이너

다이빙을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오자 따끈한 수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 여러 다이브 리조트를 다녀 보았으나 이 곳처럼 서비스가 좋은 곳을 보질 못했다. 이 리조트는 매일 따끈한 수프를 끓여놓고 우리가 바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에 리조트에서 배를 타면 우리 장비가 이미 실려 있었고, 다이빙 후 장비를 배에서 내려 세척까지 모두 해준다. 가이드도 아주 경험이 많았고 성격도 좋았다. 저녁에 알로나 비치로 놀러 갔다가 대장금이라는 한국식당을 발견 하였는데 날씨가 더워서인지 냉면이 아주 맛있었다. 아직도 발리카삭을 생각하면 거북이 “예쁜이”와 대장금의 냉면이 그리워 진다.
발리카삭은 참으로 특이한 곳이다. 필리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섬을 거북과 잭피쉬가 환상적인 다이빙 포인트로 둔갑을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다이버라면 반드시 한번쯤 가 보아야 하고 특히 초보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나도 기회가 되면 예쁜이를 만나러 또 다시 가고 싶다.

2012년 스쿠버넷 매거진 송년회

12월 14일 스쿠버넷의 송년회를 다녀왔습니다. 함박눈이 아름답게 펑펑 내리던 금요일 저녁 대치동 "반룡산"에서 스쿠버넷 매거진 기고가들의 조촐하고도 정겨운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실 조촐하지 않았습니다. 저 먼 부산에서 대전에서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혹은 장거리 운전을 해서 모두들 먼 길을 달려와서 참석했으니까요. 일년을 마무리하는 스쿠버넷의 잔칫날이었습니다. 연말 송년회들과 모임들이 겹치고 직장일과 겹쳐서 이번에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네요. 언제 봐도 반갑고 정다운 분들 다이빙과 수중사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렇게 다이빙과 사진을 위한 만남이 생기면 언제든지 먼 길 마다 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와 주시는 분들, 정말 고맙고 멋진 분들입니다. 다이빙과 수중사진이라는 가슴 떨리는 공통 주제로 언제든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밤새워 다이빙과 수중사진을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다이빙을 통해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즐거웠던 이야기들과 각자의 분야에서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와 다가오는 2013년의 새로운 다이빙계획을 세우는 유쾌한 자리였고, 다이빙에 열정을 가진 새로운 얼굴들도 만난 시간, 당신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한 해 동안 참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3차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역시 다이빙, 다이빙, 다이빙 그리고 수중사진 이야기…….

그 열정 고스란히 모아서 2013년에도 모두들 더 즐거운 다이빙하시고 더 좋은 사진들 찍으시고 더 많이 바다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바다를 만나기 위해 그 어떠한 환경에도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랑을 가슴에 담으신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즐거운 송년회 자리였습니다.

다시 한 번 자신의 소중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사진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여주시고, 서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스쿠버넷의 기고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이렇게 감사하며 보내고 다가오는 2013년도 더 좋고 행복한 다이빙과 더 좋은 글들과 더 많은 정보들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백소영
어드밴스드 다이버
스쿠버넷 기자

마레스 랩 세미나

마레스 코리아는 최근 겨울철을 맞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쿠버 숍과 강사들을 위해 꾸준히 마레스 랩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랩 세미나는 마레스 제품 및 다이빙 장비에 관한 A/S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일반 다이버도 참여할 수 있는 베이직 과정과 스쿠버 다이빙 숍 및 강사들을 위한 어드밴스드와 엑스퍼트 과정이 있다. 하루에 한 과정씩 진행되며 베이직은 10명까지, 어드밴스드와 익스퍼트 과정은 원활한 실습과 이해를 위해 7명까지 수강인원을 제한한다. 스쿠바 다이빙 숍 또는 마레스 코리아에 신청하여 소속된 숍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는 마레스 코리아가 주관하고 있다. 마레스 랩교육은 3일 동안 진행되며 1일차는 이론 교육과정으로 표준 및 규정, 다이빙장비 재질, 물리학, 호흡기 작동원리 등의 이론을 익히며, 2일차 과정에서는 호흡기 실습, A/S 부품, 장비 문제해결 방법을 배운다. 3일차 과정은 호흡기 실습, 컴퓨터 알고리즘과 이론/실기 최종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2, 3일차 과정 재수강을 통해 다시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랩 세미나 자격증을 획득하면 마레스 A/S매뉴얼과 전용공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스쿠버 숍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마레스 장비 지정점이 된다. 2년에 하루씩 업데이트 교육을 받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마레스 랩 세미나 부산 이지다이빙

마레스 코리아는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이지다이빙에서 마레스 랩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지다이빙은 매년 소속강사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랩 교육을 진행하여 제품의 신뢰도와 사용중인 장비 및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번 교육에는 남재주, 손영수, 박석관 등의 소속 회원들이 참가하였고, 김해 장유스쿠버의 윤철현 대표, 진주 마린블루스의 이재훈 대표는 엑스퍼트 과정까지 교육을 받았다.

마레스 랩 세미나 용인 고다이빙

마레스 코리아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용인 고다이빙에서 마레스 랩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 참가자는 블루존 스쿠바 김시광, 고다이빙 임용우, 아이눈 이달우, CEO다이빙 장철기, 씨넥스 솔루텍 김재찬 등 총 5명이 참가하였다.

마레스 코리아 세부 임직원 워크숍 개최

마레스의 한국 공식 수입상인 마레스 코리아(대표 우대혁)는 지난 2012년 11월 21일에서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리핀 세부 오슬롭의 진스 다이브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마레스 코리아는 10년 전부터 매년 직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워크숍을 열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스쿠버다이빙 장비 수입업체 직원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장비에 대해 많이 아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업과 관리 등 실제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카탈로그나 제품 설명서 등 활자화된 정보에 의존하기 쉽다. 또 평상시 업무로 늘 스쿠버다이빙을 접하다 보니 다이빙에 대한 갈증(?)이 덜 하게 되어 생각보다 다이빙을 많이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마레스 코리아는 해외 다이빙 투어 워크숍을 통해 전 직원이 자사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장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시간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졌다.

인터오션 신제품 이이픽스 A4

인터오션은 아이폰4, 아이폰4s의 수중촬영용 하우징 아이픽스A4를 출시하였다. 아이픽스 A4 하우징은 아이폰 4/4s를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으로 방수 수심은 40m이고, 수중촬영 전용 레드필터, 광각렌즈, 접사렌즈 등의 옵션도 있어서 수중촬영에 특화되어 있다. 가격은 190,000원이다. 이와 함께 아이픽스 A4에 트레이와 암 그리고 비디오 라이트가 포함된 세트도 있는데 가격은 440,000원이다.
옵션으로 판매하는 레드필터는 35,000원이고, 생활방수가 되는 waterskin은 5,000원에 제공한다. 광각렌즈와 접사렌즈는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공급될 예정이다.

파티마 신제품 PL-30/PL33 LED 파워라이트

Patima PL-30/PL-33 LED Power Light

파티마엔지니어링에서는 2013년 신제품으로 성능이 더욱 향상된 LED 파워라이트 PL-30/PL33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했다. PL-30과 PL-33은 모두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1개를 사용하며, 10W 1300 루멘 Cree ARR2-XM 고출력 파워 LED 전구를 사용하여 밝기가 매우 밝으면서도 사이즈는 매우 콤팩트하다. BC 주머니에 수납될 수 있을 정도의 초소형 휴대용 라이트로서 PL-30은 직진성이 매우 강력하며(조사각 30°), PL-33은 전용 트레이, 암세트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하우징용 수중비디오 라이트로 사용할 수 있고, 디지털 카메라 수중하우징에 부착하여 타켓 라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조사각이 넓은(90°) 제품이다. 셀 배터리의 직접 사용으로 배터리 문제 최소화 시켰고, 뛰어난 내구성과 특수 회로 채택으로 고장률 제로에 도전하는 신세대 수중라이트이다.

PL-30 LED 파워라이트

PL-33 LED 비디오 라이트

Patima PL-30/33 사양

01 재질: 내부식성 알루미늄, 아세탈, 스테인리스스틸
02 제작방식: 통 알루미늄 CNC 기계 가공 방식
03 피막: 바렐, 센딩 후 아노다이징(경질)피막처리, 부식방지 특수 코팅
04 색상: 블랙
05 전원: 충전용 Lithium-ion, 18650, 4/3FA 사이즈 1개
06 배터리 장착: Lithium-ion, 18650 전용 배터리 케이스
07 유효사용시간: 연속사용 60-90분
08 충전기: JIL LITE JC-2000 2구 동시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18650 배터리 홀더 사용)
09 전구: 10W 1300루멘 Cree ARR2-XM 고출력 파워 LED 전구
10 조사각도: PL-30 30°, PI-33 90°
11 전원 스위치: 내구성이 좋은 원터치식 ON/OFF 스위치
12 최대방수수심: 120m
13 무게: PL-30 250g, PL-33 280g
14 크기: PL-30 40mm x 175mm, PL33 61mm x 182mm

다이버스몰 사랑나눔 연탄 봉사

다이버스몰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12월 22일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서 사랑나눔 연탄 봉사 활동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다이버스몰 임직원 15명과 우정사 정영윤 부장을 비롯한 다이버스몰 고객 23명이 참가하였다.

다이버스몰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에 60명의 고객과 함께 한 '사랑 나눔 경매'의 전 수익금으로 연탄 3,600장을 구매했고, 여기에 추가로 400장을 구매하여 각 가구당 200장씩 총 20가구 4,000장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다이버스몰은 이번 연탄 나눔 행사를 위하여 사랑 나눔 경매와 별도로 11월부터 12월 한 달 간 주문 건에 대하여 고객의 별도 부담 없이 1,000원씩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날 서울의 기온은 영하 5~10℃ 이하로 체감온도가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난 후 따뜻한 순대국밥과 함께 가족적인 분위기로 마무리 하였다.

(사진1)

다이버스몰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과 공식 후원 계약

수중/수난/수상 전문기업 다이버스몰은 지난 2012년 12월 26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철인3종 경기연맹)과 4년간의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조인식에는 다이버스몰(Camaro Korea)의 김영우 대표를 비롯한 카마로 코리아 직원과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철인3종 경기 연맹) 유문규 부회장 외 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에 따라 카마로의 공식 수입원인 다이버스몰은 2016년 12월까지 4년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팀의 슈트(X-pulsor) 및 국내 외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다이버스몰 김영우 대표는 대한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대표팀 외에도 국내 대한트라이애슬론 연맹의 주최 대회에서 각종 이벤트 행사와 대회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에 앞서 11월 인천해양경찰청장배 송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대회에서는 이미 부문별 각 1위에게(Pro-pulsor 소비자가 85만원) 슈트를 증정하기도 했었다.

CAMARO는 수상 스포츠용 슈트 전문 브랜드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및 바다 수영 인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사진2)

1

2

제5회 BSAC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

BSAC 코리아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 제5회 BSAC 수중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대상 - 이수호
금상 - 김용식
은상 - 심상선
동상 - 권천중
장려상 - 박헌영
입선 - 김재우, 김현석, 윤철, 이상호, 하정민

BSAC KOREA 탁상용 달력 제작

BSAC 코리아는 제5회 BSAC 수중사진 공모전 입상작들로 디자인된 탁상용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BSAC의 각 등록 센터는 물론이고,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센터에도 제공한다.

BSAC 래쉬가드 제작

BSAC 코리아는 해양활동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잠수복 내의 이너슈트로 쓸림을 방지해주는 래쉬가드를 제작했다. 색상은 파스텔 톤의 오렌지와 스카이이며, 2013년의 BSAC 창립 60주년 기념 로고를 새겨 넣었다.
사이즈는 80, 85, 90, 95, 100로 BSAC 멤버들은 본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팔라우 다이빙 팸투어

BSAC 코리아는 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다리다이버스(대표 이성수, http://daridivers.com)로 4월 4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 다이버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다이빙 사이트로 유명한 팔라우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에서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 취항하고 있다.

1

2

3

4

2012 NAUI 연말파티

한국의 NAUI 멤버들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저녁 역삼동 오렐리에서 NAUI 연말파티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NAUI 코스디렉터 및 트레이너들이 주관하고, 후원하여 진행되었는데 NAUI 강사와 AI 등의 멤버들과 강사들이 운영하는 다이빙 클럽 회원 등 약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행사는 Korea NAUI 프로 플래티넘센터의 이요섭 대표(NAUI WD)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는데 2013년부터 달라지는 NAUI 정책에 대한 소개와 참가한 NAUI 강사들의 소개 그리고 강사들과 함께 한 회원 및 클럽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협찬사들의 협찬품들이 경품으로 제공되었는데 다이브컴퓨터, 레귤레이터, BC, 슈트 등 다양한 경품들이 나누어져 분위기를 달궜다.

IANTD 코리아 송년회

IANTD 코리아는 지난 2012년 12월 14일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17층 스카이뷰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IANTD 소속강사들 100여명이 참가하여 한 해를 되돌아 보고, 2013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환 트레이너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광휘 대표와 우정사 신명철 대표의 축사에 이어 IANTD 코리아의 홍장화 본부장의 2012년 행사보고와 2013년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고, 각종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신규 강사를 대표하여 김명옥 강사가 인정서를 받았고, 김창제, 김창환, 황영석 트레이너가 신규로 인정서를 받았다. 최우수 트레이너로는 스쿠버인의 황영민 트레이너, 최우수 강사로는 지상의 낙원 이민호 트레이너가 수상하였으며, 금능 마린게스트 하우스(수중산책)이 최우수 퍼실리티, 우수 강사로 워터 월드 스킨스쿠버의 정영환 강사가 수상하였다. 그리고 태안 경찰특공대 대장인 오현식 트레이너, 울산 노틸러스의 황영석 트레이너가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와 함께 푸짐한 경품들도 제공되어 참가자들 모두 흐뭇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씨월드 보라카이 PADI IDC / IE

필리핀 보라카이의 PADI 5스타 CDC 센터인 씨월드 다이브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 29일~12월 8일에 IDC를 개최하고, 이어서 12월 10일~11일에는 IE를 개최하였다. IDC는 김순식, 김현준 코스디렉터가 주관하였고, 스태프 강사로는 정혜경, 이혜림, James Mc Cann, Joanna-Grace JR. Rausa 등이 참가하였다. 강사지망생으로는 김석준, 최상현, 김동철, 김득권, David Paz Paredes(스페인) 등이 참가하였고, 이들은 IE에 참가하여 합격하였다. IE 감독관으로는 조지 웨그만(George Wagmann)이 참가했다.

ScubaNet

SCUBANET WEB MAGAZINE 2012.12.07 17번째

ScubaNet magazine

스쿠버넷 매거진은 인터넷(www.scubanet.kr)에서만 다운로드 받아 구독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 전문 전자잡지입니다. 아이패드 등의 태블릿PC나 스마트폰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